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8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 영 애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2018년 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 영 애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김영미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 문 초 록

한국 교회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발전을 거듭해 선교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안에서의 활용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며 여전히 교회의 특별 행사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예배무용의 유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서울의 다섯 교회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예배무용이 교회의 예배 안에서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 예배와 예배무용에 대해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와 본질을 알아봄으로써 예배 안에서 무용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기독교 예배무용의 형태들을 파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오늘날 한국 및 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독교 무용에 대해 분류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의 리더를 심층면접하여 운영현황, 회중과의 관계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자가 각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관찰한 내용과 함께 각 예배무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를 보면 A 교회는 공연형태의 예배무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일 저녁예배, 주요 교회 행사 및 절기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B 교회는 매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 철야예배 찬양시간에 예배 무용을 하고 있으며, 교회 행사 및 교회 내외의 사역에 공연 형태로 무용을 하고 있는 워십댄스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C 교회는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에 격주로 율동을 하며 모든 회중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장년 예배에서의 특별 예배에 공연 형태로도 올린다. D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형태이다. E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단독으로 즉흥무용을 하고 있다.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시 회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A 교회는 관람 형태로 회중이 참여적이지는 않으나 예배무용을 통해 은혜를 받아 설교 뿐 아니라 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된다. B 교회의 회중들은 비교적 쉬운 동작의 율동을 함께 참여적으로 따라한다. C 교회 역시 몸찬양팀의 율동에 대체로 참여적으로 따라하는 편이다. D 교회는 EDM 음악에 맞춰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예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E 교회는 무용수 단독으로 즉흥무용을 하기 때문에 회중들은 수동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의 특성을 보면 A 교회는 대표리더가 무용계 현업에서 종사하던 전문가이며 단원들의 50% 이상이 전공자로 구성되어있다. B 교회는 보수적 교단의 장년예배임에도 대부분의 회중들이 찬무팀의 율동에 참여적이다. C 교회의 단원들은 다양한 무용장르를 구사하며 많은 연습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D 교회는 주일 두 번의 본 예배에서 1시간 30분 동안의 찬양시간에 대부분의 회중들이 춤을 춘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E 교회는 소규모의 교회로 무대도 좁고 회중과의 거리도 가까운 환경에서도 무용수가 단독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춤을 추는 점이 인상적인 곳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섯 가지 예배무용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회중들이 관람하는 형태도 있었으며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각 교회의 환경, 특성에 맞게 예배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예배, 예배무용, 기독교무용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5
제 4절 선행연구 분석	5
제 5절 용어의 정의	8
제 2장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해	10
제 1절 예배의 의미 및 본질	10
제 2절 예배무용의 이해	13
1) 예배무용의 정의	13
2) 역사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무용	16
가) 의식을 위한 무용	16
나) 축제를 위한 무용	20
다) 치유를 위한 무용	22
라) 예배를 위한 무용	23
마) 설교 및 교화를 위한 무용	25
제 3장 최근 기독교무용의 분류	26
제 1절 율동 및 몸찬양	26
제 2절 수어무용	28
제 3절 공연 예술 형태의 무용	31
제 4절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e)	36
제 5절 매체를 이용한 춤	38

제 4장 다섯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	41
제 1절 다섯 교회의 일반적 특성	41
1)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41
2)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정보	43
제 2절 예배무용 운영현황	45
1) 예배무용의 도입배경	45
2) 예배무용의 운영형태	48
3)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51
제 3절 회중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54
1) 회중의 구성 및 태도	54
2)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의 참여 형태	58
제 4절 예배무용의 특성	63
1) 예배무용팀의 특징	63
2) 예배무용의 특성	66
제 5장 결론	75
참고문헌	79
부록	83
ABSTRACT	132

표 목차

[표 1] 수화무용의 창작과 지도과정	29
[표 2] 성경에서 색상의 의미	39
[표 3] 5개 교회의 기본 정보	41
[표 4] 5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43
[표 5]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마인드	45
[표 6]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및 재정지원 여부	51
[표 7]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54
[표 8]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57
[표 9]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들의 참여 형태	62
[표 10] 팀 리더가 보는 예배무용팀의 특징	65
[표 11] 각 교회 예배무용의 장점 및 영향	73
[표 12]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75

그림 목차

그림 1 Fra Angelico <심판의 날(The Last Judgement)> 중 일부	20
그림 2 14세기의 바보축제의 표현	21
그림 3 셰이커 교도 예배실	24
그림 4 깃발을 이용한 춤 ICDF	40
그림 5 깃발을 이용한 춤 ICDF	40
그림 6 A 교회 찬양대와 연합공연	58
그림 7 A 교회 현대무용단 공연	58
그림 8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59
그림 9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59
그림 10 C 교회 작품 공연	60
그림 11 C 교회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60
그림 12 D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1
그림 13 E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2
그림 14 E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2
그림 15 A 교회 무용연습실	67
그림 16 A 교회 무용연습실	67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¹⁾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기독교인들의 의무와도 같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의 자발적인 동기도 내포한다. 존 헉스터블(John Huxtable)은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²⁾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며 지냈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며 지낼 수 없게 되었는데, 구약시대에 와서야 의식과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용하신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부터 기원됐다고 할 수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에서 신약시대의 회당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초대교회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예배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기도 하다. 제사와 예배에 있어 우리의 자발적 참여와 순수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었음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1)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565.

2)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출판사. p75.

보다 나오니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³⁾

초대교회의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에 의해 드러지던 예배였다. 그러나 시대를 거쳐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에서는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는 등, 점점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사제들과 같은 특권층의 고유 의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죄부 판매와 같은 가톨릭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으며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측의 웨이커 교도⁴⁾, 모라비안 주의⁵⁾ 등을 중심으로 신자 개인의 체험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이 두 교파들은 예배에서 회중들이 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예전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 강조되었던 것은 예배의 주체로서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였다.⁶⁾ 이처럼 신, 구교를 막론하고 회중들의 예배 참여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기존 교단 예배와 형식의 차이가 있는 열린예배⁷⁾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1세기 열린예배에서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찬양의

3)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4) 개신교의 한 종파로 1647년 영국인 조지 파크스 (George Fox)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교파는 내적 계시를 중요시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였다.

5) 개신교의 한 종파로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도 이 교파에 영향을 받았다.

6) 한은희. (2011).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7) 기독교 문화에 낯선 불신자들, 복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하여 '세상 문화'를 예배에 접목시킨 것으로, 짧은 드라마(skit)나 음악(랩, 재즈 등), 무용,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적 언어를 통해 불신자들이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일소하고 쉽게 찾아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퓨전 형식의 예배이다.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856.

수용, 드라마, 무용 등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도입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춰 말 그대로 누구나 예배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현대의 열린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하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점점 콘서트 혹은 공연과 같이 되어버림으로써 때로는 회중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관객의 입장이 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⁸⁾

오늘날에도 예배 갱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예배는 매 주일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회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유교적 관점으로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에서 신자들은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으로 손을 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몸짓이 더 나아가서는 움직임 또는 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율동 혹은 무용에 대한 견해는 교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청년층 위주로 C.C.M.의 활발한 활용, 또는 설교를 돕는 드라마의 도입 등, 여러 스타일의 예배가 도입되면서 무용도 찬양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무용은 찬양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비전문가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학적 법칙에 의해 영혼과 결합시킨 신체의 표현으로 음악과 미술, 무대장치, 의상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시공간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은 선사시대로부터 기원하며 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로서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⁹⁾ 구약성경에서도 무용은 즐거운 행사로 언급하고 있으며¹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무용을 직접적으로 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초막절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부터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8) 최광규. (2013).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9)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pp.14-5, pp.19-20.

10) 박경숙. (2013). 『재미있는 서양무용사』. 충남: 공주대학교 출판부. p20.

과 사랑, 경외심을 몸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시대에 이르러 육체는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교회 내의 춤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서민들은 교회 밖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무용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표출 되었으며, 결국 중세 시대에도 예배무용은 억압과 규율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문화 예술이 발전하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무용은 점차 다양하게 발전되고 활용되기에 이르렀다.¹¹⁾

기독교에서 예배무용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예배무용은 오늘날 비교적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개방되어 있고 자유로운 서양의 교회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양 교회에서는 찬양 중에 받은 감동을 즉흥적으로 춤을 통해 표하거나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는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넓혀준다.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굽혀 절한다”는 의미와 “입맞춤” 등,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¹²⁾ 이렇듯 예배는 그 자체에 능동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손뼉 치며,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드는 등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예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찬양만 부르는 것보다 한층 예배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교회가 여전히 보수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배무용 형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배에서 무용을 도입하고 있는 다섯 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서 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에 도입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예배무용을 위해 그 가능성 및 다양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11) 전계서, 박경숙, p45.

12)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pp.3-4.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은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의미에 대해 원어적 의미와 본질을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예배무용의 정의를 문헌적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예배무용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최근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을 분류, 알아보았다.

다섯째, 특징적 예배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팀 리더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자가 각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관찰일지를 기록하였다.

일곱 번째,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일지를 통해서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선정하였다.

둘째, 5년 이상 예배무용을 실행한 곳으로 하였다.

셋째, 예배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 중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섯 교회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예배무용은 교회 예배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 4절 선행연구 분석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가 있어 오기는 하였으나, 교회의 예배에서 활용되는 무용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찾기 어려운 편이다. 용어에 있어서 예배무용이라 칭하여 연구를 한 경우에도 실상 그 개념에는 교회 안에서의 무용과 밖에서의 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된 기록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점차적으로 예배무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 2018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회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예배 갱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송유순(1990)은 “기독교의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에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예배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의 무용에 대해 문헌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찬양의 수단으로써의 예배무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기독교 예배와 무용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교회에서의 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서와 현황을 중심으로 예배무용의 역사와 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 본 박은영(2004)의 “예배무용의 특성 연구”에서 또한 율동, 수화 위십댄스, 가스펠 댄스, 뮤지컬 댄스 등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배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특성을 분류하여 기록함으로써 타 무용의 준비과정과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지연(2005)은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기독교 문화와 예배무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의 무용과 밖에서의 무용으로 분류하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예배무용을 2년 이상 실시한 7개의 교회의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조사에서 예배무용 활용 시기와 시간에 대한 질문에 절기행사와 예배 중 특별순서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그 당시 예배무용의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한나(2009)는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의 목회자 또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로 진로를 정하게 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무용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으로 나왔으며 예

배무용을 절기와 행사에서 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신학생과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이정인(2009)은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에서 조사 대상에 차이를 두어 실시하였으나 두 그룹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두 그룹 모두 예배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동적인 성도에서 능동적인 성도로 변화시킨다고 응답하여 예배무용의 예배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용이 다른 문화에 비해 예배에서의 활용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으로 응답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조선하(2016)는 “한국교회 공(公)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내 공예배서의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5개의 선행연구에서 결과로 도출된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최근까지도 예배 안에서 활용되는 무용은 절기나 행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기재하였다. 이 외에도 만족도 및 장애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배무용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신학적으로는 예배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정창교(2009)는 “예배갱신으로서의 열린예배 연구”에서 열린예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올바른 정립을 통한 열린예배의 수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열린예배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행해지는 예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희(2011)는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예배에서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는 회중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질서의 기본요소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역사적으로 예배 갱신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회중 참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무용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의 활용도도 높다고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예배에 대해 살펴본 최광규(2013)의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서 열린예배의 특징과 성서적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교회의 예배의 회중들도 비참여적으로 관람하러 예배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예배의 문화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더 균형 잡힌 예배무용을 확립해야함을 알 수 있다.

홍동진(2016)은 “예배에서 EDM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EDM 음악에 맞춰 찬양하면서 회중들이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 청년층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EDM 음악의 찬양의 활용에 대해 예배음악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EDM 음악을 활용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 인도자를 심층면접 하여 이 장르의 도입 배경과 이유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 면접을 통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는 청년층의 예배의 참여도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배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과 역사적인 변천과정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의 예배무용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예배에 대한 갱신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된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예배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예배무용이 교회의 예배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5개의 유형으로 예배무용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회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제 5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 하였다.

예배무용: 교회내의 예배 즉,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청년예배, 금요철야예배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용으로 의미를 두었다.

선교무용: 교회에서 국내외 선교활동을 위해 준비한 무용을 의미한다.

교회무용: 교회의 예배 및 선교, 전도 등을 위한 무용으로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무용을 말한다.

기독교무용: 위에서 언급한 교회무용의 개념과 교회 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의 공연예술 단체 및 선교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무용을 포함한다.



제 2장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해

제 1절 예배의 의미 및 본질

예배가 지니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예배에 무용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타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먼저 샤하아(שָׁחָה, 샤카)는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경배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뜻하기도 한다.¹³⁾ 이렇듯 예배는 나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샤라트(שָׂרַח)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으로 구약에서 총 96회가 언급되었고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60회 정도 된다. 이스라엘에게 섬김의 대상은 목조물 등으로 만들어 놓은 이방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이 섬김은 성막 및 훗날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포괄한다.¹⁴⁾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들의 성소에서 이들의 섬김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요엘 1:13, 역대상 6:17, 16:4, 16:37, 사무엘상 2:11, 2:18, 3:1).

아바드(עָבַד)는 원래 종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이 또한 “자신을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하다”의 뜻을 담고 있다. 고전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부유한 사람이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뜻이 있었으나 종교적 의미를 부가하여 사용하였다.¹⁵⁾ 이 단어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의미의 봉사가 아닌 종으로써 낮아진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듯 해야 함을 알게 된다.

13) Dannis, John Randall. (2006). 『샤카, 살아있는 예배』. (송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토기장이. pp. 30-1.

14) 이기문. (1989). 『구약 원어해설사전』. 서울: 성서교육개발원. p210.

15) 김소영. (1974).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p. 30-1.

신약에서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헬라어가 예배라는 의미로 24회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본래 존경의 의미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라는 뜻으로 헬라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던 단어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굽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구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선포 하셨을 때 사용되던 말이다. 이는 우리에게 다만 종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겨야함을 각인시켜 주는 단어로 예배의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를 통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⁷⁾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는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헬라의 시(市)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해석을 통해 교회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헬라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서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이 단어는 후에 기독교 예전의식을 뜻하는 liturgy 라는 영어로 바뀌어 예배의 표현형식을 의미하게 된다.¹⁹⁾

위의 언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행위이다. 자신을 내려놓아 잇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또한 회중의 섬김을 통한 예배의 참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직자들과 같은 특정 인물들만의 참여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위의 많은 어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뿐 아니라 몸을 다하여서도 예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황성철. (1998).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p19.

17) 정장복. (2005).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p19.

18) Segler, Franklin M. (1994).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p19.

19) 전계서. 최신정. p72.

예배의 영어표현은 worship으로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합성이다. 이는 가치와 신분이 있는 분에게 그에 맞는 사랑과 존경을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이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위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기록돼 있다. 그러나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가 따른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격적으로 드러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감동이나 체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시며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²¹⁾

구약의 제사부터 신약의 회당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주어진 절차 속에 드러져 왔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각 제사가 지니는 목적과 형식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반되는 제사였다. 이 원리는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요구된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든 회중석에서 참여하는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진실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에는 겸손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피조물은 없다.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성경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낮추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드러야하는 예배에서도 협동하며 드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 맞춰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예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의 말씀을

20) 전계서. Segler, Franklin M. p18.

21) 신경섭. (1996). “예배의 본질과 한국 교회 예배 개혁의 방향”. 합동신학교 목회학과 졸업논문. p5.

이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순서와 절차 속에 드리되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성찬, 말씀, 세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면서도 예언, 방언 및 통역, 계시를 말하는 은사적인 요소들도 존재했었다. 그 시대의 예배 순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오늘날의 예배에서 행하는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은사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되어 다양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²²⁾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예배에서만 거룩하게 지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적용시켜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본 개념을 알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배의 절차 속에서도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또한 삶에서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제 2절 예배무용의 이해

1) 예배무용의 정의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기 전 우리는 움직임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소통하였다. 무용의 기원은 선사시대 수렵과 채집활동을 하면서 주술적 의식을 통해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과거 제사장들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 수렵무용, 수태를 기원하는 무용, 전쟁 무용, 농경무용 등이 있었으며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또 나아가서는 치유를 위해 주술적으로

22) 송영목. (2013). 신약성경의 예배에서 배우기. 코람테오닷컴.
<http://www.kscom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

행하는 무용도 생겨났다. 이렇듯 무용은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무용은 점차적으로 종교에서 독립하여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무용은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통한 공간 형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또한 미적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예술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²³⁾

그동안 무용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정의는 시대를 따라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적 가치관을 따라 변해 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 BC 427년-BC 347년)은 “무용은 육체의 율동과 영혼의 매개체이다”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현대무용 창시자인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1877-1927)은 “무용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하였고, 독일의 현대무용가 마리 뷔그만(Mary Wigman, 1886-1973)은 “무용이란 조형예술이며 창작, 구성된 형태의 변모를 보여주는 구경거리이다”라고 하였다.²⁴⁾ 위의 다른 시대 및 다른 사회 배경 속의 무용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대를 따라 무용의 개념에 대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무용이 단순히 신체적 활동이 아닌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및 감정으로 볼 수 있는 신앙심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의 한 장르인 즉흥무용은 이사도라 던컨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칙이나 훈련에 의해 습득된 방법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분출하는 순간의 움직임이 진정한 표현의 춤이라고 생각하였다. 즉흥무용의 활용은 비단 전문 무용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추어질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겐 안무의 일부로, 비전문가들에겐 무용의 테크닉에 대한 어려움 없이 좀 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즉흥무용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창작과 미적 능력을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한다. 시 공간을 통해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

23) 전계서, 양서정 외, pp. 16-9.

24) 김화숙, 한혜리, (1999). 『교양수업을 위한 무용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p18.

해 배울 수 있게 된다.²⁵⁾ 이러한 즉흥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듯 표현하는 예술인 무용을 여러 형태로 도입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을 예배 중에도 찬양 등의 음악에 맞춰 활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된 대부분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9:3)”,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 지어다(시편 150:4).” 이렇듯 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경배 표현의 극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에서 행해지는 무용을 경배무용, 예배무용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만 본 연구자는 통칭하여 ‘예배무용’이라고 하겠다. 영어로 worship은 예배와 경배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예배무용을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경배무용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가 있으며 영어로도 liturgical dance와 worship dance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²⁶⁾ 그러나 의식 속에서 드러지는 예배무용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춤을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예배에서 받은 감동을 즉각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던 미리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모실 수 있게 되자 기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 왕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들의 춤은 짜인 안무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대부분을 작사한 시인이면서 대표적인 예배 자였던 다윗은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였다. 어떤 의식에 맞춰 추는 것이 아닌 이러한 즉흥적인 춤은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질서 가운데 회중들 또는 무용을 배운 무용수들에 의해서도 추어질

25) Novack, Cynthia J. (2000). 『즉흥무용의 이해: 접촉에 의한 즉흥행위와 미국 문화』. (서진은, 역). 서울: 금광미디어. p236.

26) 안은경. (201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무용』. 서울: 일오삼출판사. p35.

수 있다.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과 같은 춤의 형태도 예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배무용의 범주 안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무용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작품의 주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배무용은 무용수에 의해서 춤을 춘다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무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그 주제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춤이다. 따라서 예배무용 시 무용수는 자신을 드러내려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용수의 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가가 더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교회무용 사역자 매들린 베리(Madeleine Berry)는 “예배에서의 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상 그분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²⁷⁾ 또한 강준민 목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²⁸⁾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예배무용은 무용이라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 것이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듯 그 몸짓에서 더 확장되어 표현되는 것을 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배무용은 즉흥으로 추는 춤이든 어떠한 의식에 맞춰 준비된 춤이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추는 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역사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무용

가) 의식을 위한 무용

성물과 관련된 의식무용은 성스러운 물체를 중심에 두고 행해졌는데 구약성서(창 12:6, 21:19, 21, 29, 수 24:26)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때에

27) 매들린 베리. (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p9.

28) 강준민. (200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서울: 두란노. p463.

성물 주위에서 손을 잡고 원무의 형태로 승배의 의식으로 행진 스텝, 뛰는 스텝을 하며 추어졌다. 또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며 행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아랍 문화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Hagg’라는 의식의 춤을 의미하였다. 이는 ‘Kabba’라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에서도 추어지며 모든 성물 주위에서 추어졌다.²⁹⁾

승리를 축하하는 무용이 이스라엘 여인들에 의해 추어졌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 드리는데 춤이 사용되었으며 이 기록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누이인 미리엄과 여인들이 소고 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은혜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기록은 구약의 다른 성서(삿 11:34, 삼상 21:11, 29: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⁰⁾

구약 성서에 결혼의식에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두 곳(삿 21:21, 23, 아 6: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약 성서의 외경중의 하나인 토비트(Tobit)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축제는 14일 정도 행해졌던 것으로 기록돼있다. 결혼식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 누구나 참여해서 신부 앞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 또한 신랑 신부 앞에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춤을 추는 의식이 있었다.³¹⁾ 또한 본 연구자가 어렸을 때 참석했던 중동의 전통 결혼 문화에서도 결혼식 후 며칠 동안 행해지던 피로연에서 지인들이 춤을 추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대 유대인들이 장례식 때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성서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의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행위로 장례의식이 행해졌는데 춤을 추어 그 영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때 추는 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하였다. 또한 죽은 자의 영을 원(圓)안에 가둬으로써 다른 나쁜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망자 주위를 돌며 추는 춤도 있었다.³²⁾

29) 전계서, 박영애. pp.120-1

30) 상계서. pp.125-6.

31) 상계서. pp.126-9.

32) 전계서, 박영애. pp.130-3.

춤을 추면서 숭배하고 있는 대상의 신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무아경의 의식무용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아경의 춤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춤을 추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러한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춤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영이 춤추는 자들에게 내려졌다. 이들에게 있어 이런 종류의 춤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와 영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³⁾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순교자를 위한 무용은 4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묘지에서 경의를 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이날을 순교자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할 만큼 그의 기일을 기념하는 의식이 열렸다. 이때 연주된 음악과 노래는 슬픔보다는 기쁨과 승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는 성 크리소스툼(St. Chrysostom, AD 349-407)의 권면 때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승리의 원무를 추어야한다고 말했다.³⁴⁾ 사제의 인도로 독창이나 합창에 맞춰 추기도 하였으며 여러 명이 원무나 행렬을 하며 추기도 하였다. 이때 찬송가나 시편에 맞춰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추었는데 이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했다.³⁵⁾

미로(labyrinth)모양은 대성당 바닥에 많이 장식 되었는데 이 나선형을 따라 행렬하는 무용은 11세기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이집트, 그리스, 이태리 등 유럽 여러나라의 대성당에서 미로 모양을 볼 수 있는데, 크레타 섬의 미로가 모델이 되었다.³⁷⁾ 교회에서 추었던 미로무용은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리더가 인도하여 미로를 따라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형식이다. 이 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지하세계에 내려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해 오는 것이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33) 전계서. 박영애. pp.133-6.

34) 상계서. pp.172-3.

35) Backman, E. Louis. (1952). 『Religious Dances in the Chrisitan Church and in Popular Medicin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p.38-9.

36) Taylor, Margaret Fisk. (1967). 『A Time to Dance』.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p92.

37) Deitering, Carolyn. (1984). 『The Liturgy as Dance』. New York: Crossroad. p42.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길’이라는 순례를 상징하는 무용도 있었다. 이 순례의 무용에서 리더가 바닥의 미로 모양과 잘 어울리도록 스텝과 템포를 조절하여 느린 운무로 춤을 인도하였다. 성가의 마지막 음절이 나올 때를 맞추어 미로의 중심에 도착하게 하였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다.³⁸⁾ 이런 미로무용 중에 펠로타(Pelota)라는 공을 들고 추는 춤이 있었다. 이는 성직자들로부터 아랫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원대형으로 손을 잡고 한 팔은 공을 안고 다른 팔로는 손을 잡았다. 트라이푸디엄을 추면서 미로를 따라 돌았는데 이때 부활절 노래를 불렀다. 이런 펠로타 무용은 4세기 때 만에도 주교가 회중들과 어우러져 이끌며 추었으나 성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들 고유의 춤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캐롤은 르네상스 시대인 1451년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⁴⁰⁾ 주로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이끄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프랑스 북부 지역의 음유시인인 투르베르들(Trouvere, 11-14세기)에 의해 캐롤이라고 불리었으며 궁정이나 상류층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롤은 교회 안 보다는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수도사들에 의해 신앙이 전파 되면서 밖에서 활발하게 되었다. 캐럴 가사의 주제는 다양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의 <최후의 심판(The Last Judgement)>이라는 그림 중 <구속받은 자의 춤(The Dance of Redeemed)>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자들과 천사들이 원을 만들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캐롤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무용으로써 부활절 캐롤이나 원무는 교회 수도원에서 부활절 전야제 때 행해지기도 하였다. ‘콘월 캐롤(Cornwall Carol)’은 영국의 중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캐롤로서 민요와 어우러져 불렀다. 이는 교회 밖에서 많이 불렀고 지방 교회에서는 무용도 함께했었다.⁴¹⁾

38) 로버트 랭. (1996). 『서양문화사 II』. (이희재, 역). 서울: 사군자. p71.

39) 전계서. Deitering. p43.

40) Bumke, Joachim. (2000). 『Courtly Culture. Woodstock』. (NY: The Overlook Press). p225.

41) 전계서. 박영애. pp.157-161.



그림 1 Fra Angelico의 <심판의 날(The Last Judgement)>중 일부분⁴²⁾

나) 축제를 위한 무용

먼저 축제무용이 행해졌던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가그(Chagag)’는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 16번 등장한다. 그 중에 축제의 의미로 쓰인 것은 13번(출애굽기5:1, 12:14, 23:14, 레위기23:39,41 민수기 29:12, 신명기16:15, 시편42:4, 107:27, 나훔 1:5, 스가랴 14:16,18,19)이다.⁴³⁾ 하가그는 뒤에 축제라는 단순한 의미의 하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며, 이는 ‘행렬, 원무, 축제’ 등 뜻을 지니고 있다.⁴⁴⁾ 또한 하가그를 주로 초막절을 지칭하는 단어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다른 절기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⁴⁵⁾ 이렇듯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축제와도 같은 절기에 행렬 및 원무를 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막절 이외의 무교절, 유월절, 및 맥추절에도 축제를 행했다. 유월절을 뜻하는 ‘페사흐(Pesach)’는 원래 절뚝거리는 스텝 중 하나를 일컬었다. 이런 절뚝거리는 스텝을 이용하여 유대인 노예들의 춤이 되었다. 행렬, 원무의 형태 이외에도 초막절 축제 기간에 여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였으며 남자들이 횃불 춤을 추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춤은 매우 오래된 풍습으로 춤을 추면서 시편을 노래하

42) 전계서. 박영애. p158.

43) 이완. (2017).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44) Holiday, L. William. (1974).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p95.

45) 김은혜. (2016). “성서에 나타난 원형적인 무용 텍스트와 컨텍스트 연구 - 에포트 이론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9.

기도 하였다.⁴⁶⁾

초기 중세 때부터 존재했었던 바보축제는 매년 1월 경, 특히 프랑스에서 행해지던 행사이다. 이때 교황, 대주교, 또는 주교를 선출하였으며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역할을 바꾸며 풍자적인 놀이를 하였는데 미사와 전례 때 무용을 함께 하였다. 동물 가면을 쓰고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나귀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 바보축제는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성직자들과 서민들이 입장을 바꿔 조롱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압된 삶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축제는 후에 일부 성직자들이 이교도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1212년에 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1614년이 돼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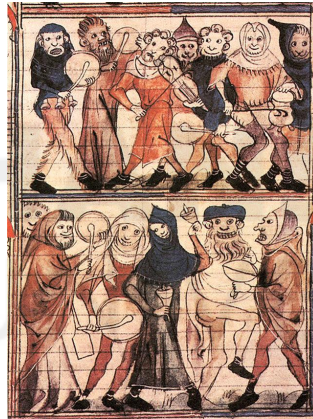


그림 2 14세기의 바보축제의 표현⁴⁸⁾

바보축제에 이어 어린이 축제가 탄생했는데, 이는 12월 28일에 행해진 행사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헤롯왕의 명령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는 교황 그레고리 4세(827-844년)가 학교와 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임명된 교황 그레고리 1세를 기념하여 시작한 축제이다. 1327년경의 기록에 보면 이 행사의 미사에서 춤을 추며 어린이 주교를 뽑았다. 소

46) 전계서. 박영애. p122-4.

47) 상계서. pp.177-190.

48) Laskow, Sarah. (2017). The New Year's Feast That Transformed Fools Into Popes and Kings. Atlas Obscura.

<https://www.atlasobscura.com/articles/feast-of-fools-medieval-tradition>

년성가대원들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춘 춤을 묘사하며 미사가 끝나갈 무렵 힘을 다해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주교를 선출할 때 소년 성가대원들은 원무와 쓰리스텝(tripidium)을 추었다.⁴⁹⁾ 오순절로 알려져 있는 성령강림축일에 성도들이 성물을 들고 교회에 바치는 행렬이 있었던 것으로 중세 초기 문헌들이 전하고 있다. 교회의 행렬은 오랜 종교적 무용의 형태로 항상 춤을 동반하였다. 행진을 할 때 리듬에 맞춰 스텝을 밟았다. 또한 성체 축일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향로를 양옆으로 흔들며 하늘로 꽃을 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463년의 프라방스에서 열렸던 성체축일 가면극에서는 대사가 없는 판토마임과 무용만을 사용하여 극화시키기도 하였다. 중세 말기에는 쾰른에서 ‘고테스트라흐트(Gottestracht)’라고 하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성체 행렬’이 열렸는데, 성물과 성광이 함께 운반되었다. 이 행렬에 고위 관직자들과 성직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소년 성가대원들이 은 소재의 특별한 십자가를 들고 걸었다. 이때 ‘베른하르트(Bernhard)’라는 어릿광대가 앞에서 뛰면서 하는 스텝으로 춤을 추었다고 한다.⁵⁰⁾

13세기 브장송(Besançon)에서 유행한 베르게레트(Bergerette)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추어졌던 전통적 부활절 무용이다. 죽음과 지하세계에서 구원받은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였는데 행렬형태의 춤을 추었다.⁵¹⁾ 이 춤은 설교가 끝난 후 성직자들을 비롯한 성가대 대원들 및 참사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원 대형으로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과 연장자가 인도를 하였다. 라인덴스와 원무의 형태가 많았으며 미로의 행렬형태로 추었다.⁵²⁾ 부활절 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베르게레트는 성령강림절 축제 때에도 추었는데, 수도원 또는 교회에서 추었다.⁵³⁾

다) 치유를 위한 무용

49) 전계서. 박영애 pp.145-6.

50) 상계서. pp.148-152.

51) 전계서. Backman. p74.

52) 전계서. Taylor. pp.110-1.

53) 박영애. (2006).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1권. p16.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무용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사도 요한, 성 비투스(St. Vitus), 성 안토니(St. Anthony) 또는 성모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춤에 참여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치유의 무용의 유형은 행렬이 주가 되었는데 교회 초기부터 기도 행렬, 치유 행렬, 탄원 행렬이라고 불리면서 자신들의 불안과 재난 및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려 했었다. 이러한 행렬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성체,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상과 성물들을 앞세우고 행렬하였다. 또한 성인과 순교자들의 묘지를 옮길 때에도 춤을 동반한 행렬이 있었는데 이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중 836년 성 비투스의 유골을 코르베이로 옮기는 행렬에서 오그라져 있던 손, 팔 다리, 발이 펴지는 등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성 안토니를 위한 찬양과 무용이 있었으며, 성 마르샬(St. Marial)의 유골을 옮길 때도 춤을 추며 행렬을 했다. 이렇듯 순교자의 유골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병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200년경 우상숭배와 맞서다 순교한 카르타고의 주교 성 키프리안(St. Cyprian)의 묘지에서 행했던 축제와 춤이 질병의 치료, 악마 추방,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온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⁵⁴⁾

라) 예배를 위한 무용

기독교의 종파 중 하나인 콥트 교회는 451년 칼케돈(Calcedon)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주교와 초기 종교무용에 관심을 보인 성 킬리루스, 그리고 “무용을 하는 것은 천국에 있어서도 주요한 직분이므로 신자들은 지상에서 이것을 잘 습득해야 한다”⁵⁵⁾고 말하였던 성 바실리우스가 지지했던 알렉산드리아 의식에 기반을 두었다. 악숨(Aksum)의 시온교회의 예배에서는 사제들이

54) 전계서, 박영애. pp.152-6.

55)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p60.

노래를 하면서 원을 이루어 춤을 추면서 움직였다. 시작은 사제들로부터 하였으나 끝날 때쯤에는 회중이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는 에티오피아의 콥트 교회에 많이 남아있다. 이들의 전례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바실리우스가 지지했던 알렉산더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콥트 교회의 식 속에 초기 기독교 무용이 존재했었다.⁵⁶⁾

스페인 세비야의 주교였던 이시도어(Isidor)는 678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종교적 안무로 구성된 전례를 제안하였다. 이 전례는 이슬람 지배하의 중세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던 모자라베(Mozarabe)식으로 거행되었는데 소년 성가대원의 합창 이외에 춤을 추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15세기 이전부터 여섯 명의 소년 성가대원이라는 뜻의 ‘로스 세이스(Los Seises)’라고 불리면서 세비야 성당의 전례에 포함되었다. 로스 세이스는 일 년에 일곱 번 무용을 하였는데 가장 성대한 6월의 성체축일 축제와 12월의 성모 마리아 축일에도 하였으며 캐스터네즈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다.⁵⁷⁾

18세기 영국에서 탄생한 웨이커 교도들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신앙관을 바탕으로 한다. 1774년 Ann Lee는 소수의 신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엄격한 규율과 독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위, 아래로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 행위를 보이며 춤을 쳤는데 이를 통해 세속적인 것들을 털어낸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동작들로 Shakers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또한 1820년에는 둥글게 돌며 춤을 추었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16절에 나오는 바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원을 만들어 춤을 춘 것은 악으로부터 멀어져 섬을 향해 돌아 서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그림은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다.⁵⁸⁾



그림 3 웨이커 교도 예배실 (New Lebanon, 1873)

56) 전계서. 박영애. pp.193-6.

57) 상계서. pp.163-4.

58) 상계서. pp.221-5.

마) 설교 및 교화를 위한 무용

12-16세기의 종교무용으로 알려진 죽음의 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죄인들에게 겁을 주어 회개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회 수사들이 설교 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교와 함께 추어지기도 하였으며 공동묘지와 교회의 마당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이 죽음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납골당으로부터 등장한다. 그 의상은 노란색으로 해골이 그려져 있었으며 달라붙는 스타일이었다.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거나 죽음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춤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죽음이 비록 기괴한 일이지만 파괴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죽음 너머의 세계로 보내는 사절단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⁵⁹⁾

이렇게 시작된 죽음의 무용은 1347년에서 1373년 동안 지속되던 흑사병이 퍼지게 되면서 변하게 된다. 즉흥적인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고 정해진 패턴과 행렬의 모습이 더 많아졌다. 우스꽝스러운 자세들을 취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흑사병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사그라지자 이 무용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지게 되었다.⁶⁰⁾

59) 닥 아담스, 다이안아파스톨로스-카파도나. (2000). 『종교와 무용』. (김명숙, 역). 서울: 당그래. p39.

60) 전계서. 박영애. pp.191-2.

제 3장 최근 기독교 무용의 분류

제 1절 율동 및 몸찬양

한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가 도입된 것은 1913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시작된 조선주일학교와 1922년 평북 서천의 미국 북장로회 제인 사무엘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주일 학교나 교회 계절학교에서 율동 및 제스처 등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¹⁾ 1928년 여성교육가이면서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했던 최활란의 사진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 오락, 찬송가 및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1927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125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축하예배와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⁶²⁾ 이렇게 주일학교를 통해 도입된 율동과 제스처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어린이들의 교육 용도로만 활용되면서 특별한 발표회 또는 절기 행사에서나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1971년 나하나 교수에 의해 창립된 ‘착한 어린이 교육원’에서 율동을 보급하였다. 또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서 구원찬송을 보급하면서 율동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⁶³⁾ 그러는 중에 어린이들 위주로 만든 율동을 청소년층에게까지 보급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협소한 공간의 자리에 앉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동작을 청년층에 강요하다 보니 이를 거리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좁은 공간 탓으로 동작은 점점 손동작 위주로 제한적이게 되었다. 1970년 중반에 이르러서 외국의 복음성가가 몇몇 사역자들과 선교단체에 의해 보급 되면서 이에 맞는 청소년들을 위한 율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⁶⁴⁾

한국 교회의 찬양에 획기적인 전환기는 1980년 말에 등장한 ‘두란노 경배와 찬양’때 부터이다. 1984년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할 당시 Sharon Perry 와 무용단이 찬양 중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들의 등장

61) 이영호. (1980). 『교회계절학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pp.12-3.

62) 이덕주. (1993).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의 역사, 1921 ~ 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p209.

63) 박연훈. (1995). 『지금도 다윗처럼 춤 출 수 있다』 서울: 프레이즈. p31.

64) 윤초룡. (2002). “한국 기독교 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8.

이후에 무용팀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단과 마라나타 교회에서 무용 팀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워십댄스’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율동과 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수준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서의 ‘찬무’와 ‘몸찬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⁶⁵⁾

교회 외에서도 찬양 율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1992년 시작된 ‘이애라 목사’의 찬양율동신학원(현재, 이애라 글로벌찬양율동신학)이 있다. 이 단체는 주로 비전공자들로 이뤄진 곳이었으며 교회내의 중요 예배나 행사에 초청되어 찬양을 드렸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분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찬양율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있어 몸찬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몸찬양이라는 용어는 1992년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 의해 찬양율동을 성서적으로 정리한 단어이다. 율동이라는 개념이 교회 유치부 또는 교회학교에서 사용되던 흥미 위주와 행사용 위주의 개념을 새롭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⁶⁶⁾ 몸찬양은 교회의 예배 중에 회중들이 주로 상체 위주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지 않거나 특별히 배우지 않은 회중들에 의해서도 출수 있는 형태로서 공연예술 분야로 보기 보다는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범주로 율동의 한 분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교회의 몸찬양팀은 주로 여성위주로 구성이 되어왔으며 개량된 한국무용의 의상 디자인과 비슷한 하늘하늘한 소재로 된 것이 많다. 몸찬양의 안무 또한 얼핏 보면 한국무용의 동작들과 같은 구성으로 짜이지만 비전공자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연출하였다.

율동은 그 시작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념에 있어 유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의해 비교적 단순한 동작들로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수련회 및 어린이들로 구성된 교회 합창단에서 찬양과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있다. 몸찬양은 교회 예배에서 주로 장년층의 여성 회중들에 의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율동과 몸찬양을 활용하여 평소의 예배에도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교회

65) 송유순. (1991). “기독교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4.

66) 박연훈. (2002). 『몸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p57.

예배의 절기나 특별한 행사에 활용 되는 경향이 높다.

이렇듯 율동과 몸찬양은 주로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몸을 사용하여 올려드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 추는 분야이다 보니 특별한 용어의 정리 없이 율동과 몸찬양이라는 용어 외에도 ‘찬무’와 ‘바디워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최근에는 ‘워십댄스’라는 용어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찬무라는 용어는 몸찬양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디워십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몸찬양, 찬무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통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 같다.

제 2절 수어무용

과거 수화찬양 또는 수화무용이라 부르던 용어를 이제는 ‘수어무용’이라고 지칭해서 부른다. 이는 수화라는 용어 대신 또 하나의 언어라는 뜻으로 ‘수어’ 지칭하기로 한국수화언어법이 변경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수화’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었으나 공식적으로 ‘수어’로 결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한국수어’로 국어와 함께 한국의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이에 맞춰 과거 수화무용으로 부르던 것을 수어무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작된 농인교육은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구한말에 시작된 농인교육은 일제 강점기에는 오늘날 ‘국립서울농학교’와 ‘국립서울맹학교’의 모체가 되는 ‘제생원’이라는 곳이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농인들을 위한 종교 활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개신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평양의 광명맹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박윤삼 목사가 1946년 10월, 영락교회 내에 한국 최초의 농인을 위한 기독교 선교기관인 ‘농아부’를 설립하였다. 영락교회 내의 기관으로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 ‘영락농인교회’로

독립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농인교회로 자리 잡았다. 또한 1964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미국인 선교사인 Douglas Kramer는 경기도 평택에 농인 아동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였다. 1974년 McSin Straw Britch 선교사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최성만 목사와 함께 ‘에바다농학교’와 ‘에바다농아원’을 설립하였고 전국에 30여개에 이르는 에바다농인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같은 해에 영락교회 농인부를 나온 박집원 집사에 의해 농인감리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호주의 농학교 교사였던 Neville Muir 선교사가 1978년 한국에 국제특수농아선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회 소속의 교회를 15개나 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에 농인들을 위한 교회가 100 곳이 넘게 되었다.⁶⁷⁾

농인들의 문화도 함께 발전하였는데 수화예술 분야로 수화노래, 수화무용, 무용, 미술, 연극, 수화 시, 농 유머 등이 있다. 수화노래는 농인교회에서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를 때 처음 시도 되었다. 수화무용은 수화노래를 할 때, 수화동작에 맞는 의미의 무용동작을 구사하며 극적인 요소를 더해 수화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대구 소리예술단과 부산 배화수화무용부가 있다. 다음의 표는 부산 배화학교 수화무용부의 창작과 지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⁶⁸⁾

[표 1] 수화무용의 창작과 지도과정

단계	활동내용	지도요점
1.기획단계	▪ 전달 메시지 정하기 ▪ 메시지에 적합한 음악 선곡하기 ▪ 공연시나리오 작성하기 ▪ 음악 믹싱 작업하기	수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결정하고, 공연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의미파악 단계	▪ 가사의 뜻 이해하기 ▪ 가사내용의 느낌 말하기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파악하기	가사의 뜻과 메시지를 파악하고 노래의 의미를 내면화시킨다.

67) 안영희. (2003). “한국 농인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46.

68)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권 2호. p100-1.

3.리듬학습 단계	■ 음악적 리듬감과 박자 지각하기 ■ 리듬 익히기	노래의 리듬감을 익혀 역동적으로 수화를 표현하다.
4.수화전환 단계	■ 수화로 표현하기 ■ 자연수화로 전환하기 ■ 수화위치 설정, 양손 공간 활용하기	Phrase내에서 자연수화를 통해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도록 한다.
5.음감표현 단계	■ 리듬에 맞게 수화의 강약 조절하기 ■ 리듬에 맞게 수화의 속도 조절하기 ■ 리듬에 맞게 수화의 길이 조절하기	수화의 크기, 강약, 속도 등을 체계화하여 수화를 통해 음감을 표현한다.
6.비수지 언어와 통합단계	■ 시선, 눈, 안면근육, 고개, 머리 턱의 움직임 ■ 몸의 동작 표현하기 ■ 팔의 높낮이 설정하기	비수지신호의 사용은 억양, 강세, 리듬에 해당되며 느낌과 감정을 살리는 중요한 과정이다.
7.수화안무 단계	■ 수화에 기초한 무용동작 만들기 ■ 수화와 함께 무용동작 익히기	수화의 뜻에 적합한 의미 있는 몸동작을 만드는 과정으로 수화노래에 극적인 요소를 더한다.
8.무용통합 단계	■ 수화와 무용동작 연결하기 ■ 리듬에 맞춰 통합하기	자연수화에 언어적 리듬을 살려 작품성을 살리는 과정이다.
9.감정승화 단계	■ 감정 이입하기 ■ 표현능력 배양하기	수화에 감정을 이입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회에서 시작된 수화노래는 여러 농아인 단체들에 의해 수화제나 수화경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런 축제를 통해 수화를 배우는 청인들에게 수화를 확대 보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청인과 농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수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사전달에만 초점을 맞춰 의미 전달에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 청인 중심의 수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농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농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찾기가 어려우며 시선,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활용하지 못해 감정 표현이 서툴러 내면의 정서를 다루

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노래에 무용의 예술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수화무용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왔다.⁶⁹⁾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에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창작수어뮤지컬을 공연하는 극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로 13회가 되는 수어문화제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에 의해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이곳에서 수어를 위한 무용 공연이 있기도 하였다.

제 3절 공연 예술 형태의 무용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주어졌던 춤은 사제들 또는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연습해서 쫓던 공연 형식이 아닌 원을 만들어 돌거나 행렬을 하거나 깡충깡충 뛰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많았다.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은 어떤 주제를 설정하여 안무하고 예배 때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 기독교 예배에서 무용이 순수 공연 예술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이다.⁷⁰⁾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 무용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현대무용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nis, 1880-1968)는 그녀의 50세 이후의 시간을 기독교 무용에 심취하여 보냈다. 그녀가 뉴욕에 세운 정신예술 협회(Society of Spritual)와 신성무용교회(Church of Divine Danc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그녀가 이끄는 리듬 선교단(Rythm Choir)은 대형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데니스의 말년에 추구했었던 것은 예배 중에 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영적인 예술 세계를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그러한 그녀의 작품의 특징은 첫째, 기도로 작품의 주제를 정하고, 둘째, 무용수들의 정신에 의지하지 않고 성서구절의 핵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⁷¹⁾

세인트 데니스의 춤에 감명을 받아 무용을 시작한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1893-1991)은 데니스와 그녀의 배우자 테드 쉰(Ted Shawn)이 운영하던 데니쇼운(Denishawn)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인 「아팔래치아의 봄(Appalachian Spring)」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묘사에서 ‘마치 에덴동산과 같은’이라

69) 전개논문. 정진영. p102.

70) 전개서. 닥 아담스 외. p235.

71) 정의숙, 반주은. (2000). 『현대무용 인물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p94.

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⁷²⁾ 또한 「원시의 신비(Primitive Mysteries)」에서 성모마리아에 대해 다루었는데 성경속의 마리아에 대해서라기보다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의 어머니로서 숭배하는 감각을 다루었다. 「유디트(Judith)」라는 작품에서는 모세의 출애굽을 소재로 유디트라는 여성의 등장시켜 여성 관점에서 다루었다.⁷³⁾ 이렇듯 그라함은 성경에서 소재 또는 주제를 활용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도리스 험프리(Doris Humphrey, 1895-1958) 역시 데니쇼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녀는 움직임에 대한 이론을 일상적인 활동 즉, 호흡, 서있기, 걷기, 달리기, 건너뛰기, 상승, 낙하와 같은 동작에 기초를 두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인간의 행동이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는 드라마를 내포하여 자연적인 움직임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⁷⁴⁾ 이러한 그녀의 사상은 그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셰이커 교도들(The Shakers)’의 움직임에도 나타나있다. 험프리는 종교적인 문화에 바탕을 둔 춤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는 셰이커 교도들의 춤에 정의 할 수 없는 형식과 몸짓, 음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⁷⁵⁾ 이 작품은 율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평가들과 관객들은 ‘Shakerism’⁷⁶⁾의 감정 묘사에 찬사를 보냈다. 1930년 작품이 탄생했을 당시, 실제로 셰이커 교도들의 쇠퇴로 실제 그들의 춤을 볼 수 없었음에도 거의 완벽하게 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⁷⁷⁾

험프리와 와이드먼(Charis Weidman, 1901-1975)의 영향을 받은 호세 리몽(Jose Limon, 1908-1972)은 그 당시 남성 무용가로서는 최고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의 작품 「배반자(The traitor)」는 샬롬 아시(Sholem Ach)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책의 부분을 인용하여 안무하였는데, 유다로부터 배반당한

72) 전계서. 박영애. p230.

73) 전계서. 닥 아담스 외. pp. 206-9.

74) 전계서. 정의숙 외. p134.

75) Hutchinson, A. (1978). 『Doris Humphrey: The Collected Works Vol. 1. Dance Notation』. New York: Bureau Press. p67.

76) 셰이커 교도 또는 셰이커 교의 교리를 의미한다.

77) Youngerman, S. (1978). “The Shakers Based in Analysis”. 『CORD』. (Annual IX). p94.

예수에 대해 마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마임과 갈등, 괴로움, 죽음을 표현하였다.⁷⁸⁾ 이 작품 외에도 성경의 전도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때가 있다(There is a Time)」이라는 작품에서 한정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의 상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⁷⁹⁾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엘빈 에일리(Alvin Ailey, 1931-1989)는 그의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통해 이겨냈으며 교회 복음성가에 익숙해지고 후에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⁸⁰⁾ 29세 때 만든 작품 「계시(Revelation)」은 흑인 노예로서 받았던 고통을 신앙을 통해 위로 받고 서로 의지하여 흑인들에게 정신적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주제이다.⁸¹⁾

이렇듯 위에서 언급된 무용가들은 당대에 유명한 무용수거나 안무가였다. 그런 무용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거나 성경을 소재로 하여 그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작품성 있는 무용극을 한국에서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뮤지컬을 비롯한 무용극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뮤지컬로는 「Jesus Christ Superstar」, 「Godspell」이 있고, 현대 무용극으로 대표적인 육완순의 「Superstar Jesus Christ」가 있다. 현대무용 「Superstar Jesus Christ」의 경우 초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연 되었으며 대형 교회에도 초청받아 올려지기도 하였다.

1980년에 창단된 조승미발레단은 800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공연을 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 되었다. 이러한 발레단에서 기독교 창작 작품인 「모세의 기적(1989)」, 「삼손과 데릴라(1992)」 등을 안무하였으며 대중화에도 성공하였다. 이후에 호산나선교발레단이 생겼으며, 1985년 박경숙이 이끄는 하사딤 선교발레단과 1989년 박순자가 이끄는 한국선교무용단이 생겨났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공연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공연에 성서적인 소재를 채택하기도 하였

78) 최윤실. (2010). “종교성이 내재된 무용작품에 의한 기독교무용발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4.

79) 전계서. 박영애. p230.

80) 전계서. 정의숙 외. p211.

81)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 -Alvin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6.

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하여 삶의 애환이나 기쁨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장애인 행사 또는 교도소 등의 초청을 받아 공연 예술로 선교활동을 하였다. 또한 교회 또는 기독교 학교의 채플 등에 초청받아 예배 중에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⁸²⁾

발레단체로 또한 주목할 곳은 1992년 신은경에 의해 세워진 이화여대발레 앙상블이다. 「돌아온 탕자」, 「읍」, 「요나」, 「야곱과 에서」, 「룻」 등 성서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수도 없이 올렸다. 2003년에 시작한 「메시아」는 올해로 15번째 정기공연을 맞기도 하였으며, 2012년 초연된 「시편교향곡」이라는 작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간구, 소망과 기도를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발레 선교단체의 활약에 이어 박순자가 이끄는 한국선교무용단(현 한국선교무용예술원 Argon Dance Association)은 한국무용을 주로 활용하는 단체이다. 박순자는 한국의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 많다. 살풀이 및 승무도 선교무용으로 발전시켰는데 승무의 수평으로 펼쳐진 장삼은 그 고요한 이미지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살풀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승화시켜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화관무, 부채춤, 소고춤, 탈춤을 찬송가와 접목시켜 활용하였다.⁸³⁾

현대무용을 주로 하는 무용선교단체도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1994년에 세워진 육완순의 술람미선교무용단(현 명성현대무용단)이 있다. 1973년 부활절 예배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초연된 육완순의 「Superstar Jesus Christ」는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를 본 후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각색하고 보완하여 성경 중심의 무용극을 만들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300여 회 이상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교회 뿐 아니라 기독교 공연 예술로서 활용 되는 현대무용을 보여 주었다.⁸⁴⁾

또한 1995년 전유오에 의해 시작된 물맷돌 무용단은 모두 무용을 전공한

82) 전개논문. 윤초롱. pp.19-20.

83) 임혜영. (2015).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84) 함예원. (2014). “공연작품 비교 분석을 통한 기독교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5.

자들로 구성된 단체였으며 다양한 무용극을 제작하였고 창단 이래 200회 넘는 공연을 하였다. 채플 시간에 무용예배를 올리기도 하였고 비디오 문화선교 등을 통해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문둥병자 이야기」, 「Go」, 「Vision」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더 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⁸⁵⁾ 김명환 목사에 의해 2002년 세워진 OMD(오직예수월드미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강생들을 매 해 두 번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 과목으로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힙합 등 다양한 무용을 가르친다.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들과 그렇지 않은 수강생들을 비롯한 비전공자들이 모두 매 해 3월경에 열리는 선교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선교축제는 뮤지컬 스타일로 약 2시간 정도 되는 길이로 해마다 주제를 정해 C.C.M.에 맞춰 작품을 준비하여 올해로 14회째 공연을 하였다.

2015년에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에 기독교무용 전공이 신설되었다. 전공과목으로 크리스천 무용동작치료, 무용과 영성, 크리스천 무용창작, 워십댄스, 크리스천 뮤지컬 및 교회무용 지도법 등 다양한 과정을 공부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무용가가 양성되고 있다. 또한 ‘한성헤세드(Hansung Hesed)’라는 이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CDFK(Christian Dance Fellowship Korea)의 Festival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정기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기독교 뮤지컬이 창작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리아 마리아」를 들 수가 있으며 이는 2006년에는 브로드웨이에 초청받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변형하여 낭독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로 등 중소규모의 극장에서 공연된 「바울」이라는 뮤지컬도 있었다. 또한 ‘문화행동 아트트리’라는 곳은 문화선교 단체로 배우들이 합숙하면서 자체 제작한 창작 뮤지컬을 교회 등에서 올리고 티켓은 관객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Still」, 요한복음을 그래도 뮤지컬로 옮겨놓은 「Gospel」, 요나서와 누가복음 속 탕자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ABBA」,

85)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46.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The Book」 및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를 결합한 예수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야기인 「요한계시록」 등이 있다.

이러한 뮤지컬의 바람은 교회 내의 비전문인 성도들에게도 불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절기 예배에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한 대형 교회에서는 전문 뮤지컬 팀을 초청하여 올리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제작된 연세중앙교회의 「그 날(The Day)」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다른 교회에서 그대로 또는 각색하여 올리기도 하고 있다.

이렇듯 무용은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형태로 교회의 특별 예배 때 활용되고 있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외부 전문 공연 팀을 초청하여 올리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skit 드라마 속에 무용을 같이 활용하여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무용의 교회 내 활용이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절 C.C.D. (Christian Contemporary Dance)

C.C.D.는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에 맞춰 추는 춤을 말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청년층에 의해 확산되었다. Contemporary의 사전적 정의는 ‘동시대적의 그 당시’이며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C.C.D.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 된 것은 2000년 기독교 사이트인 갓피플(www.godpeople.com)에서였다. 이 코너에 ‘P.K.(Promise Keeper)’라는 팀의 현대적 감각의 댄스 동영상 올리기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홀리웨이브(Holy Wave), DMT(Dream Mission Team), 미션 드림(Mission Dream) 팀의 동영상도 올라가게 되었고⁸⁶⁾ C.C.D & 워십댄스라는 코너로 현재 마흔한 개의 팀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먼저 P.K.는 2000년 7월 창단되었는데 C.C.D.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86) 전개논문. 최재윤. p78.

아니다. 리더인 장광우를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의 혼성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노방전도, 고아원 또는 병원에서의 사역을 비롯하여 선교단체, 기독교 무용 교육기관 및 교회에서 C.C.D.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팀웍’으로 “사역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K.의 훈련방침은 매월 한 번씩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와 기도를 하고 큐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연습하기 전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다. 또한 댄스 테크닉의 훈련도 매주 3번 이상 리더의 주도로 이뤄진다.⁸⁷⁾

2001년 5월에 창단된 홀리웨이브 역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공연 사역도 활발히 해 왔다. 이 팀에서 주목 할 점은 다른 C.C.D.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합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 초등부 위십댄스팀인 ‘리틀웨이브’, 치유하는 교회의 4, 50대 남성 댄스팀인 ‘모세’ 및 힙합 전문 사역 팀인 ‘Mentor’와 ‘홀리원’이라는 연합집회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 역시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모여 연습을 하며 공연을 예배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⁸⁸⁾ 현재 홀리웨이브는 홍대에서 ‘G Dance Holywave Dance Compan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힙합 전문 팀인 Mentor는 1999년 영일교회에서 창단되었다. 이 팀의 특징은 유명한 가수들의 안무를 했었던 팀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닉적으로 일반 힙합팀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있다.⁸⁹⁾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C.C.D.의 탄생으로 인해 교회의 청년대학부 및 중고등부에서 많이 활용되어 확산되어 왔다. 이는 감상 형태의 춤으로서 회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상체 위주의 율동이나 몸찬양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에게 현대 음악의 장르와 비슷한 형태의 음악에 맞춰 요즈음의 힙합, 재즈댄스 및 방송 댄스 스타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87) 전계논문. 최재윤. p98.

88) 상계논문. p100.

89) 상계논문. p107.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교회내의 청년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적합한 장르의 수용으로 교회의 예배는 더 풍성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5절 매체를 이용한 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예배에서나 기독교 무용 전반에 걸쳐 탬버린, 깃발 또는 기치(배너)를 이용하여 춤을 추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춤을 출 때 이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보급하기 위한 각 해외의 워십댄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샵도 많이 있다.

성경에서 탬버린을 활용하여 춤을 추면서 기쁨을 증대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창세기 31장 27절과 출애굽기 15장 30절에서 기록되어 있다.⁹⁰⁾ 이 외에도 성경에서 탬버린(소고)을 사용하여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삿 11:34, 삼상 18:6, 시 68:25, 81:2, 149:3, 150:4, 사 5:12, 24:8, 30:32, 렘 31:4, 욥 21:12). 탬버린은 엄지손가락을 가죽 부분에 대고 가장자리를 감싸고 춤을 추며, 리본을 매달고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리본의 색상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깃발과 기치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이유는 이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깃발이 사용된 성경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⁹¹⁾

시 20: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 60: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넛시라 하고⁹²⁾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렘 51: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

90) Bensely, Marie. (2002). 『매체를 활용한 크리스천 댄스』. (박영애, 역). 서울: 프레이즈. p12.

91)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92) 영어 성경 NIV에서는 승리를 뜻하는 Nissi에 Banner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it The LORD is my Banner.

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렘 51:27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
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사 5: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로 돌아 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31:9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
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와 붙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
렘에 있느니라

위의 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깃발 및 기치(배너)의 문맥을 살펴보면 승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승리의 표징으로 깃발과 기치를 사용하였다. 춤을 출 때 깃발과 기치(배너)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 어느 상황에서나 승리하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아래의 표는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색상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각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여 탬버린의 리본, 깃발 및 기치를 사용하여 춤을 출 때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은 ICDF(International Christian Dance Fellowship)에서 깃발을 이용하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표2] 성경에서 색상의 의미⁹³⁾

빨간색	희생, 대속
다홍색	피, 구속, 전쟁
진홍색	속죄, 구원 희생, 구속의 능력
노란색	능력이 풍부함
녹색	생명, 영적 성장, 영생, 번영, 성장, 충분함
파란색	권위, 용기, 용맹, 성령님, 하늘의 능력
주황색	불, 오순절의 능력, 정화, 정결, 시험
자주색	왕족, 왕위, 부, 권세

보라색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무한한 능력
검은색	죄, 죽음, 기근
흰색	순수, 의, 거룩
갈색	육신, 세속적인
회색	신실, 지혜
황금색	영광, 신성함, 존엄
은색	구원, 회복
분홍색	사랑, 연합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림 4 깃발을 이용한 춤- ICDF⁹⁴⁾



그림 5 깃발을 이용한 춤- ICDF⁹⁵⁾

해외의 기독교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춤을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주 추고 있다. 이와 관련한 워크샵이나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예배와 집회 중에도 깃발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고 회중들이 깃발을 들고 행렬로 예배당 안을 돌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93) 타라 길야드. (2012). 『예언적 춤』. (천슬기, 역). 서울: 유다의 사자. p85-6.

94)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95)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제 4장 다섯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

제 1절 다섯 교회의 일반적 특성

한국에서 예배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교회 중 아래의 다섯 곳을 선정하여 각 교회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 리더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교회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3] 5개 교회의 기본 정보

	교회 설립년도	교회 소속 교단	재적인원	팀리더 정보	무용단 존재 기간
A교회	1980년	장로교 통합	10만 명	현대무용 전공자	약 10년
B교회	1948년	장로교 통합	10만 명	비전공자	약 20년
C교회	1969년	장로교 통합	1만 명	전공자	약 16년
D교회	2007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900 명	비전공자	약 10년
E교회	2013년	독립교단	70명	비전공자	약 5년

1)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1) A 교회

A 교회는 비교적 문화 예술 분야에 열려있는 교회로 무용뿐 아니라 성악 및 기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 교회의 무용예배는 공연 예술적인 형태로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특별한 순서로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절기예배나 특별 행사시에는 주일 예배에도 활용되고 있다.

(2) B 교회

B 교회는 각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의 찬양팀이 개별로 존재하며 찬무와 함께 드리는 찬양팀은 주일 저녁예배 찬양팀과 금요일예배 찬양

팀이다. 찬무는 성도들도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율동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또한 이 교회에는 워십댄스팀도 있는데 이 팀은 주로 교회 내외의 사역에 연합으로 섬기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 다른 부서의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외부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도 초청되기도 한다.

(3) C 교회

C 교회에는 몸찬양팀(이 교회는 무용으로 섬기는 모든 팀을 이와 같이 지칭함)이 4개의 장년부 여성 팀, 1개의 4-6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있는 팀 및 1개의 청년 부 팀이 있어 총 6개의 팀이 있다. 장년부의 몸찬양팀은 주로 절기예배와 교회주요 행사 때 무용공연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부 몸찬양팀은 매주일 청년예배의 찬양시간에 팀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중들도 함께 따라 하기도 한다. 이 팀 역시 찬양시간에는 율동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동작으로 회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절기예배와 주요 행사시에는 공연의 성격을 띤 형태로 준비하여 올리고 있으며, 이는 청년 예배뿐 아니라 장년예배 즉 주일 본 예배 때도 참여하고 있다.

(4) D 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인 D 교회는 별도의 무용 팀이 있지는 않다.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회중들이 예배당 앞이나 혹은 자리에서 직접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만 찬양팀 소속의 율동을 담당하는 몇몇의 팀원들에 의해 찬양 중 간단한 동작을 집단적으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경우도 있다.

(5) E 교회

독립교단 소속의 E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고 있다. 1인 무용 팀이며 무용수 혼자서 40분 정도의 찬양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고 있다.

A, B, C 교회는 대형교회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

합 측 소속이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예배, 특히 주일 본 예배의 절차와 순서에 있어 교단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 저녁 찬양예배, 수요, 금요 철야예배 및 청년 예배는 유연성 있게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 와 E 교회는 형식과 절차는 있으나 다른 교회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표4] 5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A교회	공연형태.
B교회	찬양 시 찬무(율동)팀 및 별도의 워십댄스팀.
C교회	총 6개의 장년부 및 청년부 몸찬양팀. 청년부: 찬양 시 율동 및 공연형태.
D교회	회중들의 자유로운 춤.
E교회	찬양 중 무용수의 즉흥무용.

2)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정보

(1) A 교회

A 교회의 무용 팀은 두 개인데 현대무용단과 한국무용단이다. 현대무용단은 2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주요 멤버는 15명 정도이다. 이 중 절반이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한국무용단은 대부분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현대무용단을 이끄는 대표리더는 일반무용계에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사람이며 작품의 기획과 안무의 검토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밑에 이 팀을 이끄는 리더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역시 현대무용 전공자이다. 이 무용팀의 리더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한 심령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싶다”라는 기도제목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치유하는 춤추는 사역자가 되어라”라는 감동을 받고 선교무용에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 B 교회

B 교회의 무용 팀은 찬무팀 2개, 워십댄스팀 1개가 있다. 저녁 찬양예배 찬무팀은 총 두 명, 금요철야예배 찬무팀은 5명, 워십댄스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비전공자이다. 워십댄스팀 리더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찬무팀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약 10년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하고자 하는 의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다고 하였다.

(3) C 교회

C 교회에 총 6개의 팀 중 본 연구에서는 청년부의 팀을 다루었다. 이 팀의 리더는 무용전공자로 이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워십 댄스를 하였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독교 무용을 본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리더는 학사와 석사를 무용을 전공하였으며 팀의 안무를 담당하는 한 명도 전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의 팀원들은 모두 비전공자들이다.

(4) D 교회

D 교회는 무용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찬양팀의 리더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구성이며 예배 팀 리더 역시 이끌면서 춤을 추기도 한다. 예배 팀 소속의 약 4명의 율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 1~2곡의 일부분에 회중들이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율동 준비하기도 한다. 이 교회에서 찬양 중에 자유로운 춤을 추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윗 왕과 미리엄이 춤을 추었듯 그렇게 추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 E 교회

E 교회는 무용팀이 있기는 하지만 팀 리더 혼자 존재하는 1인 팀이다. 이 팀의 리더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공부한 전공자는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선교단체의 워십댄스 아카데미와 개인 레슨으로 무용을 공부한 사람이다.

또한 현재 식사과정으로 기독교무용을 전공하고 있다. 이 리더 역시 성경적 근거로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중들이 은혜를 받으면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찬양 하듯 몸짓으로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춤추며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록된 곳은 없고 오히려 권장하였다고 했다.

[표5]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마인드

	예배무용팀 구성	리더의 예배무용에 대한 마인드
A교회	전체 26명. 주요 멤버 15명 (전공자 8명, 비전공자 7명)	일반무용이 아닌 ‘영혼을 치유하는 무용사역자’가 되는 것이 비전임.
B교회	워십댄스팀 7명(비전공자) 저녁예배 찬무팀 2명 (비전공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함.
C교회	청년부 워십댄스팀 8명 (전공자 2명, 비전공자 6명)	중학교부터 교회의 워십댄스팀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비전으로 받아드리게 되었음.
D교회	무용 팀 없음.	찬양팀 리더가 목회자로 춤추며 찬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E교회	1인 무용수의 팀(기독교무용 식사과정).	성경에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며 받은 감동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제 2절 예배무용의 운영현황

1) 예배무용의 도입배경

(1) A 교회

A 교회 현대무용단의 대표리더가 약 25년 전에 교회 밖에서 기독교무용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리더의 한 무용작품을 이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보고 감명을 받아 무용작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대무용단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8년 당시 교회의 현대무

용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대표리더를 모셔오게 되어 현대무용단이 창설되었다. 담임 목회자가 예술 분야에 열려있고 이를 통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라 무용단이 설립될 수 있었다.

(2) B 교회

B 교회는 약 20년 전쯤에 이곳에서 시무하고 있던 한 전도사가 외부의 찬양율동 단체에서 이를 배워옴으로써 도입하게 되었다. 배워온 찬양율동을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에 도입시켜 활용하게 하였다. 이 교회 역시 교회의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예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C 교회

C 교회에서 예배의 특별순서 시간 공연 형태로 올려 진 것은 15년 이상 되었으며 청년 예배시간에 찬양 함께 율동으로 하게 된 것은 약 6년 정도 되었다. 이 교회 역시 담임 목회자가 찬양시간에 몸찬양을 함께 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몸찬양팀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예배 안에도 도입되기도 하게 된 것이다.

(4) D 교회

D 교회는 개척 1년 후인 2008년에 담임 목사가 미국의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묶이면 성도들이 묶인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 본인이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이때 춤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모두 나와 춤추라고 권면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찬양 중에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연구를 교회 차원에서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내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연구를 통해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을 경험한다.”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BS에서 춤으로 치유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춤으로 암을 치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

지만 육적인 부분에서 열리지 않으면 혼의 부분이 열리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영의 부분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춤이 육의 부분을 열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예배 중에 알게 되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청소년층인데 대부분이 마음이 완고한 상태이다 보니 강도를 단계별로 하여 춤을 추도록 인도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 E 교회

E 교회는 2013년 1월에 개척되었는데 4월부터 예배의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찬양시간의 부분에서만 춤을 추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몇 달이 되지 않아 약 40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의 전곡에 맞춰 솔로로 춤을 추게 되었다.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문화선교단체에서 10년에서 20년 사역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분야에 열려있었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핵심 멤버이다 보니 미국의 예배 스타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열려있는 예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배 찬양 중에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무용수 혹은 그렇지 않은 회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즉흥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또한 예배 중에 받은 감동을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자유롭게 다양한 예술 형태로 표현하는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 개척을 한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즉흥무용을 도입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면 세부적인 도입 경로는 상이하지만 다섯 교회 모두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 또는 교회 사역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활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C 교회는 한국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 또는 사역자의 추진력에 의해 예배 안에서 무용의 도입을 꽤 오래전부터 허용 및 권장하여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예배무용의 운영형태

(1) A 교회

A 교회는 무용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에 열려있다. 무용도 절기예배 뿐 아니라 특별예배 및 무용이 필요한 예배에 자주 서는 편이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절기예배에는 모두 공연을 하고 교회 창립기념예배에도 한다. 저녁예배는 찬양예배로 주로 드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기존 예배 대비 말씀을 간단히 하신다. 대신 성악을 전공한 성도들이 말씀의 주제에 맞게 찬양을 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한다. 현대무용단 또한 한 파트를 담당하여 춤을 추고 한국무용단도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뮤지컬과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무용단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레파토리 중 하나를 올릴 때도 있으며 말씀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서 올릴 때도 있다.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의 단원들은 전공자가 50% 이상 되기는 하지만 팀원 모두 자원하여 섬기기 때문에 모두 무보수로 하고 있다. 교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나 특별 순서가 있을 때 교회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면 그것에 맞춰 지불되고 있다.

(2) B 교회

B 교회의 매 주일 저녁예배에 약 20-25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에 찬무로 함께 하고 있다. 찬양 시간 전곡을 찬무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첫 곡과 마지막 찬양은 제외하고 올린다. 금요철야예배의 찬무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워십댄스팀은 주로 교회 내 다른 부서 및 사역 팀에서 초청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전도단, 장년국, 외국인 선교국의 초청을 받게 된다. 이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들을 위해 해마다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실버대학팀에도 이 팀이 메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춤추며 예배한다. 또 다른 훈련학교 과정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면 워십댄스팀이 함께 가서 기간 내내 춤추며 예배드린다. 또한 다른 교회의 새 가족 초청 잔치에도 초청받아 3, 40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에 6, 7곡에 맞춰 춤추기도 하

고 있다. 이 교회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사역을 나갔다. 그 외에 미자립 교회에서도 초청받아 섬기기도 하였으며 외부 사역이 들어오는 대로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 팀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역한 횟수가 10회 정도 된다.

교회에서 매년 지원되는 재정이 있다. 년 초에 한 해에 필요한 액수를 받고 매달 필요한 금액을 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장년부 소속인 워십댄스팀은 자비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회의 예산을 교육국 즉 아이들과 청소년부에게로 증가시킬 계획 때문이다. 교회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 워십댄스팀에서 진행하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레슨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들의 사례비로 사용된다. 그 외의 의상 비는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20년간 활동해 오면서 쌓인 의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에서 공급되는 재정 이외에 발생하는 식사비, 간식비 등은 자비량으로 해결하고 있다.

(3) C 교회

C 교회는 청년예배의 찬양시간에 율동으로 함께 하는데 모든 곡에 참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춤을 추지 않을 때도 앞에 찬양팀과 같이 서서 예배드린다. 찬양 시간에 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격주로 진행된다. 연습 기간이 필요한 공연 형태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다. 청년예배 외에도 장년예배(주일 본 예배 등)에도 초청받아 올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거의 절기예배와 특별행사 때이다. 이 외에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및 부흥회 기간에 특별순서에 올리기도 하는데 성가대와 분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 1분기에 성가대가 했다면 2분기에는 청년부 워십댄스팀이 맡게 된다. 찬양팀과 같이 몸찬양팀이 회중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한다.

현재 1년에 100만원의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 3년 전까지는 전무했었기 때문에 팀원들로부터 매월 5천 원씩 걷어 활동해왔다. 현 리더가 팀장이 된 3년 전부터 매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증가시켜 받고 있다. 팀 단체복까지 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00만원으로 안무를 담당

하고 있는 팀원에게 50% 이상을 지불하고 나머지로 간식비 및 소품비로 소비한다. 작품에 필요한 의상 비는 자비량으로 해결하고 있다.

(4) D 교회

D 교회는 매 주일 드려지는 두 번의 본 예배에 찬양팀과 회중들이 모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시간이 약 한 시간 반 정도 된다. 과거에는 시계를 가리고 6, 7시간씩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화관에 가서도 2시간 넘게 할애하는데 예배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담임 목회자의 철학 때문이었다. 현재 예배도 찬양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드리고 있다.

주일 예배 이외에 절기예배나 특별 행사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회중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무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구성을 기획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 찬양팀은 또 외부사역을 많이 나가는 편인데 몇몇 교회들에 초청되어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갱신’의 성격을 띠고 인도하고 있다. 이 팀이 나가는 외부 교회 중에 외국 예배 형태에 영향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 교회는 무용수가 찬양 중에 앞에서 즉흥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춤을 추면 회중들이 따라 한다. 그 교회에서 D 교회의 찬양팀이 가서 ‘춤의 신학’을 예배학교 과정으로 두 달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워십댄스팀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예배당의 공간적 한계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워십댄스팀은 무용수 본인들만 춤을 추기보다는 회중들도 함께 출 수 있도록 이끄는 팀이다.

(5) E 교회

E 교회는 매 주일 한 번의 본 예배의 찬양 시간에 4, 50분 정도 무용수 혼자 즉흥 무용을 한다. 기본적으로 주일예배를 섬기며 그 외에 국내외 선교를 갈 때는 작품을 준비해서 공연 형태로 올린다. 그러나 이때도 팀원이 없기 때

문에 독무로 춤을 춘다. 교회에서 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은 없다. 교회의 회중수도 적어 재정현황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용에 필요한 소품 등이 있다면 교회의 재정으로 구비하여 사용한다.

[표6]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및 재정지원 여부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예배무용팀의 재정지원 여부
A교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성가대, 교회학교 댄스 팀과 연합으로 뮤지컬 형식의 공연.	정기적인 재정 지원은 없음. 필요시 예산을 청구하면 지급됨.
B교회	매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의 찬무. 매 금요 철야예배 찬양시간의 찬무. 워십댄스팀의 교회 내 부서의 초청 및 외부 교회에서의 초청 사역.	연초에 1년 예산이 책정되고 그 안 에서 필요 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 장년 부 소속의 재정은 감소하고 유년 부, 청소년부의 재정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C교회	격주로 청년부 예배 찬양시간에 회 중들도 따라하는 동작들로 구성함. 공연형태는 두 달에 한번 하고 있 음. 장년예배의 특별 행사에도 초청 되어 하고 있음.	3년 전까지 재정이 없었음. 3년 전부터 예산을 늘려가고 있음.
D교회	두 번의 주일 본 예배에 춤을 추며 예배함. (찬양시간이 1시간 30분) 절기예배 등 특별행사에는 프로젝 트팀의 형식으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준비함. 찬양팀의 외부 사역이 많음.	현재 무용 팀이 없어 이를 위한 재 정이 있지는 않음.
E교회	주일 한 번의 본 예배에 무용수 혼 자 4, 50분의 찬양시간 모든 곡에 맞춰 춤. 교회의 국내외 선교 시 작품을 준 비하여 이 역시 독무로 공연을 함.	1인 팀이므로 특별한 재정적 지원 은 없음. 소품 구매 등 필요시 교회 재정이 지원됨.

3)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1) A 교회

A 교회 현대무용단의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이다. 팀원들이 거의 직장인이다 보니 모여서 바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연습은 현대무용의 워업 동작을 시작으로 보유하고 있는 레파토리를 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나가기도 한다. 새로운 작품을 할 때의 안무는 대표리더가 안무를 한다. 화요일 모임에는 주로 무용의 테크닉적인 훈련을 한다.

영적인 훈련은 보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영성훈련은 없으며 이 무용단이 소속되어있는 교회 기관의 담당 목회자가 매월 2회 방문하여 기도회를 인도한다. 또한 팀을 맡고 있는 단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도로 기도회를 갖는다. 이 팀의 영성훈련은 주로 기도회를 갖는 형태이다.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의 찬무를 위한 연습은 이미 무용수들이 그 동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연습을 해오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만나 동작을 맞춰본다. 찬양 콘티는 약 1주일 전에 찬양팀으로부터 전달받아 연습한다.

워십댄스팀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연습한다. 월요일은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고, 목요일은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는데 모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다.

영적인 훈련은 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연습 시간 30분 전에 와서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는 정도이나. 그러나 팀원 각자 수요일예배 및 금요일야배 등 주중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영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담력이 생겨서 회중들 앞에서도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3) C 교회

C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으며 10

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주일 찬양예배의 몸찬양 연습은 1주일 전에 콘티가 나오면 토요일 연습 때 약 40분 정도 한다. 사역이 많아 질 경우에는 이 시간 외에도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 토요일 연습 전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음 상태를 공유한다. 그래서 서로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당일의 연습은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다.

영적인 훈련은 토요일의 나눔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 청년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교육’을 한다. 이 시간에 하나의 신앙서적을 선정해 장별로 읽고 나누면서 큐티와 교제를 한다.

(4) D 교회

D 교회는 무용 팀이 없는 관계로 팀 훈련은 없다. 그러나 매 설교 때마다 담임 목회자가 춤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또한 예배학교를 운영하는데 8주의 새 신자 과정이 끝나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면 들을 수 있는 과정인데 이 예배학교의 커리큘럼에 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필수적으로 듣게 된다.

(5) E 교회

E 교회의 경우 1인 팀이라 교회에서 이뤄지는 연습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국무용과 발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두 번 받고 있다. 또한 근력 향상을 위해 피트니스 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원에서 기독교무용을 전공하고 있어 학교 수업시간에서도 배우고 있다.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체험 하나하나가 쌓여 춤을 출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의 여정’을 삶에서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이나 또 무용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덕분에 영성이 깊어져 그것이 춤출 때 녹아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영성이 깊은 춤을 추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 교회의 예배당이 작고 회중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용수가 집중해서 추지 않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표7]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무용 테크닉 훈련	영성훈련
A교회	매주 화요일 7시. 간식과 교제를 한 후 현대무용 워업 및 레파토리 또는 작품 연습.	영성훈련에 있어 보충이 필요함. 기도회를 가짐 - 담당 부서의 목회자의 한 달에 두 번의 방문 및 담당 단장들의 인도.
B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무 연습은 각자 해 오고 예배 2시간 전에 동작을 맞춤. 워십댄스팀의 연습은 매주 월요일 1-3시의 한국무용 레슨 및 목요일 9시 30분-12시의 현대무용 레슨.	팀이 모여서 하는 훈련은 없음. 각자 교회의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
C교회	매주 토요일 5-11시까지 연습을 함. 공연이 많은 경우, 추가 연습이 있음. 연습 전, 나눔을 하고 훈련함.	주일 청년예배 1시간 전에 모여 신앙서적으로 큐티 및 교제를 함.
D교회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습은 없음.	교회 차원에서 춤에 대한 교육이 있음. 주일 설교 시 매주 담임 목회자가 춤에 대한 교육을 함. 예배학교의 커리큘럼에 춤에 대한 교육이 있고 필수 이수 과목임.
E교회	1인 팀으로 교회에서의 연습은 없음. 개인이 한국무용과 발레 레슨을 일주일에 한번씩 총 두 번 받고 있음. 대학원 수업에서도 배우고 있음. 피트니스클럽에서의 웨이트트레이닝.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 함. 그 과정이 쌓여 춤을 출 때도 자연스럽게 표현됨.

제 3절 회중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1) 회중의 구성 및 태도

(1) A 교회

A 교회의 무용단이 주로 공연하는 예배는 주일 저녁예배인데 이 때 참석하는 회중들의 연령층은 주로 장년들로 약 70% 정도 되며 나머지는 청년 대부분 성도들이다. 전통적인 교단의 교회이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이 있었다. 특히 연령층이 높은 장로들 중에 처음 무용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가 예술분야를 활용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무용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의 회중들은 거의 장년층이다. 청년부예배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워십댄스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저녁예배에는 장년 성도들이 주가 된다.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 하는 인원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아침부터 와서 섬기던 사람들은 오후쯤엔 집에 돌아가기도 해서 교회의 크기에 비해 많지는 않고 약 500-600명 정도 된다.

예배 중에 하는 찬무에 대해 회중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모든 회중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춤을 추는 자신이 가장 은혜를 받는다. 무용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충만한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무용수가 충만하지 않아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 때가 오는 것 같다. 또한 워십댄스팀이 3박 4일 동안 교회 내 다른 부서의 수련회에 동참하여 함께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어 감동스러웠다.

(3) C 교회

C 교회의 예배는 장년도 함께 드릴 수 있지만 청년부예배이기 때문에 청년의 비율이 약 80% 정도 된다. 찬양 중에 율동을 할 때 거의 모든 회중들이 다 따라 한다.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6, 70%는 따라 하는 편이다. 여성들 중에 여름철에 팔을 올리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는 피드백이 더러

있고 남성들 중에 너무 귀여운 동작들은 따라 하기 민망하다는 피드백이 있기는 했다. 또한 춤 동작들 중에 돈다거나 숙였다가 일어서거나 하는 자세를 회중석에서 따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피드백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피드백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에 맞춰 춤을 추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100의 기량을 보여야 회중석에서 50정도를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중석에서 돌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는 등의 동작들을 할 수 없기는 해도 어느 정도 자세는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D 교회

D 교회의 예배는 청년층이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장년층들도 1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청년 나이였다가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장년 부 중에는 현재 청년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있다. 자녀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모님 연령층의 성도들도 함께 춤추며 예배하고 있다.

회중들 대부분은 예배 중에 춤을 추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수의 성도들도 존재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찬양을 인도할 때 춤을 추도록 하는데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있는 성도들의 경우 ‘별로 지금 내가 추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앞에서 추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옆에 사람들과 손을 잡으라고 할 때 그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넘겨야 할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가는 편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다.

(5) E 교회

E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회중들은 약 50명 정도 된다. 그중에 4, 50대가 30%, 청년층이 40%, 30대가 20% 정도 되고 나머지가 60대 이상과 어린아이들이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창립 시절부터 예배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중에 찬양 시간에 춤을 추는 것을 의아해하고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몇몇 있었다. 그러나 춤을 추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처음 방문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무용수에게 가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교회의 찬양팀 리더는 본인이 찬양을 인도할 때 무용수의 춤을 보고 시너지를 일으켜 더 깊게 찬양을 리드할 수 있다고 회중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 만약에 찬양에 집중이 안 되시면 앞에서 춤을 추는 자매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표정만 봐도 더 예배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표8]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무용예배의 회중들의 연령분포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A교회	장년층 70%, 청년 대학부 30%.	무용을 처음 도입 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적으로 받아드림.
B교회	장년층 99%.	주일 저녁예배 찬무를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긍정적임. 워십댄스팀 사역에 은혜를 받아 매우 긍정적임.
C교회	청년층 80%, 장년층 20%.	대부분의 회중들이 따라함. 회중석에서 따라 하기 힘든 동작들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그러나 몸찬양팀에서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회중들이 50%라도 따라할 수 있음.
D교회	청년층 95%, 장년층 5%.	대부분의 회중들이 긍정적임. 부정적인 경우는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 탓. 춤을 추도록 이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수용하지 않음. 성도 개인이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E교회	청년층 40%, 30대 20%, 4-50대 30%, 어린이,60대 이상 10%.	교회 개척과 동시에 춤을 추며 예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드림. 새로 방문한 성도들 중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음.
------------	---	--

2)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의 참여 형태

(1) A 교회

A 교회의 예배무용은 장르별로 무용단이 나뉜다. 장년부에 현대무용단과 한국무용단이 있고 청년대학부에 힙합을 주로 하는 댄스 선교부가 있다. 따라서 각 무용단의 장르에 맞춰 하게 된다. 예배 중, 무용 공연이 있을 때는 설교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 위주의 예배를 올리게 되며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찬양대 및 무용단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설교는 약 10분 정도로 짧게 끝난다. 말씀이 예배 순서에 반드시 있기는 하지만 공연 전이든 후이든 짧은 시간으로 구성된다.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공연 후에 말씀으로 총 정리할 때도 있다.

춤을 좋아하지 않고 무용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는 성도들이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과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몸동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 같다. 이 교회의 예배무용은 회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공연을 통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림6 A 교회 찬양대와 연합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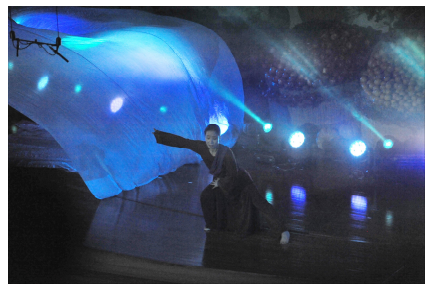


그림7 A 교회 현대무용단 공연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에서 찬양 인도는 목회자가 진행한다. 찬무팀에서 춤을 추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찬양 인도를 맡은 목회자가 리드한다. 인도자가 회중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적극적으로 찬양 하도록 인도한다. 아주 가끔 찬무팀에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오른손을 드세요.,” “박수를 치세요.” 라고 할 때도 있다.

찬무를 할 때 거의 발레나 현대무용의 동작을 사용하여 춤을 추고, 한국무용은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워십댄스팀 공연을 할 때 한국무용 작품을 많이 올리고 있다.

찬무와 함께 찬양을 할 시에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회중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난다. 같이 따라하는 회중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가 좀 더 참여적인 예배가 된다.



그림 8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그림 9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3) C 교회

C 교회에서 몸찬양팀은 멘트를 하면서 회중들을 이끌지 않고 춤만 추며 리드는 찬양 인도자가 한다. 그러나 반복을 해야 하는 동작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는 찬양 인도자에게 먼저 부탁을 해 놓는다. 찬양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고 몸찬양이 있는 곡은 3곡정도 된다. 나머지 몸찬양이 없을 때도 그대로 무대에 남아 예배를 드린다. 공연을 할 경우에는 보통 4분 정도 길이의 작품을 준비한다. 절기 예배의 경우에는 8분 정도의 길이를 준비한다. 대사가 없이 몸으로 표현하거나 연기 또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할 때도 있다.

몸찬양팀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모두를 하고 있다. 어떤 작품

을 올리느냐에 따라 장르를 선택하여 준비한다. 찬양 중에 몸찬양은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쉽도록 어떤 포인트 부분에서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한다. 전체적으로 따라 하기 쉬운 율동의 틀에서 포인트만 삽입하여 한다.

예배 중에 몸찬양이 있을 때 회중들의 참여율을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을 경우, 몸찬양을 바로 하지 않고 몇 주에 걸쳐 그 곡이 회중들에게 익숙하게 한 후에 춤을 춘다.



그림 10 C 교회 작품 공연



그림 11 C 교회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4) D 교회

D 교회에서 주로 하는 장르는 EDM(Electronic Dance Music)이다. 느린, 목상을 할 수 있는 찬양도 하지만 이에 맞춰 춤을 추지는 않는다. 처음 찬양을 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는 익숙한 찬양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동작들도 박수를 치게 하거나 합성을 지르게 해서 간단한 몸짓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 뛰게 하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동작들을 삽입해서 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동작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서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회중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하면 춤을 추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적이지 못했던 회중들까지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도 함께 춤을 추도록 이끌게 되는 것 같아 손을 잡게 하는 행동을 거의 매주 진행한다. 춤을 춘다는 것이 어떤 예배뿐 아니라 모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느낀다. 이스라엘 전통 관습

에서도 원무를 추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 같고,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림 12 D 교회 주일 예배의 찬양 시간

(5) E 교회

E 교회의 경우 즉흥으로 무용수 혼자 춤을 추는데 회중들을 이끌지는 않는다. 찬양시간에 회중을 이끄는 것은 찬양팀 리더이다.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평소에 연습해서 익혀둔 테크닉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쌓인 테크닉이 찬양 중에 감동을 받아 곡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대략 5-6곡 되는 찬양 콘티는 미리 받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 미리 목상을 해둔다. 또한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내야만 주일 찬양시간에 춤출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생활과 예배를 분리시키면 춤출 수 없다.

무용의 장르의 큰 틀은 즉흥무용이다. 그러나 무용수가 힙합, 현대무용, 한국무용, 및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즉흥을 할 때 곡에 따라 그에 맞는 장르를 순간적으로 선택하여 춤을 춘다. 미리 콘티를 받아 생각해 찬양을 목상할 때, 대략의 구성은 생각해 두지만 주일 찬양 시간에 받은 감동대로 춤을 춘다.

현재 예배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회중들에게 함께 춤을 추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회중들도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편이며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자고 할 경우에만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러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일어서 자유롭게 몸짓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무용수는 종종 본인이 회중들에게 춤을 추라고 권면하면서 이끌고 싶어 하지만 공간의 협소함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



그림 13 E 교회 주일 예배 찬양시간



그림 14 E 교회 주일 예배 찬양시간

[표9]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들의 참여 형태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회중들의 참여 형태
A교회	무용공연이 있을 경우, 설교시간을 10분 정도로 줄임. 현대무용단, 한국무용단, 청년부의 댄스 선교부(힙합위주)가 개별로 존재하여 그 특성에 맞는 무용을 함.	공연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함. 그러나 공연을 통해 말씀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낌.
B교회	찬양인도자가 대부분을 인도. 찬무팀은 종종 인도함. 찬무 시, 발레, 현대무용을 주로 함. 워십댄스팀 공연 때 한국무용을 하기도 함.	찬양인도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을 하도록 함.
C교회	찬양인도자가 대부분을 인도.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몸찬양팀에서 사전에 찬양인도자에게 전달. 몸찬양 시 대부분 회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율동으로 하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적인 요소를 포인트 부분에만 삽입. 공연 작품을 준비할 때는 곡에 따라 맞는 장르를 선택하여 준비함. 공연 작품을 올릴 때는 4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길이로 함.	몸찬양이 있을 경우 회중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아짐. 처음 부르는 곡의 경우, 몇 주간 익숙해지게 한 후 몸찬양을 하게함.
D교회	대부분 EDM 음악의 장르의 찬양에 맞춰 춤을 춤. 느린 찬양 곡에는 춤을 추지 않음. 익숙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단계별로 동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임팩트 있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 함.	인도자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게 하는 순서를 반드시 삽입. 이를 통해 더 참여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음.

E교회	찬양 콘티를 미리 받아 오랜 묵상을 한 후에 즉흥으로 춤을 춤. 힙합,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를 모두 활용함. 평소의 테크닉 훈련이 중요하여 연습을 하는 편임. 찬양인도자에 의해 찬양시간이 진행됨.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림. 몇몇의 해외 생활을 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찬양을 함. 무용수가 회중들도 함께 춤추게 하고 싶으나 공간적 제약이 있음.
-----	---	---

제 4절 예배무용의 특성

1) 예배무용팀의 특징

각 교회 예배무용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팀원들의 존속 기간을 알아보았으며 각 팀의 리더가 생각하는 장점을 비롯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 교회

A 교회의 현대무용단 단원들은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는 편이다. 비전공자들의 경우에 중간에 나가서 다른 단원들로 교체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5년 이상 된 사람들이다. 비전공자들이 나간 경우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과 연습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간 경우가 많다. 또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와 상관없이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 현대무용단의 특징은 무용단의 대표리더가 무용계 현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 온 프로라는 점에서 안무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표리더의 교수법 및 훈련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른 교회의 예배무용팀과 차별화 된 점이다. 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현대무용단에 대한 후원이 좋다는 점 또한 차이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서 자주 공연을 올리다 보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회중들의 보는 눈도 높아졌다.

(2) B 교회

B 교회의 팀원들은 거의 4, 50대 주부들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 6명의 워십댄스팀원들은 거의 10년이 될 정도로 오래 있었다.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철야예배 찬양팀의 찬무팀 역시 모두 5년 이상 섬긴 사람들이다.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오래 섬기는 경향이 있다.

이 교회의 리더가 생각하는 팀의 장점은 꾸준하다는 것이다. 신비한 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범하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몇 개의 공연 위주의 멋진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배의 찬양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작품을 많이 갖고 있다. 회중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그런 작품의 수가 많다는 건 춤추며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3) C 교회

C 교회의 팀원들은 24살부터 33살까지 모두 8명이다. 몸찬양팀에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지만 처음 들어오기까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보통 1년에 2, 3명 지원을 하고 정단원이 되는 사람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워십댄스를 접해본 사람들이 많다.

C 교회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여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다른 교회의 예배무용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교회처럼 정기적으로 공연을 준비해서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4) D 교회

D 교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회중들이기 때문에 회중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온다. 한, 두 달 정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명을

받아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따라서 양육 위주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존 전통 예배 형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대부분 남아 있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실행하며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원한 기쁨 때문에 예배 중에 춤추며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 혼, 육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육적이거나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 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필수라고 생각한다.

(5) E 교회

E 교회는 1인 무용 팀이다. 교회 개척 초기에 몇 명의 팀원들이 있기는 했으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라 미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 교회 자체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의 경우 전공을 한 무용수는 아니지만 몇 년간 훈련을 받은 무용수가 찬양 중에 전곡에 맞춰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즉흥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체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예배무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춤을 출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예배무용을 할 때, 성경의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춤을 춰야 한다. 무대와 회중석의 거리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차별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표10] 팀 리더가 보는 예배무용팀의 특징

A교회	무용계 현업에서 오래 종사한 대표리더가 안무 및 훈련을 지도한다는 점이 차별 점이자 장점임.
B교회	회중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편안한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임.

C교회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고 있음. 많은 연습량이 차별 점임.
D교회	기존 한국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춤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임.
E교회	무용을 훈련받은 무용수가 찬양 전곡에 맞춰 즉흥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임. 회중석과 가까운 거리의 무대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더 욱 집중 할 수밖에 없음.

2) 예배무용의 특성

먼저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배무용이 팀원들 및 예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예배무용의 활용 전후를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회 리더들이 예배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희망사항도 기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다섯 교회를 방문하여 느낀 전체적인 장점에 대해 기록하였다.

(1) A 교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다른 방식의 예배 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터치가 놀랍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공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무용단에서 비전공자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더 신기한 것 같다고 느낀다. 한 비전공자인 단원은 회사 일을 하면서 무용단에 나오는데 내적 갈등이 심했었다. 현대무용단이기 때문에 전공자 위주로 팀이 운영이 된다. 많은 연습량을 비롯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주역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하는데 이 단원이 선정됐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용 없이 설교자의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함께하면 예배가

더 아름다워짐을 느낀다. 회중들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용을 보든 말씀을 듣기 전에 무용을 보든 받아드리는 감동이 다른 것 같다. 무용이 말씀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교회에서 예배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용단 안에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훈련이 잘되어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함께 말씀, 기도 및 영성훈련을 인도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현 무용단이 교회의 한 부서 안에 속해 있다 보니 이들 만을 위한 특화된 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영성 깊은 작품을 위해서라도 무용단만을 위한 담당 사역자가 함께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예배무용팀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중 하나이며 담임 목회자가 문화 예술 방면에 열려있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연작품을 올릴 경우 대형교회라는 점이 더욱 도움이 된다. 무대의 사이즈도 그렇고 작품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의 지원도 그렇다. 그런데 단순히 크고 재정이 좋은 교회여서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철학도 무용을 통한 선교와 예배에 적극적이니 더욱 예배무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교회의 무용 연습실의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보통 거울이 달려있는 가족 예배실이나 유아부 실에서 연습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한국무용단, 현대무용단 및 청년대학부의 댄스 연습실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공간의 사이즈도 웬만한 대학교 무용연습실 만한 크기였다. 또한 한국무용의 연습을 위한 북도 십여 개 구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습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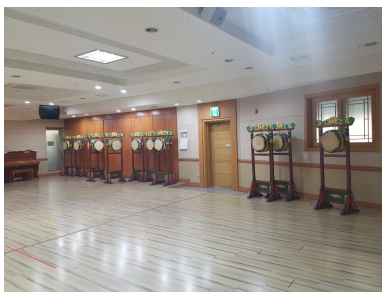


그림 15 A 교회 무용연습실



그림 16 A 교회 무용연습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이 교회의 한 절기예배의 공연에서 한국무용단의 공연은 비전공자로 구성되어있어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무용 의상과 소품 등에서 교회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날 현대무용단의 공연은 C.C.M. 찬양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그에 맞는 안무를 구성하여 독무로 진행되었다. ‘바닷길’이라는 찬양의 의미 전달을 위해 바다를 표현하는 하늘색 천을 단원들이 들고 파도를 상징하는 모습 등 예술적인 연출을 하였다. 이렇게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회중들에게 예배무용을 하나의 공연예술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 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됨을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B 교회

B 교회의 예배무용팀원들이 오래 섬기는 이유는 한번 예배무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조명을 받으며 춤추며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다가 일주일 후에 또 예배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내면 상관없지만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안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예배에서 오는 감동과 충만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찬양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용을 하면 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크며 힘든 만큼 은혜도 크고 귀한 것 같다고 느낀다.

이 교회에 여러 찬양팀이 있지만 찬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찬무팀이 없을 경우 예배의 생동감이 많이 부족하다. 찬무팀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팀이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B 교회에서 예배무용이 보다 더 활용이 되려면 교회 차원에서 찬무팀과 워십댄스팀을 엄연히 독립된 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현재는 예배기획국 안에 소속되어있는데 독립된 하나의 팀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의 주요행사나 절기 예배에 이 팀이 전담으로 섬겼었는데,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서 외부 인사들 즉 연예인 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욕심

을 가지고 사역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팀으로 바라보고 교회 내 중요 예배의 자리에 과거처럼 교회 내의 찬무팀과 워십댄스팀을 초청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교회 내 예배에서 점점 예배무용이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주일 저녁예배에 방문하여 이 교회 워십댄스팀장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교회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며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따르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중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찬양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일어서서 율동을 하며 찬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였다. 이 교회의 율동은 비교적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율동을 많이 따라하며 찬양하였다. 또한 회중석에서 중앙 원편에서 보이도록 무대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도 찬무팀의 율동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며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단지 찬무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또한 찬양 중에 어떤 한 남성 성도가 예배당 앞에서 감동을 받은 느낌대로 자유롭게 춤을 추었는데 이를 저지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다. 보통의 대형교회의 전통 예배에서는 이런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본래 가지고 있던 형식과 틀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받아들이고 권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런 열린 자세가 이 교회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C 교회

교회의 여러 셀 모임 등의 소모임을 통해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몸찬양팀 안에서 나눔을 같이 하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동역하며 간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으로 본다.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한 춤을 추기 위해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거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하는 내용을 무용수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 전하기는 어렵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

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믿는다.

몸찬양이 있을 때의 예배가 훨씬 생동감이 넘친다. 회중들의 움직임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 춤이 없을 때는 고요하고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몸찬양이 있을 때 더 주체적으로 예배에 뛰어들어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릴 때 셀끼리 모여서 앉는 편이다. 이때 셀리더가 춤을 적극적으로 하면 셀 팀원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교회의 몸찬양팀 리더는 예배에서 보다 무용이 활용되려면 목사님의 말씀과 연계를 하여 설교 전이든 후에 관련된 작품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 또 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처럼 공연 작품을 보고도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자주 못 하더라도 분기마다라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일을 통해 좀 더 시각화 하여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종종 성가대와 연합하여 하나의 찬양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본 연구자가 방문했었을 때 4명의 몸찬양팀이 춤을 추었는데 모두에게서 기쁨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무대에 성가대원들도 함께 서서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다. 율동이 없는 찬양을 할 때도 몸찬양팀원들은 하나님께 몰입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함께 무대에 서있는 성가대원들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였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몸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무용수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었고, 이런 점들이 이 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4) D 교회

이 교회에는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전담하고 춤도 함께 추고 있는 예배 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배 팀의 경우 외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팀원 들 중 4명은 간사로 임명하고 월급을 지불한다. 다른

팀원들은 자원 봉사로 시간을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예배가 영적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춤추며 흥분했었는데 사람들은 기쁘면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된다. 월드컵 경기가 우리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춤을 출 때 영적인 예배가 더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D 교회에서는 주로 EDM 음악에 맞춰 회중들과 춤추며 예배하고 있다. 이 장르로 찬양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중들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배팀 리더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벤틀 교회(Bethel Church)처럼 무대 한쪽에 무용수를 두고 느린 찬양에도 춤을 추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해서 춤을 추는 무용수를 보는 것이 다른 회중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별도의 무용팀이 없고 거의 모든 회중이 춤을 추며 예배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회중들과 예배 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봉사자 스탭들이 밝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모두 청년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본 연구자가 방문하기 전에 가졌었던 편견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청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고 또 춤추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사뭇 정신없고 정돈되어있지 않은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는 교회였다. 찬양 시간에 어둡게 하고 무대 쪽만 불을 밝혀 사람의 식별이 어렵고 춤추며 찬양하는 탓에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으니 봉사자가 직접 와서 자리를 이리저리 모색해주고 또 새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응대해주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요즘 볼 수 없는 청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들의 이런 밝은 모습과 태도는 1시간 30분 동안 찬양을 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회 밖 일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어

도 기분이 상승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에 맞춰 1시간 30분 동안 춤추며 예배한다면 힘들었던 일상을 하나님께 쏟아 낼 수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배 후 D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잠시 가졌는데 예배를 3시간 이상 드리는 이유가 세상에서 영화를 볼 때도 2시간은 있는데 오늘날의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에 짧게 예배를 드리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춤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5) E 교회

E 교회의 무용수는 찬양 중에 춤을 추면 예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 있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 회중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영감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는 회중들이 있기도 하다.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는 것처럼 확장된 몸짓인 춤으로 표현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교회의 무용수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풀리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중들도 함께 춤추며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방문해서 놀라웠던 것은 다섯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개척교회였음에도 찬양팀의 실력이 프로들과 같았다. 후에 알아보니 모두 실용음악 전공한 사람들로 기독교 음악에 비전이 있어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다고 하였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무대와 회중석과의 거리가 매우 좁았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내내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혀놔 왔다 갔다 하며 산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오직 춤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께만 집중

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 모습 자체가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 같았다. 또한 즉흥무용으로 춤을 추었는데 곡에 따라 힙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동작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순발력 있게 변경해 가며 춤사위를 이어갔다. 즉흥무용이라 다소 난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찬양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이 교회 회중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찬양 드리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탓인지 무용수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예배드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공연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무용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훈련을 통해 비교적 테크닉을 갖추어 즉흥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동을 표현력 있게 집중하며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표11] 각 교회 예배무용의 장점 및 영향

	예배무용팀 리더의 관점		연구자의 관점
	무용 단원	예배	
A교회	무용단원들은 대체로 오래 활동 하는 편임. 팀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출산과 육아의 이유가 큼.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됨.	설교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함께 한 경우, 예배가 더 아름다워짐. 무용과 설교가 함께 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 함.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큰 공연이 가능함. 담임 목회자 및 교회의 지원으로 비교적 타 교회 대비 갖춰진 연습실 등의 환경이 있음.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해 회중들에게 예배무용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함.
B교회	무용단원들 모두 5년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였음. 한번 예배무용을 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음. 무용을 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힘든 만큼	찬무팀이 없는 찬양팀의 예배의 경우, 예배의 생동감이 떨어짐. 기도하고 준비한 찬무팀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침.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대형교회이지만 찬양 시간에는 자유로운 모습임. 찬무팀 뿐 아니라 성가대원 등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한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에 적극적

	은혜가 큼.		인 모습임.
C교회	팀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탈퇴하지 않는 편임. 그러나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팀원끼리 서로 신앙의 동역자라는 느낌을 주어 도움을 줌.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기 때문에 영적 성숙에 많은 도움을 줌.	몸찬양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에 생동감이 넘침. 몸찬양이 없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음.	몸찬양팀원들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느껴짐. 무대에 함께 서서 찬양 드리는 성가대원들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었음.
D교회	대부분의 회중들은 교회 개척 이후 계속 남아있음. 영적으로 놀려 있던 회중들이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 치유를 받음.	2002년 월드컵 때 기쁨 감정을 춤추며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 구원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예배로 나아 갈 수 있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청년들이 밝아 보였음. 이는 춤추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1시간 30분의 찬양시간과 3시간 넘는 예배시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E교회	초창기에 팀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다시 돌아감. 춤을 출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데 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을 줌. 회중들이 함께 하지 않아도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추는 무용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음.	무용 전공자의 무용수는 아니었으나 비교적 테크닉을 갖춘 실력으로 즉흥무용을 구사해 자연스러워 보임. 좁고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코람데오(Coram Deo)’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을 줌.

제 5장 결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예배무용은 주로 찬양시간의 율동 및 특별순서로서의 공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예배 안에서 무용의 활용은 미미한 상태이기는 하나 교단별로 예배 형식에 맞게 예배무용을 도입하여 조금씩 그 형태가 다양성을 띄고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주일 본 예배에서 예배무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주일예배, 금요철야예배 및 청년예배 등에서 율동팀의 단순한 동작으로 구성된 움직임이나 제스처를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공연 형태로서의 무용을 비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서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비교적 교단의 규제가 약한 독립교단 및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의 교회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무용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곳에서는 회중들이 자유롭게 찬양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예배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특징적인 예배무용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다섯 교회들에 대해 고찰 하였다. 다섯 교회들의 예배무용에 대한 유형 및 운영현황, 회중과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해 각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 리더와의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섯 교회는 예배무용을 5년 이상 도입해 온 곳으로 선정하였는데 다섯 교회에 있어 예배무용 형태, 운영현황, 특성 및 회중의 수용 태도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표12]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예배 무용 형태	운영현황			회중의 수용 태도	특성
		예배무용 적용시기	훈련 방법	재정 지원		
A	공연	주일 저녁예	주1회의 무	정기적 지	적극적으로	무용전문가

교 회	형태.	배. 주요 절기에 배 및 특별 순서.	용훈련. 월 2회의 목회 자의 예배 인도.	원 없음. 필요시 예 산을 청구.	수용하는 모 습. 말씀을 더 잘 이해 하게 됨.	인 대표리더 및 무용전공 자 단위. 교 회의 지원이 좋음.
B 교 회	찬양 시 율동 및 작품공연.	매 주일 저 녁예배 및 금요철야예 배. 교회 내외 사역에 초청 받아 작품 공연.	주 2회의 무용레슨 및 매 주일 의 연습. 개인의 영 성훈련.	1년 예산을 책정 받아 매월 수령.	당연하게 받 아들이며 율 동에 참여적 임.	따라하기 쉬 운 작품들이 많음.
C 교 회	찬양 시 율동 및 작품 공연.	격주로 청년 예배 찬양시 간. 청장년 절기 예배 및 특 별순서로 작 품 공연.	주 1회 약 5시간의 무 용훈련. 매 주일 1 시간씩 모 여서 큐티.	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 가시키고 있음.	대부분 율동 에 참여적 임.	다양한 무용 장르 가능.
D 교 회	회중들의 자유로운 춤.	매 주일 예 배에 1시간 30분의 찬 양시간에 회 중들의 자유 로운 춤.	교회 차원 에서의 춤 에 대한 교 육. 설교 시 춤 의 중요성 에 대한 언 급.	무용팀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 은 없음.	긍정적이며 참여적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	깊은 영적 예배가 가 능. 1시간 30분 의 긴 찬양 시간의 춤.
E 교 회	찬양 중 무용수의 즉흥무용	매 주일 예 배 40분의 찬양시간에 무용수의 즉 흥무용.	단독 무용 수로 개별 무용레슨. 평소 삶에 서의 영성 훈련.	별도의 지 원은 없음. 필요시 청 구.	당연하게 받 아들임. 무용 수의 춤을 통해 하나님 을 더 느끼 게 됨.	열악한 환경 에서 하나님 만을 집중하 는 무용수.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배무용은 공연형태와 사전에 구성된 율동을 회중

과 함께하는 형태, 회중들에 의해 자유롭게 즉흥으로 추는 춤 및 무용수의 즉흥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배무용을 적용하는 시기는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 철야예배 등 본 예배시간 외에 편성하고 있다. 그 외의 교회에서는 주일 본 예배에서 무용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훈련 방법에 있어 무용팀이 있는 경우, 무용훈련은 주 1회 이상 단체로 연습 하고 있으며 영성훈련 또한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었다. 재정 지원을 여유롭게 받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체로 필요시마다 청구하여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 자각으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곳도 있었다. 예배무용에 대한 회중의 수용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예배 안에서 무용의 활용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각 교회 예배무용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도 있고, 회중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하고 있는 곳,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팀, 긴 찬양시간에서의 춤을 추는 곳 및 열악한 환경에서 춤을 추는 등의 특성을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예배의 본질 및 의미에 부합하는 무용을 도입함으로써 예배 안에서의 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교회에서 무용을 특별 행사용으로 예배와 상관없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및 설교의 조력자와 같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 주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예배무용을 다양하게 교회의 형식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방향성 또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시각적인 예술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설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적절한 무용의 유형과 형식을 통해서도 이를 시각화하여 회중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찬양 또한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교회에서의 예배무용의 수용은 대개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무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인지하고 회중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예배무용을 수용한다면 예배의 다양성과 깊이는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다섯 교회에서 예배무용을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예배무용 유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여기서 연구된 다섯 교회의 특징적인 예배무용의 유형 외에도 각 교회의 성격과 환경에 적합한 예배무용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다섯 교회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무용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배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 교회 안에서 예배무용이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강준민. (200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서울: 두란노.
- 김소영. (1974).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화숙, 한혜리. (1999). 『교양수업을 위한 무용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닥 아담스, 다이안아파스틀로스-카파도나. (2000). 『종교와 무용』. (김명숙, 역). 서울: 당그래.
-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 로버트 랭. (1996). 『서양문화사 II』. (이희재, 역). 서울: 사군자.
- 매들린 베리. (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 박경숙. (2013). 『재미있는 서양무용사』. 충남: 공주대학교 출판부.
- 박연훈. (1995). 『지금도 다윗처럼 춤 출 수 있다』. 서울: 프레이즈.
- _____. (2002). 『몸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 안은경. (201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무용』. 서울: 일오삼출판사.
-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 이기문. (1989). 『구약 원어해설사전』. 서울: 성서교육개발원.
- 이덕주. (1993).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의 역사, 1921 ~ 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이영호. (1980). 『교회계절학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 정의숙, 반주은. (2000). 『현대무용 인물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 정장복. (2005).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타라 길야드. (2012). 『예언적 춤』 . (천슬기, 역). 서울: 유다의 사자.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 서울: 요단출판사.
 황성철. (1998). 『예배학』 .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Bensely, Marie. (2002). 『매체를 활용한 크리스천 댄스』 . (박영애, 역). 서울: 프레이즈
 Dannis, John Randall. (2006). 『샤카, 살아있는 예배』 . (송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토기장이.
 Novack, Cynthia J. (2000). 『즉흥무용의 이해: 접촉에 의한 즉흥행위와 미국 문화』 . (서진은, 역). 서울: 금광미디어.
 Segler, Franklin M. (1994). 『예배학 원론』 . 서울: 요단출판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Alvin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2016). “성서에 나타난 원형적인 무용 텍스트와 컨텍스트 연구 - 에포트 이론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영애. (2006).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지』 . 제11권. p16.
 송유순. (1991). “기독교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정섭. (1996). “예배의 본질과 한국 교회 예배 개혁의 방향”. 합동신학교 목회학과 졸업논문.
 안영희. (2003). “한국 농민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초룡. (2002). “한국 기독교 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완. (2017).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 (2015).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권 2호. p100-1
- 한은희. (2011).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예원. (2014). “공연작품 비교 분석을 통한 기독교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광규. (2013).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실. (2010). “종교성이 내재된 무용작품에 의한 기독교무용발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 인터넷 사이트

송영목. (2013). 신약성경의 예배에서 배우기. 코람테오닷컴.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3) 해외 문헌

Backman, E. Louis. (1952). 『Religious Dances in the Chrisitan Church and in Popular Medicin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Bumke, Joachim. (2000). 『Courtly Culture. Woodstock』. (NY: The

- Overlook Press).
- Deitering, Carolyn. (1984). 『The Liturgy as Dance』 . New York: Crossroad.
- Holiday, L. William. (1974).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Hutchinson, A. (1978). 『Doris Humphrey: The Collected Works Vol. 1. Dance Notation』 . New York: Bureau Press. p67.
- Laskow, Sarah. (2017). The New Year's Feast That Transformed Fools Into Popes and Kings. Atlas Obscura.
- Taylor, Margaret Fisk. (1967). 『A Time to Dance』 .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 Youngerman, S. (1978). "The Shakers Based in Analysis". 『CORD』 . (Annual IX). p94.

HANSUNG
UNIVERSITY

【부 록】

부록 1. 심층면접 질문

운영 현황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과 의 관계 및 상호 작용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무용의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접 내용

A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하면서부터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멋있는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한 심령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싶다”라는 기도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막 열심히 추면서 하게 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혼을 치유하는 춤추는 사역자가 되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현대무용 공연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무용에 대한 비전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무용을 전공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더 받으신 거예요?(질문)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현대무용을 전공한 것은 예고 진학하면서 하게 됐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재수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에 비전을 두고 무용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선교가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가지고 춤을 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재수 때 했어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무용단이 생기게 된 건 저희 교회 내에 현대무용 전공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대표리더님을 모셔 와서 생기게 된 거죠. 2008년도 만들어졌어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대표리더님께서 지금 현대무용단 이전에 일반 무용단을 이끌었는데, 거긴 저희 교회 교인들로만 이뤄진 단체가 아니라 컨템포러리 무용단 선생님들이 대표리더님께서 권면하시고 하셔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믿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처음 저희 교회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무용뿐 만 아니라 예술분야에 굉장히 열려있고,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 곳이에요. 절기뿐만 아니라 특별한 집회나 무용이 필요한 예배에 자주 서는 편이에요. 보통 절기 때는 다 서고, 교회 창립주일 기념 예배, 또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기존 예배 대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같이 주제에 맞춰서 찬양을 하시고, 교회학교 친구들이 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현대무용단이 또 한 파트를 담당해서 춤을 추고 한국무용단들이 춤을 추기도 해서 하나의 뮤지컬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 찬양 때는 비정기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선교의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하고 저희 현대무용단 같은 경우는 레파토리가 오래되다 보니 많은데 그중에서 연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주제를 주시면 준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 정기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고요. 근데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 바로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니고, 간식을 먹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현대무용 워업을 한 이후에 레파토리를 가지고 훈련을 할 때도 있고 새로운 작품을 나가야 할 때는 대표리더께서 안무를 하시고요.

교회의 무용 교육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예요. 발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성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무용단이 음영위원회라는 기관 안에 속해있어요. 음영위원회에 합창단, 중창단 등 예술적 인부서를 총괄해서 만든 기관이 음영위원회예요. 음영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부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많게는 월 2회 오셔서 기도회를 열어 주시고 그러는데 영성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이 단장이라 부단장으로 세워지셔서 무용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상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비용들을 자원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획에 센스 있으신 분들이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단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주로 기도회를 인도해주시죠.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재정적 지원은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정기적인 후원은 없고 무용단의 특성상 다들 자원해서 섬기는 단원들이라 정기적인 후원은 없고요. 단원들도 무보수로 섬기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라든지 특별 순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죠.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녁예배 같은 경우의 장년층이 주를 이루는데 청년 대학부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비율로 말씀하면 장년층이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들 하시죠.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예전 한 10년 전에 보수적인 장로님들께서 현대무용에 대한 부정적인 왜냐면 의상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엔 드러나는 의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격한 동작이나 의상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음악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세계 들릴 수 있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것이 담임목사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대표리더님께서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다니신 건 아니고요. 신촌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언니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대표리더님 눈이 아프셨는데 담임목사님께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게 처음 인연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과거 이끄셨던 일반무용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올리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퍼스타를 이화여대에서 공연할 때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너무 좋게 있으셔서 무용공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려진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였던거죠. 교회마다 무용의 쓰임을 받고 싶고, 진짜 이 무용이야말로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와 감동이 큰데 목사님들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들이 많고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조차도 무용을 거룩한 강대상에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만큼은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술적인 그런 선교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보수적인 장로님들도 자연스럽게 무용에 대해서 열리게 된 것 같아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좋아하지 않고 무용에 대한 문외한인 회중들의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무용에 대해 정말 몰랐었는데 현대무용단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그런 말들을 하세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또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몸동작을 통해서 말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피드백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 위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요.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로. 이럴 때는 말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10분 정도로 짧게. 처음 말씀으로 여시고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총정리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꼭 있죠.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 한국 무용단도 있어요. 젊은 층은 댄스선교부가 있는데 그건 대학부에 있어요. 그 친구들은 힙합 위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들을 섞어서 하죠. 그래서 교회에 크게는 현대무용단, 한국무용단, 대학부에 댄스 선교단이 있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무용단의 팀원들은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걸러졌어요. 한번 왔다가 나가고 다른 분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5년 이상 있어요. 비전공자들이 나가게 된 경우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가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보통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랑 연습시간하고 안 맞아서 나가게 되는 경우 있죠. 또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니 잠깐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 인 것 같아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다른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몸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터치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하다고 느껴요. 한 단원을 예를 들면 4년 전에 들어온 비전공자였는데, 그 단원은 비서로 일을 해요. 그래서 무용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몸치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내적인 갈등도 심했던 거예요. 현대무용단이기 때문에 전공자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해 배워 본적도 없는 이 친구가 막연히 춤에 대한 사

모함 때문에 들어왔는데 훈련도 어렵고 특별 순서로 서게 되면 거의 매일 연습을 하고 대부분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연습을 하게 되고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랬어요. 현대무용단은 좀 워십댄스 팀과 다른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이겨내고 이겨내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거든요. 비전공자들 중에서도 춤을 곧잘 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을 쫓을 때 따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비전공자들 중에서도 못했는데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실력도 늘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특순 공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참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리더라 주역으로 많이 취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로 직분을 담당하면서 단원들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단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절기 행사뿐 아니라 특별 집회 때도 무용단이 쓰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9월 특별 새벽집회가 있는데 주일이 켜 있어서 9월 2일 저녁예배 때 특별 순서를 하게 됐는데, 공연 한주 앞두고 팔복을 주제로 하게 됐는데, 8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비서를 하는 친구가 처음 순서인 ‘심령이 가난한자’로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았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훈련받은 저런 친구를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무용이 없을 때 설교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예배 때 쓰임을 받으면서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용을 보던 무용을 보고 말씀을 듣던 말씀을 받아드리는 감동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무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단원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의 대표리더분이 현업에서도 유명하신 안무가이시거든요. 대표리더님께서 안무도 그렇고 가르치는 훈련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 지원해주시고 현대무용단을 든든하게 후원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른 교회랑은 차이가 나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회중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요. 그런데 회중들이 많이 봐서 눈이 높아지셨어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대무용 전공자잖아요. 세상에서 일반 컨템포러리 무용을 보면 소품들도 그렇고 많이들 협업들도 하시잖아요. 예배무용이라고 하면 보기에든 거룩해야하고 잔잔해야하고 하는 틀을 우리 현대무용단이 많이 깼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적인 걸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춤 못지않게 멋있는 테크닉으로 작품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용 구성 중에 짜여진 안무도 있고 8카운트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동작들을 즉흥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즉흥무용은 예배 중에 드러졌을 때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 안에 영성훈련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훈련된 사역자가 같이 (말씀, 기도, 영성)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특성상 부서도 많고 그래서.. 현대무용단을 위한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여기 오시는 단장이나 부단장님들께서는 잘 훈련이 된 분들이 세워지시지만 그래도 바램인거죠.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반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량과 영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무용단이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영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무용을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B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09년부터 쪽 워십댄스를 했어요. 중간에 한 1년 쉬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게 저랑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안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신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금요철야 찬양 팀밖에 없었는데 의상들도 회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준비하시기도 하고 찬무도 신나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팀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워십댄스팀 7명.

주일저녁예배 찬무팀 2명.

금요철야예배 찬무팀 5명.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전도사님이 이애라 찬양율동 신학원에서 배우셔서 집사님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본인이 안무가 되시고. 발 까딱까딱 하는 동

작들 가르치면서 했다고 했데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난게 아니고 예배까지 뚫고 들어가서 하게된 거죠. 사역자가 하니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금요철야예배 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됐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애기 낳고 자모실 3층에서 내려다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하는데 우아하고 멋지고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 저녁 예배 때는 20-25분 찬양시간에 찬무가 꼭 있어요. 찬양을 전부 찬무와 같이 할 때도 있고 앞뒤 찬양 곡 빼고 할 때도 나머지 찬양에는 다 찬무를 해요.

금요 철야 때도 다른 팀에서 매주 찬양하고요. 절기 행사 때는 그루터기 워십댄스 팀에서 하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내 사역 팀에서 불러서 많이 하죠. 전도단, 장년국, 외국인 선교국 등에서 저희를 콜링하면 사역을 하죠. 저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나라도 다양하게 많아요. 해마다 사역하고 있어요. 3040 다음세대 팀, 외국인 선교 팀, 실버대학에는 저희 팀이 메인이에요. 청지기 훈련학교라고 있는데 1년에 1, 2번 거기서도 저희가 메인으로 해요. 3박 4일 동안 가서 춤을 춰요. 거기서 은혜 엄청 받았다고들 하죠. 올해 그루터기 팀에서 사역한 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0개의 사역을 했어요. 다같이 그냥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춤을 추죠.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도 새 가족 초청 잔치에 초청받아서 3-40분정도를 6-7개 곡정도 하기도 했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도 한 번하고 했죠. 거기에서 결신자들이 엄청 나왔죠. 외부 사역도 들어오면 계속 하려고해요. 미자립 교회에도 가서 하려고 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워십댄스팀은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요. 월요일은 1-3시, 목요일 9시 반-12시에 해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목요일에는 (현대무용)배우고 있고 한국무용은 월요일에 배우고 있어요.

주일 찬무팀은 주일 오후 4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6시에 올라가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후렴을 갑자기 더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거는 다 맞추죠. 일단 리허설을 하고 가죠. 찬양 콘티는 보통 1주일 전에 주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콘티를 보고 각자 연습해오고 주일엔 맞추는 거죠. 가사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올려져있는 동영상 보고 연습해 오는 거죠. 신앙적인 훈련은 3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제목 나누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월, 목 모이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전도단에 소속되어있고 수요일은 수요일예배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나오니까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제대로 앞에서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가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일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담력이라는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회중들 앞에서 그들을 보면 두렵고 그렇게 되죠. 내가 딱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도 다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예산에서 강사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식사 등은 우리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의상도 20년 해서 의상이 누적돼있어요. 새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비량으로 하죠. 교회 예산이 점점 줄어요. 점점 애들한테로, 교육국으로 가요. 장년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근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액수를 지정금액을 받고 그 안에서 한달 한달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죠.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장년층이 많죠. 청년부는 따로 워십댄스 팀이 있어요. 코람데오 팀이라고 있는데 아주 끝내주죠. 거기다 매주 청년 예배 때 하죠. 뛰는 것도 쾅거루 같이 뛰고 그래요.

주일 저녁예배는 거의 성도들이 500명 이상정도 오죠. 재적인원은 10만 명이라고 하고 실제 출석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녁예배는 차량운행도 안하고 그래서.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들 해 주시고 또 3박 4일 가서 했을 때는 너무들 좋게 말씀해주셔서 지금도 목이 메일려고 하네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서는 것은 다들 그냥 당연하게 의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사역이니까요. 반응이 좋다고 봐요. 은혜가 느껴져요. 또 내가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좋죠. 어떨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 예배 때는 목사님이 찬무 팀이 나가면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해요. 다른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나라고 해요. 같이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죠. 더 참여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죠.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인도는 목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찬무팀은 춤만 추고요. 저희는 편하죠. 근데 또 찬양에 따라서는 편 마이크 끼고 동작들을 이끌 때도 있었죠. “오른 손을 드세요.”, “박수 치세요.” 이정도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무 때 스타일은 발레, 현대 이런 걸 위주로 하죠. 한국무용 스타일은 근데 거의 없죠. 근데 그루터기 공연할 때는 한국무용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그루터기 공연할 때는 또 사회자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원들은 거의 40-50 대 주부들이죠 직장 안다니고.

저희 6명 정도는 아주 오래 있었죠. 거의 10년 정도요. 저녁 예배 팀도 오래 있었죠. 그리고 금요 철야예배팀도 5년 이상씩 하고 있죠. 근데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하게 되면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하게 되면 우울증 같은 증세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스펙타클 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조명을 받고 은혜를 너무 받고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 있으면 일주일 있다가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안하게 된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 정말 안 늙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매주 춤을 추니까 빨리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 보니까 꾸미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오는 그 감격과 충만함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만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쓰잖아요. 그래서 힘든 만큼 은혜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죠.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찬양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 때도 많고 수요일 예배 때도 있고 한테 찬무를 했을 때랑 안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찬무팀이 없는 팀은 생동감이 적죠. 아무래도 부족하죠. 찬무 팀이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니까요. 찬무 팀이 또 다 준비돼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기도도 하고. 옷만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무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르겠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르죠. 거기에 춤을 춘다 그럼 인원도 많아지고 이 스펙타클이 엄청나죠. 또 거기에 영성 있는 목사님이 멘트도 하면서 이끄시면 또 다르죠. 평신도가 이끄는 거랑 또 다르죠.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장점이 꾸준한 거가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한 무용이 아니라 누구나 평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거 편안한 무용들이 많다는 거. 다른 교회들 보면 몇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고 공연 위주로 되어있다면 우리는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100편 넘게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단원들이 또 만들고 하죠. 성도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갖고 있는 양이 많으니까 또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렇죠.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힙합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안하려고 하는 단원들도 있는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루터기 사역 팀에서도 더 배우고 싶어요. 좀 다양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힙합을 하면 반응이 달라요. 맨날 드레시 한 것을 추다가 즐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가끔 청년들이 장년예배 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40 초반만 되어도 힙합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

라고요. 주일 찬양 예배 때도 힙합을 가끔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힙합이 좋다기 보다 좀 새롭다는 느낌이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기획국 안에 저희 찬무 팀이 소속되어있어요. 그렇게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연한 팀인데 우리 팀을 교회 일에 우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절기행사 때라든가. 우리가 담당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또 연예인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협소해졌다고나 해야 할까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사역 스타일이 바뀐 거니까 외부를 부르면 100% 외부를 부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팀의 자리매김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아쉬운 거죠 뭐 그냥.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대학생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박자에 딱딱 맞춰서 하는데 그 여자 분은 중간에 흐르는 음악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따라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용이 이렇게 다양성 있는 새로운 안무 동작을 가지고 나오는걸 보니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정말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C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17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이유에서 라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어서가 가장 컸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마음으로 기독교 무용을 하는 그런 비전을 명확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래서 고1때부터 기독교 무용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자리를 잡았어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무용, 워십댄스 하는 팀을 전체적으로 몸찬양팀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장년 팀에는 남자 5,60대를 중심으로 하는 힙합 팀(모세 몸찬양 팀)이 있고, 여성 집사님들 팀이 3,4팀, 그리고 청년부에 1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팀이 있어요.

남성 힙합 팀도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한 10여년 됐어요.

장년부 몸찬양 팀들은 거의 절기 행사나 특별 순서 때 하세요. 그래도 거의 매주 모여서 연습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남성 팀은 일 끝나고 오셔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연습하세요.

교회에 몸찬양 연습실이 있어서 팀들마다 돌아가면서 연습을 해요. 교회 예배 안에 특별한 순서로 올려드린지는 최소 15년 이상. 청년부 안에서 예배순서 안에 도입된지는 5,6년 된 것 같아요. 장년예배는 매주하지는 않고 찬양예배라든가 초창예배정도 때 해요.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때도 하고요. 청년부 소속이지만 장년예배에 초청이 돼서 하기도 해요. 주일예배 때만 따지면 초청되는 비율이 청년부를 10이라고 하면 장년예배는 2 정도 되요.

(장년예배의) 거의 절기예배 때나 행사 때 특별한 행사 때. 그런데 특별새벽기도때나 부흥회 이럴 때는 성가대랑 몸찬양단이랑 번갈아 가면서 특별순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특별순서를 몸찬양단에서 올리면 2분기 때는 성가대에서 올리고 그러면 3분기 때는 또 몸찬양단에서 올리고 그래요. 장년부에도 몸찬양 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에 따라서 컨택을 하시는 편이에요.

예배 진행 안에서 율동을 하게 되면 3, 40분은 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년분들에게는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에게 요청하시는 편이예요. 찬양은 싱어와 세션이 하고 몸찬양 팀이 서서 찬양에 맞게 하는 거죠. 박수를 넘어서 동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중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이 가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데 교회 성격상 보수적인 곳에서는 박수도 안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선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찬양에 대한 마인드가 몸찬양을 되게 추구하시는게 많기 때문에 몸찬양 팀도 많이 생겨나고 또 예배 안에 포함되는 빈도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격주로 청년주일예배 찬양시간에 올려드리고 절기예배 때 또 올려드리고요. 작품으로 올릴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려드려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마다 하고 있어요. 거의 쉬지 않고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요. 한 10년째 이렇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사역이 만약에 중첩이 된다고 하면 연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하고 그래요.

연습하기 전에 서로의 기도제목이나 현재의 마음 상태를 나누죠. 컨디션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연습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걸로는 교제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 청년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 교육이라고 하는데 신앙서적을 선정해서 같이 chapter별로 읽고 나누면서 큐티와 교제를 같이 해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1년에 100만원 받고 있어요. 3년 전까지는 지원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매월 5천 원씩 회비를 걷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팀은 지원을 잘 받았었는데 몸찬양 팀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부족해서 그게 항상 어려웠어요. 제가 팀장을 맡은지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만나면서 매년마다 예산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늘리면서 올해는 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팀 복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조금 넘긴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받는건 100만원이에요. 의상비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100만원으로는 저희 팀안에서 안무를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사역비 받지 않고 한 7,8년 안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게 아니고 안무로 헌신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절반 이상의 사역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팀 운영하는 간식비 또는 소품비로 들어가고요. 의상은 각자 사비로 사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은 대략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은 청년 vs 장년 = 8:2 정도 되고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뭐지?’ 이런 반응도 많고, 잘 아는 찬양으로 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동작들을

하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있는 찬양으로 할 때는 훨씬 쉽게 받아드리는 것 같은데 가사가 없는 찬양으로 할 때는 해석이 필요한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배 전에 간지를 만들어서 주보에 넣어서 미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저희 순서 전에 보여드리거나 하죠.

찬양 중에 율동을 할 때는 회중들이 거의 다 따라 하세요. 쑥스러움이 많은 분들은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거의 6,70%는 따라 하시는 편이에요. 여자분들 중에 여름에 손을 높이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제자리에서 돈다거나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들을 하면 회중들은 이런 동작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는 동작 없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돌지 못하더라도 다른 동작들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고 회중들이 하지 못한다고해서 저희까지 제한한다면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저희가 100을 해야 회중들이 4, 50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또 너무 귀여운 동작은 못 따라 하겠다는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에 무용을 해서 예배에 대한 참여율을 엄청 높아졌죠. 그런데 처음 하는 찬양이거나 잘 모르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율동을 하면 신나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먼저 성도들이 익숙해 질 때까지 몇 주 기다렸다가 하는 편이에요. 찬양을 25-30분 정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요. 율동을 함께하는 찬양은 한 3곡정도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가사에 집중하는 찬양을 하거나 느려지는 곡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몸찬양팀은 다른 멘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진 않고 찬양을 이끄시는 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끄시죠. 그런데 반복을 해야 하는 동작이 있거나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리더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찬양 콘티는 1주일 전에 받아요. 파워 찬양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연습시간에 보통 3-40분 정도 해요.

작품의 경우에는 보통은 4분 정도 되는 걸 준비하고요 절기 예배 같은 때는 8분 정도 되는데 대사가 없는 몸으로 표현하는 연기나 스토리나 이어지는 걸 할 때도 있어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장르를 선택해서 해요.

찬양 중에는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쉽도록 어떤 포인트 부분에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요. 전체적으로는 율동적인, 따라 하기 쉬운 틀 안에 포인트 부분에만 넣는 거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원들은 8명 정도 되요. 24살부터 33살 까지 있어요. 들어오면 오래 있는데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들어오기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 3명 정도 되요. 2, 3명 중에서도 정단원이 되는 사람들은 1명에 그치는 정도예요. 지금 저희 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워십댄스를 접해본 친구들이라서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또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공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고 나머지는 비전공자들에게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할 수 없이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

으로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셀모임 등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몸찬양팀 안에서 나눔을 같이 하는데 팀원들한테는 신앙의 길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춤을 추고 안 추고를 떠난다면 우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끼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멤버십이 쌓여 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 무용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통 속에 있다가도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더 영적인 부분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힘든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자체는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움직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함께 할 때는 예배 안에 뛰어들어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역하지 않을 때는 고요함이 있거나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좀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서면 훨씬 참여적으로 드리는게 있어요. 예배드릴 때 셀끼리 거의 앉는 편인데 그때 목자들이나 셀 리더들이 저희가 춤출 때 같이 따라하는 편이거든요 리더가 하게 되면 옆에 셀팀원들은 목자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하면 또 같이 하니까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게 차별되는 점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 다른 팀들도 많이 하겠지만 저희 팀은 정기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하는 팀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댄스컬이라고 하는 뮤지컬처럼 댄스만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예배 안에 워십댄스가 함께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말씀과 연계를 해서 말씀 전에 하던 후에 하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작품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기마다 라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저희 팀이 몸찬양을 해서 하나의 찬양이 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점 더 그렇게 활용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작품들을 어떤 개인이 보시고 하셔서 촬영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많은 교회 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 중에 하는 파워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연락이 와요. 본인 교회에서도 이 동작들을 해도 괜찮은지 연락이 와요. 제작년까지는 못 느꼈는데 작년부터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 와서 가르쳐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셔서 점점 더 필요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따라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점점 더 이런 파워찬양이나 워십댄스를 포함하

려고 하는 건 더 있을 것 같아요.

D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바탕이라 함은 성경자체에 춤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몸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왔을 때 소고 치며 승리에 대한 표현을 했잖아요. 기쁨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춤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에서도 춤추며 찬양하는 부분, 다윗왕도 춤추는 부분도 있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 율법을 몰라서 소가 끌고 오게 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절망도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메고 들고 왔을 때 베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사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왕인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실제로 성경은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니까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척하고 나서 1년후에 목사님이 미국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미국에 가셨다가 “니가 뭉이면 성도들이 다 뭉인다.”라는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나가서 춤추기 시작하니 다른 성도들도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 춤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뭔가 영적으로 풀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셔서 미국 가기 전부터 춤추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자리에 그냥 서서 찬양하는 정도였는데, 미국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나오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했어요.

반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질문)

이런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회 내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 찬양 팀이 외부 사역을 나갈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찬양 팀 나름대로 춤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의 예배학교에서 ‘강한예배’라는 파트에서 춤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취야하는지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춤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춤에 대한 것은 복음주의 쪽 보다는 은사주의 쪽에 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서.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에 보니 춤에 대한 섹션이 있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SBS에서 춤으로 치유하는 다큐를 봤는데 춤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미국에서 다같이 춤추면서 암 말기 환자들 와서 춤을 추는데 진짜 영, 혼, 육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일반 세상 사람들도 풀어내려는 시도들이 있는걸 알게 됐죠. 브리टे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일반 백과사전에 보니 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을 경험한다고 적어 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이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지만 실제적인 육적인 영역에서의 문이 열리지 아니면 혼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고 결국 혼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춤이라는 것이 육적인 부분을 열면서 혼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확 여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예배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 다니면서도 깨닫고요. 이게 혼적인 영역까지 열리지니까 결국에 저희의 목적은 저희가 항상 춤을 추게 할 때 사역 나가서도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중등학생들이 오는데 그냥 춤을 추라고 하면 안 추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기도 하는데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냐면 혼적인 영역까지 터치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어떤 한순간에 영적인 애기지만 뽕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는 점신하는 말이 정확한 게 성령이 꼭 잡으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애들 안에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엔 성령이 애들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메시지가 아무리 들어가도 애들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또 성령이 역사하

지 않으시면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외부 집회 갔을 때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춤추면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애들하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 돌파가 되면서 성령이 딱 사로잡아요. 그럼 저희는 딱 그때부터 깊은 찬양의 예배들로 넘어가는 거죠.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런 거를 저희 예배 초창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거의 저희 안에서 2년 동안은 너무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시계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딱 6시간, 7시간씩 동안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표현하고 부르짖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집단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거짓말이 아니고 바닥이 눈물 때문에 저벅저벅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초창기가 그랬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든 예배학적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느 정도 현재 정리들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곧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책에 춤에 대한 파트도 들어가고 저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성경적인 신학적인 영, 혼, 육에 관련된 것들 적혀 있어요.

별도로 무용 팀이 있으신가요? 워십댄스팀 같은. (질문)

예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소통의 한계가 있었고 나이가 드니 결혼하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찬양팀 안에 현대무용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깊은 음악이 나올 때 성령 안에서 춤추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따로 허용하기는 하지만 팀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서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보통 교회에서는 절기 때나 행사 때 공연을 하잖아요. 특별히 하는 건 없나요?(질문)

그때는 때마다 프로젝트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또 예배 팀 안에서 계획에서 좀 디테일한 안무를 짜서 같이 성도들하고 한다든지 하죠. 아니면 또 구성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건 기획을 때마다 해서 하고 있

죠.

또 외부사역을 많이 가는데 저희가 광주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예배 바꾸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워십댄스팀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예배를 하는데요. 혹시 gathering이라고 아세요? 글로벌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거기가 되게 워십댄스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 팀이 절반 워십댄스팀이 절반 이렇게 무대를 배치해요. 거의 한 2-30명이 올라와서 워십댄스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가 즉흥적으로 성령 안에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러다가 회중들이 또 다 따라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연합으로 하는 운동을 한국에서도 자주하고 제주도에서도 했었어요. David Demian이라고 이분이 이집트 분인데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워십댄스팀이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학교를 두 달에 걸쳐서 춤의 신학이 한 파트로 들어갔죠.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춤에 대한 교육은 거의 목사님께서서 매주 설교 때마다 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고 예배학교 안에 같이 파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배학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하는 코스인가요?(질문)

네네 그렇습니다. 8주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교회 멤버쉽이 되면 선택해서 여러 학교 예배학교, 성경학교 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배학교는 거의 필수 과정이죠.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질문)

생길 수 있다면 댄스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호주의 Planet Shakers라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안 알려졌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거기를 갔었는데 요즘 한 2년 동안 거기서 크게 이쪽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댄스 팀이 같이 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교회 예배 안에서 원래 율동 팀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곡도 약간 올드 했었고 하는 동작들도 좀 서로 매칭이 안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Planet Shakers 같은 경우는 노래도 세상 음악과 비교했을 때 전혀 끌리지도 않고 그 장르에 맞춰 워십댄스팀이 딱 맞춰 주는거예요. 근데 또 그게 생각보다 팬 참더라고요. Planet Shakers가 한국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Planet Shakers가 은사주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데서 워십댄스팀을 세워서 하는걸 보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가 가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적인 것들만 확보가 되면 모든 곡에 워십댄스팀이 다 들어오면 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방해가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참여적 예배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예배 신학적인 것이 참여적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놔두지 않고 함께 참여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게 할까 하면서 그런 워십댄스팀이 그런 참여적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Mentor팀과 캠프사역을 2년 정도 했었어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이 자기 멋있는 척을 하면서 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인도를 하는 입장에서 애들이 더 강력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댄스 팀이라면 아주 강력할거고 또 하나는 느린 깊은 노래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춤출 때 보여주는 표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있고 오히려 더 소통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어 질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게 열려지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95%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장년층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청년들처럼 2,30대 시작해서 시간이 10여년이 흘러서 장년이 된 거라 서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서 지금 자모실에 보면 애들도 많고 지금 애들이 70명이 있어요. 장년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이세요. 애네들이 뭐 하러 다니나 하러 보러 오셨다가 본인들이 더 잘 맞아서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분들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질문)

아니요. 하세요. 오히려 제가 사역을 다닐 때 여러 사역들을 다니는데 요 근래 강원도에 갔었는데 강원도가 원래 기독교가 되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5-60대가 절반이상 모이시는 집회였는데. 거기가 연합 집회여서 저희 팀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5-60대 어르신들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계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거예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대부분이 춤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럼 어떤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질문)

그런 지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소수인원인데 근데 본인의 감정기복정도. ‘별로 지금 내가 추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앞에서 추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옆에 사람들 하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목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돌파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넘어 서야하는 거고 또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으로써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반응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타협을 안 하고 계속 푸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오나 봐요?(질문)

네. 그래도 교회는 나오죠.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춤이 예배의 참여도에는 엄청 기여를 하죠. 저희가 사역 나갈 때 보면 저희를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애들이 잘 따라 올 수 있을지를 애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먼저는 기도로 확인을 하고 또 애들이 움직이는 동작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찬양에 일부러 중간 중간 손뼉을 친다던지 합성을 지른다던지 동작들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애들이 손을 치면서 일단 몸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서 떼게 하고 그다음부터 격렬하게 움직이게 하고 따라올 수 있는 동작들을 의도적으로 넣어서 오늘같이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좀 더 임팩트 있는 동작들을 저희 나름대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이럴 때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안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역동적인 동작들 위주로 앞에 사람에게 손을 올린다던지 하는 거요.

애들이 모르고 따라하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춤을 출 때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르면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게 해요. 저희도 근데 하다 보니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오히려 춤을 추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더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을 춤을 추게 되고 어르신들도 춤을 추게 되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앓아 계시다가 제가 의도

적으로 이걸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함께 옆에 사람 손잡게 하고 둥글게 둥글게 하게하고 아니면 팔짱을 끼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넣어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분들도 하게 되고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하고 알게 되고 자연스러워지시죠.

춤이라는 것은 정말 회중들을 예배 안에서라든지 또 어떤 모임에서라든지 참여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전통 관습 안에서 있었던 것들도 「메시아닉」이라는 책에서 보면 원무를 추면서 하는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참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무를 추면서 참여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는건 찬양시간의 자유로운 춤이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0년, 11년 정도 있고 거쳐 간 사람들만 보면 900명에서 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되게 힘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리다 보면 살아나게 되요. 살만하게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사명 적으로 교회에 붙여져서 남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안정적으로 있고 싶고 돌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을 원하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또 힘들 때 왔다가 괜찮아지면 나갔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었다가 온 사람들 보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정착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다른 예배들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아예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들의 정착율은 90%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예배 팀은 저희가 외부 사역이 많아서 1년의 거의 교회사역 빼고 100일 정도는 나가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여기 예배 팀 중에 4명은 월급을 주고 full time 사역자로 하고 있죠. 나머지는 지원자로 해서 rotation으로 하죠.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영적인 영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에 ‘감정론’이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는 얘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시기가 부흥이 대각성 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때도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금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주의권 은사주의권의 다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감정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써서 감정이 만져지지 않고는 성령이 만져지고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라고 쓴거죠. 근데 또 반면에 거짓감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가야 할 텐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14. 실제적으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강의 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가 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도 나도 없이 패밀리였죠. 그때 스페인 경기를 이겼었는데 그때 뭐 춤은 문제가 아니라 열정을 표현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춤추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스페인 경기가 우리 삶에 무엇을 준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인데.. 예배가운데 이걸 당연하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

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 혼, 육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건데 한국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육적인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가면 지식적인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예배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춤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한 것처럼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게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감정적으로 먼저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도록 하는게 다른 것 같아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EDM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잖아요. 그렇다면 느린 찬양 등에는 함께 춤출 마음은 없으신가요?(질문)

곡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댄셀 교회처럼 한명, 혹은 두 명이 나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예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DM 음악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함이 크죠.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적인 확보가 있어야 교회에 무용(춤)이 더 활용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교회건물을 옮겨갈 때마다 어떤 zone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중석에서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춤출 수 있는 zone을 아예 예배시간에 한쪽에 만들어주고 또 그 공간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표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zone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IHOP을 갔더니 아예 그런 zone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Planet Shakers는 갔더니 애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아예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중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춤추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은 필요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 안에서 무대에도 열린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임명된 댄서가 또 거기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 벤엘 교회처럼 하고 싶죠. 워낙 춤이 갖는 것이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게 강하니까요. 춤이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영국 교회처럼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춤이라는 요소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분명히 그런 교회들 안에는 있겠죠.

E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양 중에 손을 들게 되는 것처럼 몸짓으로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권장하시면 권장하셨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록 된 곳은 성경에도 없거든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2013년 1월에 개척됐고 한 4월부터 찬양 중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들이 거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문화선교단체에서 다들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역하던 사람들이예요. 미국에도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한국 보다는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할 때 회중들도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도하고 또 무용팀이 있어서 무용수가 짜여진 안무 없이 즉흥으로 무대에서 추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진 곳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Redding에 있는 Bethel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 중에 춤도 추고 또 받은 감동을 그림을 그리면서 예배당 한쪽에서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담임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처럼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개척될 때쯤에 제가 이쪽 기독교 무용에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뭐 그 과정도 신기했죠. 저를 소개시켜 주신 다른 목사님도 저랑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신거죠. 저를 2013년 1월에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바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4월부터인가 찬양시간에 저 혼자 춤추기 시작했죠.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일 해요. 주일 예배 찬양시간이 거의 4-50분하는데 아직 교회가 많이 작고 춤추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추죠. 처음 시작 할 때는 그냥 2, 3곡정도 했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전곡 다 추게 됐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없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죠. 일단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레슨을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한국무용하고 발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있고요. 또 피트니스 클럽가서 웨이트트레이닝하고 유산소 운동을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죠. 동작이 잘 나오려면 몸에 또 근육이 있어야하니까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건 글썄요. 삶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왔던 체험들이 다 쌓여서 춤출 때도 같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하겠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놔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이 춤을 포기할까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면서 만난 경험들이 쌓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춤출 때 부르게 되는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들이 정말 제 고백이 되거든요. 완전 집중하고 몰입해서 추지 않으면 절대 즉흥으로 출수 없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작아서 바로 앞에 회중들이 앉아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하면 절대 집중이 흐트러져서 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하는데 그런게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혼자 하니까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뭘 소품 등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줘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요. 4, 50대가 30% 청년층이 40%, 30대가 20% 나머지에 60대 이상과 어린아이들이 있죠.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뭐 창립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대부분 익숙해졌죠. 중간에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중에 예배 중에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가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 오셔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고, 또 계속 계신 성도 분들 중에도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저희 교회 찬양 팀 리더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춤추는걸 보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리드하게 된다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담임목사님도 찬양 중간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에 집중이 안 되시면 앞에 oo자매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표정만 봐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몇의 해외에서 오래 살다온 청년들이 찬양 중에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몸짓도 조금씩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교회 스타일의 찬양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즉흥으로 추고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편이라 서요. 물론 찬양 리더가 일어서서 하자고 하거나 손뼉치고 찬양 하자고 하거나 하면 하지만요. 저도 사실 이게 좀 불만이에요. 제가 좀 이끌고 싶기도 한데요. 성도들에게 찬양 중에 춤을 추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또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시간이 4, 50분이면 제가 처음부터 찬양 끝날 때 까지 즉흥으로 하죠. 물론 콘티는 미리 받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즉흥이라는게 평소에 배워둔 스킬이 그 곡에 흐름과 가사에 맞춰서 감동을 받은 대로 나오는거라 평소에 테크닉을 배워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어야 해요. 주중에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갑자기 주일 찬양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 몸으로 고백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찬양시간에 제가 리드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은 즉흥이죠. 제가 어렸을 때, 힙합을 배웠고 또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까지 배웠고 또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곡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춤을 춰요. 콘티를 미리 받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머리로 생각을 해두죠. 하지만 안무를 짜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략의 구성만 생각해 놓고 예배 중에 받은 감동대로 춤을 추고 있어요.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용수는 현재 저 밖에 없네요. 교인이 일단 적다 보니 춤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요. 몇 명 있어서 몇 달 같이 모여서 연습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교회를 옮기게 된 친구도 있어서 저 혼자 하고 있죠.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도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영감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분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아주 소극적인 몸짓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몸짓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확장해서 표현되는 게 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 또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진정을 담아서요. 지금은 저 혼자 추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간 회중들도 그렇게 추게 하고 싶어요. 춤을 추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는 찬양시간에 춤추는 게 없게 되요. 그러면 확실히 예배의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찬양 가사를 몸으로 시각화해서 추는 일이 없는 거니까요. 춤을 함께 하면 찬양 가사가 더 직접적으로 또 찬양가사가 진짜 정말 와 닿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간 훈련 받은 무용수가 찬양 중에 전곡에 맞춰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장점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체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죠. 예배무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 시선 먼저 신경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춰야하는 것 같아요. 미갈이 비웃었을 때 다윗의 대답이 정답이었죠. 사람들 보라고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라는 대답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 같아요. 춤 출 때도 일상 생활에서도

요. 사실 작은 교회에 또 회중석과의 거리가 10 c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무대에서 춤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한 거죠.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회중들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추도록 하고 싶어요. 춤추는 마인드부터 해서 좀 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춤추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또 장르라고 한다면 몸짓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영국의 한 워십댄스 선교단체에 가서 배운 건데요, 좋더라고요. 5명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창세기 한 부분을 몸짓으로 표현했는데요. 더 와닿고 또 이런 걸 확장시켜서 해외 선교 나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몸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빠르겠죠. 댄스컬 같은 것도 하고 싶고요. 뮤지컬 형태지만 무용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이 문제예요. 저 혼자 추기에도 좀 좁으니까요. 팀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힘든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럿이 춤추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반 세상도 이제 점점 AI시대가 다가오면 얼핏 생각하면 예술 분야가 도태 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 창조의 영역이고 사람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게 될 직업은 어쩌면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예술 분야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수용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것을 은혜로 덮고 가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좀 이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죠. 그러나 일단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면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훈련도 받아야하고 연습도 해야 해요. 무대에 섰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춤추는게 맞지만 또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중석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것은 상관없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해서 간다면 기독교 문화 안에서의 무용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춤을 추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점점 한국 교계도 인정해 줘야죠. 언제까지 유교적인 마인드에 사로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록 3. 관찰자의 참여일지

A 교회

방문일: 2018년 10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추수감사절 주일 찬양예배)

총 예배 시간 : 약 1시간 30분

- 예배 순서 -

(오프닝 무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솔리스트 앙상블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 여성/ 남성 합창단
 2. Show me your ways - 청년대학부 찬양팀 & 중창단
 3. 1.2.3. victory / 해피송 - 청년대학부 댄스 선교부
 4. 사모곡 / 사명 - 한국무용선교단
 5. 주 안에서 화목. 사랑. 하나가 됐네 - 교회 사물놀이 선교단
 6. 감사로 주님을 기뻐하라 - 교구 찬양
 7. 바닷길 - 현대무용단
 8. 거룩하신 하나님 - 연합찬양대
 9. 파송의 노래 - 부부합창단
 1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선교사 찬양
 11. 물이 바다 덮음 같이 - 연합찬양대
- 설교 말씀 - 담임 목회자
- 모두 함께 -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 광고 & 축도 - 담임 목회자

이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위와 같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여 진행한다. 무용 뿐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의 합창단을 비롯한 국악 선교단과 연합으로 준비하여 올린다. 순서대로 등퇴장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이를 연결해주는 사회자 겸 연기자들에 의해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각 공연들이 진행된다.

절기의 특별예배라서 그런지 회중석은 예배당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빈틈없이 꽉 찼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중의 하나로 마치 로마의 원형경기장

또는 대형 음악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위엄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또한 무대에 장식된 대형 과일 바구니들도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예배당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전문인들의 합창으로 오프닝 무대가 시작되었다. 일반 합창 공연에서도 볼 만한 뛰어난 실력이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순서 중에 본 연구자는 무용 공연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대학부의 댄스 선교단은 요즘 유행하는 방송 댄스 또는 힙합의 장르의 춤을 추었다. 기독교무용의 장르로 구분하면 C.C.D.라고 할 수 있다. 약 11년 전에 본 연구자도 C.C.D. 위주로 춤을 췄었는데 그 시절의 이 분야의 전문 사역 단체들의 수준과 견주어 보았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테크닉과 구성이 훌륭했다. 팝핀 등의 테크닉을 활용하여 춤을 추기도 하였고 많은 연습을 한 티가 났다. 또한 청년대학부의 중창단과도 연합하여 춤추는 모습도 잘 어우러져 보였다.

이 교회의 한국무용선교단은 비전공자의 여성 집사님들로 구성되어있다. 비전공자로 구성된 단원들의 공연이라 높은 완성도를 볼 수는 없었으나 소품의 활용이나 의상에서 다른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교회에서 무용단에게 갖는 관심과 지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대무용단의 공연은 교회의 한 여성 성도가 C.C.M. 찬양곡 ‘바닷길’을 부르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바닷길을 상징하고자 하늘색 큰 천을 소품으로 사용하여 단원들이 파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구성이었던 것 같다. 현대무용단원들 전체가 춤을 추는 것은 아니었으며 단원 중 한사람이 독무를 하였다. 가사와 리듬에 맞춰 구성하여 춤을 춘 것 같다. 보다 전문적으로 예술성있게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찬양곡 전체에 맞춰 추지 않고 곡 중간에 무용수가 등장해서 추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춤을 춘 점이다.

이 교회의 절기 특별 예배는 대형교회만이 보여 줄 수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모든 대형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도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몇의 팀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회 예배

당의 스케일과 그 곳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수가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 이었는데 그에 걸 맞는 연습과 준비도 필요한 것 같다.

B 교회

방문일: 2018년 10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찬양시간: 25분

찬양곡:

예수 님기를 (느린 찬양) - 찬무 없음.

손을 높이 들고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내가 어둠속에서 헤맬 때에도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시선 (느린 찬양) - 찬무 없음.

5개의 찬양 곡 중 찬무가 있었던 것은 3곡 이었다. 찬양인도자가 성도들에게 일어서서 하자고 말하고 찬무가 시작되었다. 두 명의 찬무팀원들이 율동을 했고 이를 성도들이 따라하는 분위기였다. 회중석에서 바라볼 때 왼편에 앉은 성가대원들도 찬무를 적극적으로 따라했다. 찬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두곡을 부를 때도 찬무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며 자연스럽게 손은 드는 등의 동작을 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래된 대형교회 중 하나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찬양 시간만큼은 자유로워 보였다. 회중들은 모두 장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동을 따라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회중석에서 정면 왼쪽에 바로 보이는 성가대원들 또한 함께 율동을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율동을 따라하는데 기여한 것 같다. 2명의 찬무팀만이 율동을 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율동을 하는 모습은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율동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율동의 구성은 대부분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이었다. 물론 도는 동작이나 땅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들이 있기는 했으나, 성도들은 찬무팀의 팔 동작 위주

로 따라하였다.

또한 찬양 중에 어떤 한 성도가 회중석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한국의 교회 특히 보수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장로교 통합교단 측의 예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25분 남짓 되는 길지 않은 찬양시간의 3곡만 찬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도 전 성도가 충분히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C 교회

방문일: 2018년 6월 24일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약 15분

찬양곡:

주 신실하신 놀라워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만세반석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온 땅의 주인 (느린 찬양) - 율동 없음

주 여호와와 광대 하시오다 (느린 찬양) - 율동 없음

찬양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무대에 성가대원들, 찬양팀, 및 몸찬양팀이 함께 서서 찬양을 드렸다. 총 4곡 중 율동이 있었던 곡은 두곡으로 빠른 곡들이었다. 비교적 젊은 층의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익숙한 C.C.M. 곡이었다. 빠른 찬양에만 몸찬양팀의 율동이 있었고, 느린 찬양에는 함께 찬양을 드리며 그대로 무대에 있었다.

율동이 없는 찬양에서도 몸찬양팀은 그대로 찬양에 몰입하여 자신들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반면 무대에 함께 서있는 성가대원들은 몸찬양팀에 비해 찬양에 몰입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몸으로 찬양 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을 때에도 찬양에 대한 몰입도가 확실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춤을 추지 않던 춤을 추던 찬양에 몰입을 한 만큼 받는 은혜도 크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회중석의 성도들은 찬양시간 내내 서서 찬양을 하였다. 율동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따라하거나 춤을 추지 않는 경우 박수라도 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신나서 함께 찬양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D 교회

방문일: 2018년 9월 30일 주일예배

찬양시간: 1시간 30분

찬양곡

Good to me

Greater

Nobody like You

Rejoice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있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You deserve the glory

My soul sing

먼저 이 교회의 찬양시간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매우 길었다. 약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느린 찬양을 제외하고는 회중과 찬양팀 모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라 그런지 외국 찬양 곡 들을 많이 불렀다. Planet Shakers, Bethel Church, MercyMe 등 미국, 호주 등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의 찬양 곡들을 불렀다.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는 연합예배로 오전 및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11시에 함께 드렸는데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 교회의 성도는 청년층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젊은 교회’라는 생각과 함께 그저 정신없이 춤을 추며 예배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교회의 청년층의 봉사자들이 굉장히 밝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가식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춤추며 예배하기 때문에 가슴에 답답했던 것들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내적인 치유도 함께 일

어난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찬양 리더나 찬양팀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쉽 없이 하였다. 찬양 중간에 랩이 필요한 부분에는 랩퍼가 등장해 랩을 하였
다. 또한 대부분 성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감동대로 춤을 추도록 하다가 어
느 특정 부분에는 찬양팀이 율동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올라와 부분적인 동작
들을 알려주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추게 하였다. 그
리고 무대 앞쪽에 나가서 춤을 추지 않고 몇몇은 자리에서 추기도 하였는데,
찬양 리더가 성도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라며 이끌었다. 이러한 진
행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결속력을 다지게 해 주는 것 같다.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았다. 회중석 중간, 중간에 장년층이 있었
는데 춤을 추지 못하고 박수만 치면서 예배드리던 그들도 어색하지 않게 함
께 춤추며 예배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예배 후 담임 목회자와 미팅을 가졌는데 이 교회가 예배를 찬양시간을 포
함하여 약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볼 때도 2시간은 투자하는데 예배가 그 보다 짧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
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주일예 한 시간 남짓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한다. 다른 교회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긴 예배시간과 2배 이
상 되는 찬양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찌들었던 것을 치유 받는 시간
이 되는 것 같았다.

E 교회

방문일: 2018년 7월 15일 주일예배

찬양시간: 약 45분

찬양곡 (전 곡 즉흥무용):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We are hungry

Offering

그는 왕

Here for You

Just Where You are

먼저 이 교회의 가장 타 교회 대비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영어 찬양 곡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온 1.5세대의 담임 목회자와 찬양팀 리더의 영향인 것 같다. 성도수가 몇 십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규모에 비해 찬양팀의 리더와 세션들의 실력이 좋아 보여 알아보니 모두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다. 이날 불렀던 찬양 곡 중 마지막 곡은 찬양 리더의 자작곡이라고 하였다.

무대와 회중석의 거리가 매우 좁았고 무대의 높이도 바닥과 같아 차이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이 신기해 보였다. 무용수는 첫 곡부터 마지막 곡 까지 모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다. 찬양도 불러가면서 춤을 추었는데 즉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및 힙합의 느낌을 곡에 따라 변경해 가며 가사와 리듬에 어우러지게 하였다.

무용수는 다른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오직 찬양에만 집중하여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회중석 맨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장난치고, 무대 오른쪽 끝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사이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는 오로지 찬양에 집중하여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졌다. 찬양 중에 감격하는 모습과 표정을 비롯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빠른 찬양의 신나는 리듬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이 교회의 분위기가 결코 이 무용수가 춤을 추기 편안한 상황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회중석 앞 쪽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것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그저 앉아서 찬양을 부를 뿐이었다. 한두 명의 젊은 청년이 일어서서 찬양하며 본인들이 받은 감동을 다소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좁은 공간에서 무용수 혼자 그토록 집중력 높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녀에게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신기해서 무용수에게 물어보니,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공간이나마 예배당이 생겨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약 1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전에는 3년 반 이 넘게 미용실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또 그 이전에는 북카페를 빌려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무용수는 혼자 춤추며 찬양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집중해서 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를 말한다. 그 정신은 살아가면서도 또 무대에서 춤을 출 때도 그렇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춤을 춘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는데 이 교회의 무용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ABSTRACT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Kim, Young Mee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hristian dance has been developed so far that it has been used for mission and churches in various ways. Nevertheless, it is still used as a tool for special event at churches rather than a factor of worship. Therefore, this research selected five churches in Seoul which adopt different type of worship dances during services and examined them. It aims to broaden the opportunities of using worship dance in different ways at church services through this work.

I tried to find the validity of using worship dance during church services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worship and worship dance through literature survey in chapter two. Also, I researched the type of Christian worship dance which had historically been used. In chapter three, I categorized general christian dances which are currently being used both in Korea and in the worl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chapter four with five leaders of worship

team and worship dance teams which characteristically adopt worship dance at church services. Moreover, I attended these five churches' services and wrote diarie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and the diar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ship dance was written in this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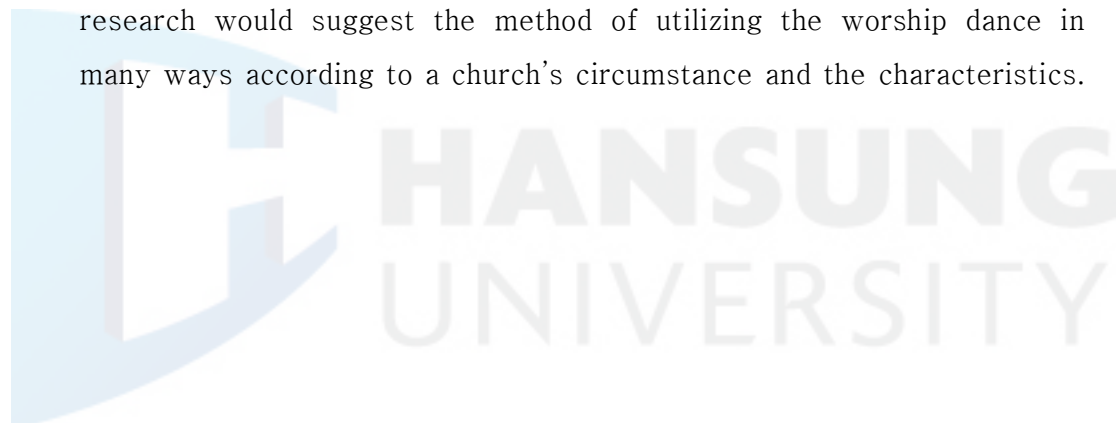
Firstly, when we look at the worship dance types, church A adopts the performing art style during Sunday evening service, main church events and seasonal worship services randomly. Church B utilizes worship dance at every Sunday and Friday evening services. At church C, the worship dance team of the youth group dances at Sunday youth service with the congregation biweekly. Also, this team performs at church event including seasonal services not only at the youth worship but also at the main Sunday services. Most of the congregation dances at every Sunday service freely at church D. At church E, a dancer dances spontaneously at every Sunday service.

Secondly,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gregation when the worship dance is adopted during the service, people cannot participate actively since church A takes the performing art style for worship dance but they realize the Word not only by the sermon but by the performance. The congregation at church B follows the worship dance easily since the dance team utilizes simple movements. Also, the congregation of church C participatively follow the movement of the worship dance team. People at church D highly participate with dancing when singing with EDM at the service. Since a dancer dances alone while singing, the congregation passively participate at the service of church E.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urch is as follows. The representative leader of church A's worship dance team is a professional dancer and choreographer and a half of the team members were all

majority in modern dance. Even though church B belongs to somewhat conservative religious body, most of the congregation actively followed the worship dance team's dancing. The members of worship dance team at church C are able to dance with a variety of genre and they practice for a long time. It is remarkable that the congregation of church D dances freely during one and half an hour of singing time at Sunday services. At church E, it is impressive that a dancer dances focusing on God only even if the circumstance of the church is poor that the stage is small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congregation is too short.

By looking at five churches' worship dances, there are churches where the congregation just watch whereas participates actively. Therefore, this research would suggest the method of utilizing the worship dance in many ways according to a church's circumstance and the characteristics.



【Key words】 Service, Worship, Worship dance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9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 영 애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2018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 영 애

한국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김영미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 문 초 록

한국 교회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영 미

오늘날 기독교무용은 발전을 거듭해 선교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안에서의 활용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며 여전히 교회의 특별 행사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예배무용의 유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서울의 다섯 교회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예배무용이 교회의 예배 안에서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 예배와 예배무용에 대해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와 본질을 알아봄으로써 예배 안에서 무용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기독교 예배무용의 형태들을 파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오늘날 한국 및 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독교 무용에 대해 분류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의 리더를 심층면접하여 운영현황, 회중과의 관계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자가 각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관찰한 내용과 함께 각 예배무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를 보면 A 교회는 공연형태의 예배무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일 저녁예배, 주요 교회 행사 및 절기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B 교회는 매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 철야예배 찬양시간에 예배 무용을 하고 있으며, 교회 행사 및 교회 내외의 사역에 공연 형태로 무용을 하고 있는 워십댄스팀이 별도로 존재한다. C 교회는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에 격주로 율동을 하며 모든 회중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 예배뿐만 아니라 장년 예배에서의 특별 예배에 공연 형태로도 올린다. D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형태이다. E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단독으로 즉흥무용을 하고 있다.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시 회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A 교회는 관람 형태로 회중이 참여적이지는 않으나 예배무용을 통해 은혜를 받아 설교 뿐 아니라 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된다. B 교회의 회중들은 비교적 쉬운 동작의 율동을 함께 참여적으로 따라한다. C 교회 역시 몸찬양팀의 율동에 대체로 참여적으로 따라하는 편이다. D 교회는 EDM 음악에 맞춰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예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E 교회는 무용수 단독으로 즉흥무용을 하기 때문에 회중들은 수동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의 특성을 보면 A 교회는 대표리더가 무용계 현업에서 종사하던 전문가이며 단원들의 50% 이상이 전공자로 구성되어있다. B 교회는 보수적 교단의 장년예배임에도 대부분의 회중들이 찬무팀의 율동에 참여적이다. C 교회의 단원들은 다양한 무용장르를 구사하며 많은 연습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D 교회는 주일 두 번의 본 예배에서 1시간 30분 동안의 찬양시간에 대부분의 회중들이 춤을 춘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E 교회는 소규모의 교회로 무대도 좁고 회중과의 거리도 가까운 환경에서도 무용수가 단독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춤을 추는 점이 인상적인 곳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섯 가지 예배무용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회중들이 관람하는 형태도 있었으며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형태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각 교회의 환경, 특성에 맞게 예배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예배, 예배무용, 기독교무용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5
제 4절 선행연구 분석	5
제 5절 용어의 정의	8
제 2장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해	10
제 1절 예배의 의미 및 본질	10
제 2절 예배무용의 이해	13
1) 예배무용의 정의	13
2) 역사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무용	16
가) 의식을 위한 무용	16
나) 축제를 위한 무용	20
다) 치유를 위한 무용	22
라) 예배를 위한 무용	23
마) 설교 및 교화를 위한 무용	25
제 3장 최근 기독교무용의 분류	26
제 1절 율동 및 몸찬양	26
제 2절 수어무용	28
제 3절 공연 예술 형태의 무용	31
제 4절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e)	36
제 5절 매체를 이용한 춤	38

제 4장 다섯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	41
제 1절 다섯 교회의 일반적 특성	41
1)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41
2)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정보	43
제 2절 예배무용 운영현황	45
1) 예배무용의 도입배경	45
2) 예배무용의 운영형태	48
3)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51
제 3절 회중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54
1) 회중의 구성 및 태도	54
2)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의 참여 형태	58
제 4절 예배무용의 특성	63
1) 예배무용팀의 특징	63
2) 예배무용의 특성	66
제 5장 결론	75
참고문헌	79
부록	83
ABSTRACT	132

표 목차

[표 1] 수화무용의 창작과 지도과정	29
[표 2] 성경에서 색상의 의미	39
[표 3] 5개 교회의 기본 정보	41
[표 4] 5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43
[표 5]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마인드	45
[표 6]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및 재정지원 여부	51
[표 7]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54
[표 8]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57
[표 9]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들의 참여 형태	62
[표 10] 팀 리더가 보는 예배무용팀의 특징	65
[표 11] 각 교회 예배무용의 장점 및 영향	73
[표 12]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75

그림 목차

그림 1 Fra Angelico <심판의 날(The Last Judgement)> 중 일부분	20
그림 2 14세기의 바보축제의 표현	21
그림 3 셰이커 교도 예배실	24
그림 4 깃발을 이용한 춤 ICDF	40
그림 5 깃발을 이용한 춤 ICDF	40
그림 6 A 교회 찬양대와 연합공연	58
그림 7 A 교회 현대무용단 공연	58
그림 8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59
그림 9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59
그림 10 C 교회 작품 공연	60
그림 11 C 교회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60
그림 12 D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1
그림 13 E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2
그림 14 E 교회 주일예배 찬양시간	62
그림 15 A 교회 무용연습실	67
그림 16 A 교회 무용연습실	67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¹⁾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기독교인들의 의무와도 같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간의 자발적인 동기도 내포한다. 존 헉스터블(John Huxtable)은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²⁾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며 지냈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며 지낼 수 없게 되었는데, 구약시대에 와서야 의식과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용하신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부터 기원됐다고 할 수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에서 신약시대의 회당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초대교회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예배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그것은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기도 하다. 제사와 예배에 있어 우리의 자발적 참여와 순수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었음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1)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565.

2)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출판사. p75.

보다 나오니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³⁾

초대교회의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에 의해 드러지던 예배였다. 그러나 시대를 거쳐 중세시대 가톨릭교회에서는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는 등, 점점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사제들과 같은 특권층의 고유 의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죄부 판매와 같은 가톨릭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예배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으며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측의 웨이커 교도⁴⁾, 모라비안 주의⁵⁾ 등을 중심으로 신자 개인의 체험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이 두 교파들은 예배에서 회중들이 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예전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 강조되었던 것은 예배의 주체로서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였다.⁶⁾ 이처럼 신, 구교를 막론하고 회중들의 예배 참여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이는 오늘날 기존 교단 예배와 형식의 차이가 있는 열린예배⁷⁾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1세기 열린예배에서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찬양의

3)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4) 개신교의 한 종파로 1647년 영국인 조지 파크스 (George Fox)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교파는 내적 계시를 중요시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였다.

5) 개신교의 한 종파로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도 이 교파에 영향을 받았다.

6) 한은희. (2011).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6.

7) 기독교 문화에 낯선 불신자들, 복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하여 '세상 문화'를 예배에 접목시킨 것으로, 짧은 드라마(skit)나 음악(랩, 재즈 등), 무용, 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적 언어를 통해 불신자들이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일소하고 쉽게 찾아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퓨전 형식의 예배이다.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856.

수용, 드라마, 무용 등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도입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춰 말 그대로 누구나 예배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현대의 열린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하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점점 콘서트 혹은 공연과 같이 되어버림으로써 때로는 회중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관객의 입장이 되는 경향을 띄기도 한다.⁸⁾

오늘날에도 예배 갱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예배는 매 주일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회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유교적 관점으로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에서 신자들은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그 감동으로 손을 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몸짓이 더 나아가서는 움직임 또는 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율동 혹은 무용에 대한 견해는 교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청년층 위주로 C.C.M.의 활발한 활용, 또는 설교를 돕는 드라마의 도입 등, 여러 스타일의 예배가 도입되면서 무용도 찬양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무용은 찬양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비전문가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학적 법칙에 의해 영혼과 결합시킨 신체의 표현으로 음악과 미술, 무대장치, 의상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시공간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은 선사시대로부터 기원하며 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로서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⁹⁾ 구약성경에서도 무용은 즐거운 행사로 언급하고 있으며¹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무용을 직접적으로 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초막절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부터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8) 최광규. (2013).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9)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pp.14-5, pp.19-20.

10) 박경숙. (2013). 『재미있는 서양무용사』. 충남: 공주대학교 출판부. p20.

과 사랑, 경외심을 몸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시대에 이르러 육체는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교회 내의 춤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서민들은 교회 밖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무용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표출 되었으며, 결국 중세 시대에도 예배무용은 억압과 규율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문화 예술이 발전하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무용은 점차 다양하게 발전되고 활용되기에 이르렀다.¹¹⁾

기독교에서 예배무용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예배무용은 오늘날 비교적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개방되어 있고 자유로운 서양의 교회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양 교회에서는 찬양 중에 받은 감동을 즉흥적으로 춤을 통해 표하거나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는 신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넓혀준다.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굽혀 절한다”는 의미와 “입맞춤” 등,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¹²⁾ 이렇듯 예배는 그 자체에 능동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손뼉 치며,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드는 등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예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찬양만 부르는 것보다 한층 예배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교회가 여전히 보수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배무용 형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배에서 무용을 도입하고 있는 다섯 개의 교회를 선정하여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서 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배에 도입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예배무용을 위해 그 가능성 및 다양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11) 전계서, 박경숙, p45.

12)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pp.3-4.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은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의미에 대해 원어적 의미와 본질을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예배무용의 정의를 문헌적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예배무용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최근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을 분류, 알아보았다.

다섯째, 특징적 예배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팀 리더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자가 각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관찰일지를 기록하였다.

일곱 번째, 심층면접과 참여 관찰일지를 통해서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선정하였다.

둘째, 5년 이상 예배무용을 실행한 곳으로 하였다.

셋째, 예배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 중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섯 교회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예배무용은 교회 예배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 4절 선행연구 분석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가 있어 오기는 하였으나, 교회의 예배에서 활용되는 무용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찾기 어려운 편이다. 용어에 있어서 예배무용이라 칭하여 연구를 한 경우에도 실상 그 개념에는 교회 안에서의 무용과 밖에서의 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된 기록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점차적으로 예배무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 2018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회중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예배 갱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송유순(1990)은 “기독교의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에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예배의 적극적인 표현으로서의 무용에 대해 문헌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찬양의 수단으로써의 예배무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기독교 예배와 무용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역사적으로 교회에서의 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서와 현황을 중심으로 예배무용의 역사와 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 본 박은영(2004)의 “예배무용의 특성 연구”에서 또한 율동, 수화 위십댄스, 가스펠 댄스, 뮤지컬 댄스 등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배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특성을 분류하여 기록함으로써 타 무용의 준비과정과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지연(2005)은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기독교 문화와 예배무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의 무용과 밖에서의 무용으로 분류하여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예배무용을 2년 이상 실시한 7개의 교회의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조사에서 예배무용 활용 시기와 시간에 대한 질문에 절기행사와 예배 중 특별순서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그 당시 예배무용의 실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한나(2009)는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의 목회자 또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로 진로를 정하게 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무용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으로 나왔으며 예

배무용을 절기와 행사에서 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신학생과 일반성도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이정인(2009)은 “기독교무용의 인식변화 분석”에서 조사 대상에 차이를 두어 실시하였으나 두 그룹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두 그룹 모두 예배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동적인 성도에서 능동적인 성도로 변화시킨다고 응답하여 예배무용의 예배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용이 다른 문화에 비해 예배에서의 활용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으로 응답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조선하(2016)는 “한국교회 공(公)예배에서의 기독교무용 활용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한 모색”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내 공예배서의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5개의 선행연구에서 결과로 도출된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최근까지도 예배 안에서 활용되는 무용은 절기나 행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기재하였다. 이 외에도 만족도 및 장애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배무용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신학적으로는 예배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정창교(2009)는 “예배갱신으로서의 열린예배 연구”에서 열린예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함께 기재함으로써 올바른 정립을 통한 열린예배의 수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열린예배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행해지는 예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희(2011)는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예배에서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는 회중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질서의 기본요소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역사적으로 예배 갱신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회중 참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무용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

에 이 연구의 활용도도 높다고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예배에 대해 살펴본 최광규(2013)의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서 열린예배의 특징과 성서적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 교회의 예배의 회중들도 비참여적으로 관람하러 예배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예배의 문화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다 더 균형 잡힌 예배무용을 확립해야함을 알 수 있다.

홍동진(2016)은 “예배에서 EDM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EDM 음악에 맞춰 찬양하면서 회중들이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 청년층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EDM 음악의 찬양의 활용에 대해 예배음악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EDM 음악을 활용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예배 인도자를 심층면접 하여 이 장르의 도입 배경과 이유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 면접을 통해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는 청년층의 예배의 참여도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배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과 역사적인 변천과정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의 예배무용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예배에 대한 갱신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된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예배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예배무용이 교회의 예배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5개의 유형으로 예배무용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회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제 5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 하였다.

예배무용: 교회내의 예배 즉,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청년예배, 금요철야예배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용으로 의미를 두었다.

선교무용: 교회에서 국내외 선교활동을 위해 준비한 무용을 의미한다.

교회무용: 교회의 예배 및 선교, 전도 등을 위한 무용으로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무용을 말한다.

기독교무용: 위에서 언급한 교회무용의 개념과 교회 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무용의 공연예술 단체 및 선교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무용을 포함한다.



제 2장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해

제 1절 예배의 의미 및 본질

예배가 지니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예배에 무용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타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먼저 샤하아(שָׁחָה, 샤카)는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린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어 경배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뜻하기도 한다.¹³⁾ 이렇듯 예배는 나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샤라트(שָׂרַח)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뜻으로 구약에서 총 96회가 언급되었고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60회 정도 된다. 이스라엘에게 섬김의 대상은 목조물 등으로 만들어 놓은 이방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이 섬김은 성막 및 훗날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포괄한다.¹⁴⁾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들의 성소에서 이들의 섬김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요엘 1:13, 역대상 6:17, 16:4, 16:37, 사무엘상 2:11, 2:18, 3:1).

아바드(עָבַד)는 원래 종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이 또한 “자신을 엎드리다”, “굴복하다”, “숭배하다”의 뜻을 담고 있다. 고전 헬라어 구약성경에서 부유한 사람이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뜻이 있었으나 종교적 의미를 부가하여 사용하였다.¹⁵⁾ 이 단어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의미의 봉사가 아닌 종으로써 낮아진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듯 해야 함을 알게 된다.

13) Dannis, John Randall. (2006). 『샤카, 살아있는 예배』. (송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토기장이. pp. 30-1.

14) 이기문. (1989). 『구약 원어해설사전』. 서울: 성서교육개발원. p210.

15) 김소영. (1974).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p. 30-1.

신약에서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헬라어가 예배라는 의미로 24회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본래 존경의 의미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라는 뜻으로 헬라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던 단어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굽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구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선포 하셨을 때 사용되던 말이다. 이는 우리에게 다만 종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겨야함을 각인시켜 주는 단어로 예배의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를 통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¹⁷⁾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는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헬라의 시(市)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해석을 통해 교회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헬라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서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이 단어는 후에 기독교 예전의식을 뜻하는 liturgy 라는 영어로 바뀌어 예배의 표현형식을 의미하게 된다.¹⁹⁾

위의 언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행위이다. 자신을 내려놓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또한 회중의 섬김을 통한 예배의 참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직자들과 같은 특정 인물들만의 참여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위의 많은 어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뿐 아니라 몸을 다하여서도 예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황성철. (1998).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p19.

17) 정장복. (2005).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p19.

18) Segler, Franklin M. (1994).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p19.

19) 전계서. 최신정. p72.

예배의 영어표현은 worship으로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합성이다. 이는 가치와 신분이 있는 분에게 그에 맞는 사랑과 존경을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이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위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기록돼 있다. 그러나 예배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결과가 따른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격적으로 드러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두고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감동이나 체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시며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²¹⁾

구약의 제사부터 신약의 회당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주어진 절차 속에 드러져 왔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각 제사가 지니는 목적과 형식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반되는 제사였다. 이 원리는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요구된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이든 회중석에서 참여하는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진실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에는 겸손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피조물은 없다.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성경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낮추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드러야하는 예배에서도 협동하며 드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예배의 형식과 순서에 맞춰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 예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의 말씀을

20) 전계서. Segler, Franklin M. p18.

21) 신경섭. (1996). “예배의 본질과 한국 교회 예배 개혁의 방향”. 합동신학교 목회학과 졸업 논문. p5.

이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순서와 절차 속에 드리되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성찬, 말씀, 세례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었으면서도 예언, 방언 및 통역, 계시를 말하는 은사적인 요소들도 존재했었다. 그 시대의 예배 순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오늘날의 예배에서 행하는 요소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은사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되어 다양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²²⁾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배 중에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예배에서만 거룩하게 지내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적용시켜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본 개념을 알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배의 절차 속에서도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또한 삶에서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제 2절 예배무용의 이해

1) 예배무용의 정의

인간의 언어가 발달하기 전 우리는 움직임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소통하였다. 무용의 기원은 선사시대 수렵과 채집활동을 하면서 주술적 의식을 통해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과거 제사장들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 수렵무용, 수태를 기원하는 무용, 전쟁 무용, 농경무용 등이 있었으며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또 나아가서는 치유를 위해 주술적으로

22) 송영목. (2013). 신약성경의 예배에서 배우기. 코람테오닷컴.
<http://www.kscom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

행하는 무용도 생겨났다. 이렇듯 무용은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무용은 점차적으로 종교에서 독립하여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무용은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통한 공간 형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또한 미적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예술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²³⁾

그동안 무용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정의는 시대를 따라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적 가치관을 따라 변해 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 BC 427년-BC 347년)은 “무용은 육체의 율동과 영혼의 매개체이다”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현대무용 창시자인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1877-1927)은 “무용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혼을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하였고, 독일의 현대무용가 마리 뷔그만(Mary Wigman, 1886-1973)은 “무용이란 조형예술이며 창작, 구성된 형태의 변모를 보여주는 구경거리이다”라고 하였다.²⁴⁾ 위의 다른 시대 및 다른 사회 배경 속의 무용 전문가들에 의해 정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대를 따라 무용의 개념에 대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무용이 단순히 신체적 활동이 아닌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및 감정으로 볼 수 있는 신앙심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용의 한 장르인 즉흥무용은 이사도라 던컨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칙이나 훈련에 의해 습득된 방법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분출하는 순간의 움직임이 진정한 표현의 춤이라고 생각하였다. 즉흥무용의 활용은 비단 전문 무용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추어질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겐 안무의 일부로, 비전문가들에겐 무용의 테크닉에 대한 어려움 없이 좀 더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즉흥무용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창작과 미적 능력을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한다. 시 공간을 통해 움직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

23) 전계서, 양서정 외, pp. 16-9.

24) 김화숙, 한혜리, (1999). 『교양수업을 위한 무용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p18.

해 배울 수 있게 된다.²⁵⁾ 이러한 즉흥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예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듯 표현하는 예술인 무용을 여러 형태로 도입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을 예배 중에도 찬양 등의 음악에 맞춰 활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된 대부분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9:3)”,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 지어다(시편 150:4).” 이렇듯 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경배 표현의 극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에서 행해지는 무용을 경배무용, 예배무용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만 본 연구자는 통칭하여 ‘예배무용’이라고 하겠다. 영어로 worship은 예배와 경배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예배무용을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경배무용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가 있으며 영어로도 liturgical dance와 worship dance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²⁶⁾ 그러나 의식 속에서 드러지는 예배무용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춤을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예배에서 받은 감동을 즉각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던 미리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모실 수 있게 되자 기뻐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 왕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들의 춤은 짜인 안무에 맞춰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대부분을 작사한 시인이면서 대표적인 예배 자였던 다윗은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였다. 어떤 의식에 맞춰 추는 것이 아닌 이러한 즉흥적인 춤은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질서 가운데 회중들 또는 무용을 배운 무용수들에 의해서도 추어질

25) Novack, Cynthia J. (2000). 『즉흥무용의 이해: 접촉에 의한 즉흥행위와 미국 문화』. (서진은, 역). 서울: 금광미디어. p236.

26) 안은경. (201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무용』. 서울: 일오삼출판사. p35.

수 있다.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과 같은 춤의 형태도 예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배무용의 범주 안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무용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작품의 주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배무용은 무용수에 의해서 춤을 춘다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무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그 주제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춤이다. 따라서 예배무용 시 무용수는 자신을 드러내려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용수의 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가가 더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교회무용 사역자 매들린 베리(Madeleine Berry)는 “예배에서의 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상 그분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²⁷⁾ 또한 강준민 목사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²⁸⁾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예배무용은 무용이라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 것이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듯 그 몸짓에서 더 확장되어 표현되는 것을 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배무용은 즉흥으로 추는 춤이든 어떠한 의식에 맞춰 준비된 춤이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추는 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2) 역사를 통해 본 기독교 예배무용

가) 의식을 위한 무용

성물과 관련된 의식무용은 성스러운 물체를 중심에 두고 행해졌는데 구약성서(창 12:6, 21:19, 21, 29, 수 24:26)에서 그 예들을 볼 수 있다. 이때에

27) 매들린 베리. (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p9.

28) 강준민. (200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서울: 두란노. p463.

성물 주위에서 손을 잡고 원무의 형태로 승배의 의식으로 행진 스텝, 뛰는 스텝을 하며 추어졌다. 또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며 행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아랍 문화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Hagg’라는 의식의 춤을 의미하였다. 이는 ‘Kabba’라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에서도 추어지며 모든 성물 주위에서 추어졌다.²⁹⁾

승리를 축하하는 무용이 이스라엘 여인들에 의해 추어졌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 드리는데 춤이 사용되었으며 이 기록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누이인 미리엄과 여인들이 소고 치며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은혜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기록은 구약의 다른 성서(삿 11:34, 삼상 21:11, 29: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³⁰⁾

구약 성서에 결혼의식에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두 곳(삿 21:21, 23, 아 6: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약 성서의 외경중의 하나인 토비트(Tobit)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축제는 14일 정도 행해졌던 것으로 기록돼있다. 결혼식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 누구나 참여해서 신부 앞에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 또한 신랑 신부 앞에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춤을 추는 의식이 있었다.³¹⁾ 또한 본 연구자가 어렸을 때 참석했던 중동의 전통 결혼 문화에서도 결혼식 후 며칠 동안 행해지던 피로연에서 지인들이 춤을 추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대 유대인들이 장례식 때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성서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춤을 추는 의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존재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행위로 장례의식이 행해졌는데 춤을 추어 그 영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때 추는 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하였다. 또한 죽은 자의 영을 원(圓)안에 가둠으로써 다른 나쁜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망자 주위를 돌며 추는 춤도 있었다.³²⁾

29) 전계서, 박영애. pp.120-1

30) 상계서. pp.125-6.

31) 상계서. pp.126-9.

32) 전계서, 박영애. pp.130-3.

춤을 추면서 숭배하고 있는 대상의 신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무아경의 의식무용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아경의 춤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춤을 추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에게 들어온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러한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춤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영이 춤추는 자들에게 내려졌다. 이들에게 있어 이런 종류의 춤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와 영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³³⁾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순교자를 위한 무용은 4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묘지에서 경의를 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이날을 순교자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할 만큼 그의 기일을 기념하는 의식이 열렸다. 이때 연주된 음악과 노래는 슬픔보다는 기쁨과 승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는 성 크리소스톰(St. Chrysostom, AD 349-407)의 권면 때문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승리의 원무를 추어야한다고 말했다.³⁴⁾ 사제의 인도로 독창이나 합창에 맞춰 추기도 하였으며 여러 명이 원무나 행렬을 하며 추기도 하였다. 이때 찬송가나 시편에 맞춰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추었는데 이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했다.³⁵⁾

미로(labyrinth)모양은 대성당 바닥에 많이 장식 되었는데 이 나선형을 따라 행렬하는 무용은 11세기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이집트, 그리스, 이태리 등 유럽 여러나라의 대성당에서 미로 모양을 볼 수 있는데, 크레타 섬의 미로가 모델이 되었다.³⁷⁾ 교회에서 추었던 미로무용은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리더가 인도하여 미로를 따라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형식이다. 이 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지하세계에 내려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해 오는 것이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33) 전계서. 박영애. pp.133-6.

34) 상계서. pp.172-3.

35) Backman, E. Louis. (1952). 『Religious Dances in the Chrisitan Church and in Popular Medicin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p.38-9.

36) Taylor, Margaret Fisk. (1967). 『A Time to Dance』.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p92.

37) Deitering, Carolyn. (1984). 『The Liturgy as Dance』. New York: Crossroad. p42.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길’이라는 순례를 상징하는 무용도 있었다. 이 순례의 무용에서 리더가 바닥의 미로 모양과 잘 어울리도록 스텝과 템포를 조절하여 느린 운무로 춤을 인도하였다. 성가의 마지막 음절이 나올 때를 맞추어 미로의 중심에 도착하게 하였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다.³⁸⁾ 이런 미로무용 중에 펠로타(Pelota)라는 공을 들고 추는 춤이 있었다. 이는 성직자들로부터 아랫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원대형으로 손을 잡고 한 팔은 공을 안고 다른 팔로는 손을 잡았다. 트라이푸디엄을 추면서 미로를 따라 돌았는데 이때 부활절 노래를 불렀다. 이런 펠로타 무용은 4세기 때 만에도 주교가 회중들과 어우러져 이끌며 추었으나 성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들 고유의 춤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³⁹⁾

캐롤은 르네상스 시대인 1451년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⁴⁰⁾ 주로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이끄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프랑스 북부 지역의 음유시인인 투르베르들(Trouvere, 11-14세기)에 의해 캐롤이라고 불리었으며 궁정이나 상류층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예술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롤은 교회 안 보다는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수도사들에 의해 신앙이 전파 되면서 밖에서 활발하게 되었다. 캐럴 가사의 주제는 다양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화가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의 <최후의 심판(The Last Judgement)>이라는 그림 중 <구속받은 자의 춤(The Dance of Redeemed)>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자들과 천사들이 원을 만들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캐롤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무용으로써 부활절 캐롤이나 원무는 교회 수도원에서 부활절 전야제 때 행해지기도 하였다. ‘콘월 캐롤(Cornwall Carol)’은 영국의 중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대표적인 캐롤로서 민요와 어우러져 불렀다. 이는 교회 밖에서 많이 불렀고 지방 교회에서는 무용도 함께했었다.⁴¹⁾

38) 로버트 랭. (1996). 『서양문화사 II』. (이희재, 역). 서울: 사군자. p71.

39) 전계서. Deitering. p43.

40) Bumke, Joachim. (2000). 『Courtly Culture. Woodstock』. (NY: The Overlook Press). p225.

41) 전계서. 박영애. pp.157-161.



그림 1 Fra Angelico의 <심판의 날(The Last Judgement)>중 일부분⁴²⁾

나) 축제를 위한 무용

먼저 축제무용이 행해졌던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가그(Chagag)’는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약성경에서 16번 등장한다. 그 중에 축제의 의미로 쓰인 것은 13번(출애굽기5:1, 12:14, 23:14, 레위기23:39,41 민수기 29:12, 신명기16:15, 시편42:4, 107:27, 나훔 1:5, 스가랴 14:16,18,19)이다.⁴³⁾ 하가그는 뒤에 축제라는 단순한 의미의 하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며, 이는 ‘행렬, 원무, 축제’ 등 뜻을 지니고 있다.⁴⁴⁾ 또한 하가그를 주로 초막절을 지칭하는 단어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다른 절기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⁴⁵⁾ 이렇듯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축제와도 같은 절기에 행렬 및 원무를 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막절 이외의 무교절, 유월절, 및 맥추절에도 축제를 행했다. 유월절을 뜻하는 ‘페사흐(Pesach)’는 원래 절뚝거리는 스텝 중 하나를 일컬었다. 이런 절뚝거리는 스텝을 이용하여 유대인 노예들의 춤이 되었다. 행렬, 원무의 형태 이외에도 초막절 축제 기간에 여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였으며 남자들이 횃불 춤을 추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춤은 매우 오래된 풍습으로 춤을 추면서 시편을 노래하

42) 전계서. 박영애. p158.

43) 이완. (2017).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44) Holiday, L. William. (1974).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p95.

45) 김은혜. (2016). “성서에 나타난 원형적인 무용 텍스트와 컨텍스트 연구 - 에포트 이론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9.

기도 하였다.⁴⁶⁾

초기 중세 때부터 존재했었던 바보축제는 매년 1월 경, 특히 프랑스에서 행해지던 행사이다. 이때 교황, 대주교, 또는 주교를 선출하였으며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역할을 바꾸며 풍자적인 놀이를 하였는데 미사와 전례 때 무용을 함께 하였다. 동물 가면을 쓰고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나귀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 바보축제는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성직자들과 서민들이 입장을 바꿔 조롱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압된 삶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축제는 후에 일부 성직자들이 이교도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1212년에 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1614년이 돼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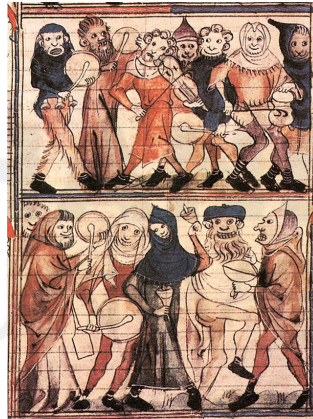


그림 2 14세기의 바보축제의 표현⁴⁸⁾

바보축제에 이어 어린이 축제가 탄생했는데, 이는 12월 28일에 행해진 행사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헤롯왕의 명령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는 교황 그레고리 4세(827-844년)가 학교와 학생들의 수호성인으로 임명된 교황 그레고리 1세를 기념하여 시작한 축제이다. 1327년경의 기록에 보면 이 행사의 미사에서 춤을 추며 어린이 주교를 뽑았다. 소

46) 전계서. 박영애. p122-4.

47) 상계서. pp.177-190.

48) Laskow, Sarah. (2017). The New Year's Feast That Transformed Fools Into Popes and Kings. Atlas Obscura.

<https://www.atlasobscura.com/articles/feast-of-fools-medieval-tradition>

년성가대원들이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춘 춤을 묘사하며 미사가 끝나갈 무렵 힘을 다해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 주교를 선출할 때 소년 성가대원들은 원무와 쓰리스텝(tripidium)을 추었다.⁴⁹⁾ 오순절로 알려져 있는 성령강림축일에 성도들이 성물을 들고 교회에 바치는 행렬이 있었던 것으로 중세 초기 문헌들이 전하고 있다. 교회의 행렬은 오랜 종교적 무용의 형태로 항상 춤을 동반하였다. 행진을 할 때 리듬에 맞춰 스텝을 밟았다. 또한 성체 축일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향로를 양옆으로 흔들며 하늘로 꽃을 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463년의 프라방스에서 열렸던 성체축일 가면극에서는 대사가 없는 판토마임과 무용만을 사용하여 극화시키기도 하였다. 중세 말기에는 쾰른에서 ‘고테스트라흐트(Gottestracht)’라고 하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성체 행렬’이 열렸는데, 성물과 성광이 함께 운반되었다. 이 행렬에 고위 관직자들과 성직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소년 성가대원들이 은 소재의 특별한 십자가를 들고 걸었다. 이때 ‘베른하르트(Bernhard)’라는 어릿광대가 앞에서 뛰면서 하는 스텝으로 춤을 추었다고 한다.⁵⁰⁾

13세기 브장송(Besançon)에서 유행한 베르게레트(Bergerette)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추어졌던 전통적 부활절 무용이다. 죽음과 지하세계에서 구원받은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였는데 행렬형태의 춤을 추었다.⁵¹⁾ 이 춤은 설교가 끝난 후 성직자들을 비롯한 성가대 대원들 및 참사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원 대형으로 시작하여 가장 어린 사람과 연장자가 인도를 하였다. 라인댄스와 원무의 형태가 많았으며 미로의 행렬형태로 추었다.⁵²⁾ 부활절 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베르게레트는 성령강림절 축제 때에도 추었는데, 수도원 또는 교회에서 추었다.⁵³⁾

다) 치유를 위한 무용

49) 전계서. 박영애 pp.145-6.

50) 상계서. pp.148-152.

51) 전계서. Backman. p74.

52) 전계서. Taylor. pp.110-1.

53) 박영애. (2006).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1권. p16.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치유의 무용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사도 요한, 성 비투스(St. Vitus), 성 안토니(St. Anthony) 또는 성모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춤에 참여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치유의 무용의 유형은 행렬이 주가 되었는데 교회 초기부터 기도 행렬, 치유 행렬, 탄원 행렬이라고 불리면서 자신들의 불안과 재난 및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려 했었다. 이러한 행렬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성체,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상과 성물들을 앞세우고 행렬하였다. 또한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묘지를 옮길 때에도 춤을 동반한 행렬이 있었는데 이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중 836년 성 비투스의 유골을 코르베이로 옮기는 행렬에서 오그라져 있던 손, 팔 다리, 발이 펴지는 등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성 안토니를 위한 찬양과 무용이 있었으며, 성 마르샬(St. Marial)의 유골을 옮길 때도 춤을 추며 행렬을 했다. 이렇듯 순교자의 유골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병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200년경 우상숭배와 맞서다 순교한 카르타고의 주교 성 키프리안(St. Cyprian)의 묘지에서 행했던 축제와 춤이 질병의 치료, 악마 추방,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가져온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⁵⁴⁾

라) 예배를 위한 무용

기독교의 종파 중 하나인 콥트 교회는 451년 칼케돈(Calcedon)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주교와 초기 종교무용에 관심을 보인 성 킬리루스, 그리고 “무용을 하는 것은 천국에 있어서도 주요한 직분이므로 신자들은 지상에서 이것을 잘 습득해야 한다”⁵⁵⁾고 말하였던 성 바실리우스가 지지했던 알렉산드리아 의식에 기반을 두었다. 악숨(Aksum)의 시온교회의 예배에서는 사제들이

54) 전계서, 박영애. pp.152-6.

55)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p60.

노래를 하면서 원을 이루어 춤을 추면서 움직였다. 시작은 사제들로부터 하였으나 끝날 때쯤에는 회중이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는 에티오피아의 콥트 교회에 많이 남아있다. 이들의 전례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바실리우스가 지지했던 알렉산더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콥트 교회의 식 속에 초기 기독교 무용이 존재했었다.⁵⁶⁾

스페인 세비야의 주교였던 이시도어(Isidor)는 678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종교적 안무로 구성된 전례를 제안하였다. 이 전례는 이슬람 지배하의 중세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던 모자라베(Mozarabe)식으로 거행되었는데 소년 성가대원의 합창 이외에 춤을 추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15세기 이전부터 여섯 명의 소년 성가대원이라는 뜻의 ‘로스 세이스(Los Seises)’라고 불리면서 세비야 성당의 전례에 포함되었다. 로스 세이스는 일 년에 일곱 번 무용을 하였는데 가장 성대한 6월의 성체축일 축제와 12월의 성모 마리아 축일에도 하였으며 캐스터네즈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다.⁵⁷⁾

18세기 영국에서 탄생한 웨이커 교도들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의 신앙관을 바탕으로 한다. 1774년 Ann Lee는 소수의 신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엄격한 규율과 독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위, 아래로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 행위를 보이며 춤을 쳤는데 이를 통해 세속적인 것들을 털어낸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동작들로 Shakers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또한 1820년에는 둥글게 돌며 춤을 추었는데 이는 에스겔서 1장 16절에 나오는 바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원을 만들어 춤을 춘 것은 악으로부터 멀어져 섬을 향해 돌아 서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그림은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다.⁵⁸⁾



그림 3 웨이커 교도 예배실 (New Lebanon, 1873)

56) 전계서. 박영애. pp.193-6.

57) 상계서. pp.163-4.

58) 상계서. pp.221-5.

마) 설교 및 교화를 위한 무용

12-16세기의 종교무용으로 알려진 죽음의 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죄인들에게 겁을 주어 회개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회 수사들이 설교 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교와 함께 추어지기도 하였으며 공동묘지와 교회의 마당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이 죽음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납골당으로부터 등장한다. 그 의상은 노란색으로 해골이 그려져 있었으며 달라붙는 스타일이었다.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거나 죽음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춤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죽음이 비록 기괴한 일이지만 파괴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죽음 너머의 세계로 보내는 사절단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⁵⁹⁾

이렇게 시작된 죽음의 무용은 1347년에서 1373년 동안 지속되던 흑사병이 퍼지게 되면서 변하게 된다. 즉흥적인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고 정해진 패턴과 행렬의 모습이 더 많아졌다. 우스꽝스러운 자세들을 취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흑사병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사그라지자 이 무용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사라지게 되었다.⁶⁰⁾

59) 닥 아담스, 다이안아파스톨로스-카파도나. (2000). 『종교와 무용』. (김명숙, 역). 서울: 당그래. p39.

60) 전개서. 박영애. pp.191-2.

제 3장 최근 기독교 무용의 분류

제 1절 율동 및 몸찬양

한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가 도입된 것은 1913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시작된 조선주일학교와 1922년 평북 서천의 미국 북장로회 제인 사무엘 선교사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주일 학교나 교회 계절학교에서 율동 및 제스처 등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¹⁾ 1928년 여성교육가이면서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활동했던 최활란의 사진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 오락, 찬송가 및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1927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125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축하예배와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⁶²⁾ 이렇게 주일학교를 통해 도입된 율동과 제스처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어린이들의 교육 용도로만 활용되면서 특별한 발표회 또는 절기 행사에서나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1971년 나하나 교수에 의해 창립된 ‘착한 어린이 교육원’에서 율동을 보급하였다. 또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서 구원찬송을 보급하면서 율동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⁶³⁾ 그러는 중에 어린이들 위주로 만든 율동을 청소년층에게까지 보급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협소한 공간의 자리에 앉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동작을 청년층에 강요하다 보니 이를 거리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좁은 공간 탓으로 동작은 점점 손동작 위주로 제한적이게 되었다. 1970년 중반에 이르러서 외국의 복음성가가 몇몇 사역자들과 선교단체에 의해 보급 되면서 이에 맞는 청소년들을 위한 율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⁶⁴⁾

한국 교회의 찬양에 획기적인 전환기는 1980년 말에 등장한 ‘두란노 경배와 찬양’때 부터이다. 1984년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할 당시 Sharon Perry 와 무용단이 찬양 중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이들의 등장

61) 이영호. (1980). 『교회계절학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pp.12-3.

62) 이덕주. (1993).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의 역사, 1921 ~ 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p209.

63) 박연훈. (1995). 『지금도 다윗처럼 춤 출 수 있다』 서울: 프레이즈. p31.

64) 윤초룡. (2002). “한국 기독교 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8.

이후에 무용팀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선교단과 마라나타 교회에서 무용 팀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워십댄스’라는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율동과 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수준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서의 ‘찬무’와 ‘몸찬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⁶⁵⁾

교회 외에서도 찬양 율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1992년 시작된 ‘이애라 목사’의 찬양율동신학원(현재, 이애라 글로벌찬양율동신학)이 있다. 이 단체는 주로 비전공자들로 이뤄진 곳이었으며 교회내의 중요 예배나 행사에 초청되어 찬양을 드렸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분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찬양율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있어 몸찬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몸찬양이라는 용어는 1992년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 의해 찬양율동을 성서적으로 정리한 단어이다. 율동이라는 개념이 교회 유치부 또는 교회학교에서 사용되던 흥미 위주와 행사용 위주의 개념을 새롭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⁶⁶⁾ 몸찬양은 교회의 예배 중에 회중들이 주로 상체 위주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지 않거나 특별히 배우지 않은 회중들에 의해서도 출수 있는 형태로서 공연예술 분야로 보기 보다는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범주로 율동의 한 분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교회의 몸찬양팀은 주로 여성위주로 구성이 되어왔으며 개량된 한국무용의 의상 디자인과 비슷한 하늘하늘한 소재로 된 것이 많다. 몸찬양의 안무 또한 얼핏 보면 한국무용의 동작들과 같은 구성으로 짜이지만 비전공자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연출하였다.

율동은 그 시작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념에 있어 유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의해 비교적 단순한 동작들로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수련회 및 어린이들로 구성된 교회 합창단에서 찬양과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있다. 몸찬양은 교회 예배에서 주로 장년층의 여성 회중들에 의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율동과 몸찬양을 활용하여 평소의 예배에도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교회

65) 송유순. (1991). “기독교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4.

66) 박연훈. (2002). 『몸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p57.

예배의 절기나 특별한 행사에 활용 되는 경향이 높다.

이렇듯 율동과 몸찬양은 주로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몸을 사용하여 올려드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성도들 사이에서 추는 분야이다 보니 특별한 용어의 정리 없이 율동과 몸찬양이라는 용어 외에도 ‘찬무’와 ‘바디워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최근에는 ‘워십댄스’라는 용어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찬무라는 용어는 몸찬양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디워십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몸찬양, 찬무의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다른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통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것 같다.

제 2절 수어무용

과거 수화찬양 또는 수화무용이라 부르던 용어를 이제는 ‘수어무용’이라고 지칭해서 부른다. 이는 수화라는 용어 대신 또 하나의 언어라는 뜻으로 ‘수어’ 지칭하기로 한국수화언어법이 변경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수화’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었으나 공식적으로 ‘수어’로 결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한국수어’로 국어와 함께 한국의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이에 맞춰 과거 수화무용으로 부르던 것을 수어무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작된 농인교육은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구한말에 시작된 농인교육은 일제 강점기에는 오늘날 ‘국립서울농학교’와 ‘국립서울맹학교’의 모체가 되는 ‘제생원’이라는 곳이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농인들을 위한 종교 활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개신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 평양의 광명맹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박윤삼 목사가 1946년 10월, 영락교회 내에 한국 최초의 농인을 위한 기독교 선교기관인 ‘농아부’를 설립하였다. 영락교회 내의 기관으로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 ‘영락농인교회’로

독립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농인교회로 자리 잡았다. 또한 1964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미국인 선교사인 Douglas Kramer는 경기도 평택에 농인 아동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였다. 1974년 McSin Straw Britch 선교사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최성만 목사와 함께 ‘에바다농학교’와 ‘에바다농아원’을 설립하였고 전국에 30여개에 이르는 에바다농인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같은 해에 영락교회 농인부를 나온 박집원 집사에 의해 농인감리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호주의 농학교 교사였던 Neville Muir 선교사가 1978년 한국에 국제특수농아선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회 소속의 교회를 15개나 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에 농인들을 위한 교회가 100 곳이 넘게 되었다.⁶⁷⁾

농인들의 문화도 함께 발전하였는데 수화예술 분야로 수화노래, 수화무용, 무용, 미술, 연극, 수화 시, 농 유머 등이 있다. 수화노래는 농인교회에서 예배 중 찬송가를 부를 때 처음 시도 되었다. 수화무용은 수화노래를 할 때, 수화동작에 맞는 의미의 무용동작을 구사하며 극적인 요소를 더해 수화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활용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대구 소리예술단과 부산 배화수화무용부가 있다. 다음의 표는 부산 배화학교 수화무용부의 창작과 지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⁶⁸⁾

[표 1] 수화무용의 창작과 지도과정

단계	활동내용	지도요점
1.기획단계	▪ 전달 메시지 정하기 ▪ 메시지에 적합한 음악 선곡하기 ▪ 공연시나리오 작성하기 ▪ 음악 믹싱 작업하기	수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결정하고, 공연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의미파악 단계	▪ 가사의 뜻 이해하기 ▪ 가사내용의 느낌 말하기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파악하기	가사의 뜻과 메시지를 파악하고 노래의 의미를 내면화시킨다.

67) 안영희. (2003). “한국 농인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46.

68)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권 2호. p100-1.

3.리듬학습 단계	■ 음악적 리듬감과 박자 지각하기 ■ 리듬 익히기	노래의 리듬감을 익혀 역동적으로 수화를 표현하다.
4.수화전환 단계	■ 수화로 표현하기 ■ 자연수화로 전환하기 ■ 수화위치 설정, 양손 공간 활용하기	Phrase내에서 자연수화를 통해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도록 한다.
5.음감표현 단계	■ 리듬에 맞게 수화의 강약 조절하기 ■ 리듬에 맞게 수화의 속도 조절하기 ■ 리듬에 맞게 수화의 길이 조절하기	수화의 크기, 강약, 속도 등을 체계화하여 수화를 통해 음감을 표현한다.
6.비수지 언어와 통합단계	■ 시선, 눈, 안면근육, 고개, 머리 턱의 움직임 ■ 몸의 동작 표현하기 ■ 팔의 높낮이 설정하기	비수지신호의 사용은 억양, 강세, 리듬에 해당되며 느낌과 감정을 살리는 중요한 과정이다.
7.수화안무 단계	■ 수화에 기초한 무용동작 만들기 ■ 수화와 함께 무용동작 익히기	수화의 뜻에 적합한 의미 있는 몸동작을 만드는 과정으로 수화노래에 극적인 요소를 더한다.
8.무용통합 단계	■ 수화와 무용동작 연결하기 ■ 리듬에 맞춰 통합하기	자연수화에 언어적 리듬을 살려 작품성을 살리는 과정이다.
9.감정승화 단계	■ 감정 이입하기 ■ 표현능력 배양하기	수화에 감정을 이입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회에서 시작된 수화노래는 여러 농아인 단체들에 의해 수화제나 수화경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런 축제를 통해 수화를 배우는 청인들에게 수화를 확대 보급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청인과 농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수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사전달에만 초점을 맞춰 의미 전달에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 청인 중심의 수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농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농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찾기가 어려우며 시선,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활용하지 못해 감정 표현이 서툴러 내면의 정서를 다루

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노래에 무용의 예술성을 가미한 독창적인 수화무용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왔다.⁶⁹⁾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날에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창작수어뮤지컬을 공연하는 극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로 13회가 되는 수어문화제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에 의해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이곳에서 수어를 위한 무용 공연이 있기도 하였다.

제 3절 공연 예술 형태의 무용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주어졌던 춤은 사제들 또는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연습해서 쫓던 공연 형식이 아닌 원을 만들어 돌거나 행렬을 하거나 깡충깡충 뛰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많았다.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은 어떤 주제를 설정하여 안무하고 예배 때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 기독교 예배에서 무용이 순수 공연 예술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부터이다.⁷⁰⁾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 무용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현대무용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Ruth St. Dennis, 1880-1968)는 그녀의 50세 이후의 시간을 기독교 무용에 심취하여 보냈다. 그녀가 뉴욕에 세운 정신예술 협회(Society of Spritual)와 신성무용교회(Church of Divine Dance)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그녀가 이끄는 리듬 선교단(Rythm Choir)은 대형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데니스의 말년에 추구했었던 것은 예배 중에 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영적인 예술 세계를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그러한 그녀의 작품의 특징은 첫째, 기도로 작품의 주제를 정하고, 둘째, 무용수들의 정신에 의지하지 않고 성서구절의 핵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⁷¹⁾

세인트 데니스의 춤에 감명을 받아 무용을 시작한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 1893-1991)은 데니스와 그녀의 배우자 테드 쏜(Ted Shawn)이 운영하던 데니쇼운(Denishawn)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인 「아팔래치아의 봄(Appalachian Spring)」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프로그램에 적혀 있는 묘사에서 ‘마치 에덴동산과 같은’이라

69) 전개논문. 정진영. p102.

70) 전개서. 닥 아담스 외. p235.

71) 정의숙, 반주은. (2000). 『현대무용 인물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p94.

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⁷²⁾ 또한 「원시의 신비(Primitive Mysteries)」에서 성모마리아에 대해 다루었는데 성경속의 마리아에 대해서라기보다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의 어머니로서 숭배하는 감각을 다루었다. 「유디트(Judith)」라는 작품에서는 모세의 출애굽을 소재로 유디트라는 여성의 등장시켜 여성 관점에서 다루었다.⁷³⁾ 이렇듯 그라함은 성경에서 소재 또는 주제를 활용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도리스 험프리(Doris Humphrey, 1895-1958) 역시 데니쇼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녀는 움직임에 대한 이론을 일상적인 활동 즉, 호흡, 서있기, 걷기, 달리기, 건너뛰기, 상승, 낙하와 같은 동작에 기초를 두었다. 그녀는 “일상적인 인간의 행동이란 단순히 보이지만 인간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는 드라마를 내포하여 자연적인 움직임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힘”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⁷⁴⁾ 이러한 그녀의 사상은 그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셰이커 교도들(The Shakers)’의 움직임에도 나타나있다. 험프리는 종교적인 문화에 바탕을 둔 춤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는 셰이커 교도들의 춤에 정의 할 수 없는 형식과 몸짓, 음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⁷⁵⁾ 이 작품은 율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평가들과 관객들은 ‘Shakerism’⁷⁶⁾의 감정 묘사에 찬사를 보냈다. 1930년 작품이 탄생했을 당시, 실제로 셰이커 교도들의 쇠퇴로 실제 그들의 춤을 볼 수 없었음에도 거의 완벽하게 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⁷⁷⁾

험프리와 와이드먼(Charis Weidman, 1901-1975)의 영향을 받은 호세 리몽(Jose Limon, 1908-1972)은 그 당시 남성 무용가로서는 최고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의 작품 「배반자(The traitor)」는 샬롬 아시(Sholem Ach)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책의 부분을 인용하여 안무하였는데, 유다로부터 배반당한

72) 전계서. 박영애. p230.

73) 전계서. 닥 아담스 외. pp. 206-9.

74) 전계서. 정의숙 외. p134.

75) Hutchinson, A. (1978). 『Doris Humphrey: The Collected Works Vol. 1. Dance Notation』. New York: Bureau Press. p67.

76) 셰이커 교도 또는 셰이커 교의 교리를 의미한다.

77) Youngerman, S. (1978). “The Shakers Based in Analysis”. 『CORD』. (Annual IX). p94.

예수에 대해 마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마임과 갈등, 괴로움, 죽음을 표현하였다.⁷⁸⁾ 이 작품 외에도 성경의 전도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때가 있다(There is a Time)」이라는 작품에서 한정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의 상징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⁷⁹⁾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엘빈 에일리(Alvin Ailey, 1931-1989)는 그의 어려움을 신앙생활을 통해 이겨냈으며 교회 복음성가에 익숙해지고 후에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⁸⁰⁾ 29세 때 만든 작품 「계시(Revelation)」은 흑인 노예로서 받았던 고통을 신앙을 통해 위로 받고 서로 의지하여 흑인들에게 정신적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주제이다.⁸¹⁾

이렇듯 위에서 언급된 무용가들은 당대에 유명한 무용수거나 안무가였다. 그런 무용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거나 성경을 소재로 하여 그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작품성 있는 무용극을 한국에서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뮤지컬을 비롯한 무용극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뮤지컬로는 「Jesus Christ Superstar」, 「Godspell」이 있고, 현대 무용극으로 대표적인 육완순의 「Superstar Jesus Christ」가 있다. 현대무용 「Superstar Jesus Christ」의 경우 초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연 되었으며 대형 교회에도 초청받아 올려지기도 하였다.

1980년에 창단된 조승미발레단은 800여 회에 달하는 국내외 공연을 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 되었다. 이러한 발레단에서 기독교 창작 작품인 「모세의 기적(1989)」, 「삼손과 데릴라(1992)」 등을 안무하였으며 대중화에도 성공하였다. 이후에 호산나선교발레단이 생겼으며, 1985년 박경숙이 이끄는 하사딤 선교발레단과 1989년 박순자가 이끄는 한국선교무용단이 생겨났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공연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공연에 성서적인 소재를 채택하기도 하였

78) 최윤실. (2010). “종교성이 내재된 무용작품에 의한 기독교무용발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4.

79) 전계서. 박영애. p230.

80) 전계서. 정의숙 외. p211.

81)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 -Alvin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6.

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적용하여 삶의 애환이나 기쁨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독자적으로 장애인 행사 또는 교도소 등의 초청을 받아 공연 예술로 선교활동을 하였다. 또한 교회 또는 기독교 학교의 채플 등에 초청받아 예배 중에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⁸²⁾

발레단체로 또한 주목할 곳은 1992년 신은경에 의해 세워진 이화여대발레 앙상블이다. 「돌아온 탕자」, 「읍」, 「요나」, 「야곱과 에서」, 「룻」 등 성서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수도 없이 올렸다. 2003년에 시작한 「메시아」는 올해로 15번째 정기공연을 맞기도 하였으며, 2012년 초연된 「시편교향곡」이라는 작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간구, 소망과 기도를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발레 선교단체의 활약에 이어 박순자가 이끄는 한국선교무용단(현 한국선교무용예술원 Argon Dance Association)은 한국무용을 주로 활용하는 단체이다. 박순자는 한국의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 많다. 살풀이 및 승무도 선교무용으로 발전시켰는데 승무의 수평으로 펼쳐진 장삼은 그 고요한 이미지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살풀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승화시켜 작품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화관무, 부채춤, 소고춤, 탈춤을 찬송가와 접목시켜 활용하였다.⁸³⁾

현대무용을 주로 하는 무용선교단체도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1994년에 세워진 육완순의 술람미선교무용단(현 명성현대무용단)이 있다. 1973년 부활절 예배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초연된 육완순의 「Superstar Jesus Christ」는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를 본 후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각색하고 보완하여 성경 중심의 무용극을 만들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300여회 이상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교회 뿐 아니라 기독교 공연 예술로서 활용되는 현대무용을 보여 주었다.⁸⁴⁾

또한 1995년 전유오에 의해 시작된 물맷돌 무용단은 모두 무용을 전공한

82) 전개논문. 윤초롱. pp.19-20.

83) 임혜영. (2015).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84) 함예원. (2014). “공연작품 비교 분석을 통한 기독교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5.

자들로 구성된 단체였으며 다양한 무용극을 제작하였고 창단 이래 200회 넘는 공연을 하였다. 채플 시간에 무용예배를 올리기도 하였고 비디오 문화선교 등을 통해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문둥병자 이야기」, 「Go」, 「Vision」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더 이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⁸⁵⁾ 김명환 목사에 의해 2002년 세워진 OMD(오직예수월드미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강생들을 매 해 두 번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 과목으로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힙합 등 다양한 무용을 가르친다.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들과 그렇지 않은 수강생들을 비롯한 비전공자들이 모두 매 해 3월경에 열리는 선교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선교축제는 뮤지컬 스타일로 약 2시간 정도 되는 길이로 해마다 주제를 정해 C.C.M.에 맞춰 작품을 준비하여 올해로 14회째 공연을 하였다.

2015년에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에 기독교무용 전공이 신설되었다. 전공과목으로 크리스천 무용동작치료, 무용과 영성, 크리스천 무용창작, 워십댄스, 크리스천 뮤지컬 및 교회무용 지도법 등 다양한 과정을 공부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독교무용가가 양성되고 있다. 또한 ‘한성헤세드(Hansung Hesed)’라는 이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CDFK(Christian Dance Fellowship Korea)의 Festival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정기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기독교 뮤지컬이 창작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리아 마리아」를 들 수가 있으며 이는 2006년에는 브로드웨이에 초청받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변형하여 낭독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로 등 중소규모의 극장에서 공연된 「바울」이라는 뮤지컬도 있었다. 또한 ‘문화행동 아트트리’라는 곳은 문화선교 단체로 배우들이 합숙하면서 자체 제작한 창작 뮤지컬을 교회 등에서 올리고 티켓은 관객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Still」, 요한복음을 그래도 뮤지컬로 옮겨놓은 「Gospel」, 요나서와 누가복음 속 탕자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ABBA」,

85)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The Book」 및 요한계시록과 아가서를 결합한 예수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야기인 「요한계시록」 등이 있다.

이러한 뮤지컬의 바람은 교회 내의 비전문인 성도들에게도 불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의 절기 예배에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한 대형 교회에서는 전문 뮤지컬 팀을 초청하여 올리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제작된 연세중앙교회의 「그 날(The Day)」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다른 교회에서 그대로 또는 각색하여 올리기도 하고 있다.

이렇듯 무용은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형태로 교회의 특별 예배 때 활용되고 있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외부 전문 공연 팀을 초청하여 올리기도 하고 또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skit 드라마 속에 무용을 같이 활용하여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무용의 교회 내 활용이 보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절 C.C.D. (Christian Contemporary Dance)

C.C.D.는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에 맞춰 추는 춤을 말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청년층에 의해 확산되었다. Contemporary의 사전적 정의는 ‘동시대적의 그 당시’이며 현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C.C.D.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 된 것은 2000년 기독교 사이트인 갓피플(www.godpeople.com)에서였다. 이 코너에 ‘P.K.(Promise Keeper)’라는 팀의 현대적 감각의 댄스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홀리웨이브(Holy Wave), DMT(Dream Mission Team), 미션 드림(Mission Dream) 팀의 동영상도 올려가게 되었고⁸⁶⁾ C.C.D & 워십댄스라는 코너로 현재 마흔한 개의 팀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먼저 P.K.는 2000년 7월 창단되었는데 C.C.D.의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86) 전개논문. 최재윤. p78.

아니다. 리더인 장광우를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의 혼성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노방전도, 고아원 또는 병원에서의 사역을 비롯하여 선교단체, 기독교 무용 교육기관 및 교회에서 C.C.D.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팀웍’으로 “사역자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K.의 훈련방침은 매월 한 번씩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와 기도를 하고 큐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연습하기 전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다. 또한 댄스 테크닉의 훈련도 매주 3번 이상 리더의 주도로 이뤄진다.⁸⁷⁾

2001년 5월에 창단된 홀리웨이브 역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공연 사역도 활발히 해 왔다. 이 팀에서 주목 할 점은 다른 C.C.D.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연합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 초등부 위십댄스팀인 ‘리틀웨이브’, 치유하는 교회의 4, 50대 남성 댄스팀인 ‘모세’ 및 힙합 전문 사역 팀인 ‘Mentor’와 ‘홀리원’이라는 연합집회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 역시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모여 연습을 하며 공연을 예배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⁸⁸⁾ 현재 홀리웨이브는 홍대에서 ‘G Dance Holywave Dance Compan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힙합 전문 팀인 Mentor는 1999년 영일교회에서 창단되었다. 이 팀의 특징은 유명한 가수들의 안무를 했었던 팀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닉적으로 일반 힙합팀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있다.⁸⁹⁾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C.C.D.의 탄생으로 인해 교회의 청년대학부 및 중고등부에서 많이 활용되어 확산되어 왔다. 이는 감상 형태의 춤으로서 회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상체 위주의 율동이나 몸찬양과 같은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에게 현대 음악의 장르와 비슷한 형태의 음악에 맞춰 요즈음의 힙합, 재즈댄스 및 방송 댄스 스타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87) 전계논문. 최재윤. p98.

88) 상계논문. p100.

89) 상계논문. p107.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교회내의 청년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적합한 장르의 수용으로 교회의 예배는 더 풍성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5절 매체를 이용한 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예배에서나 기독교 무용 전반에 걸쳐 탬버린, 깃발 또는 기치(배너)를 이용하여 춤을 추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춤을 출 때 이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보급하기 위한 각 해외의 워십댄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샵도 많이 있다.

성경에서 탬버린을 활용하여 춤을 추면서 기쁨을 증대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창세기 31장 27절과 출애굽기 15장 30절에서 기록되어 있다.⁹⁰⁾ 이 외에도 성경에서 탬버린(소고)을 사용하여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삿 11:34, 삼상 18:6, 시 68:25, 81:2, 149:3, 150:4, 사 5:12, 24:8, 30:32, 렘 31:4, 욥 21:12). 탬버린은 엄지손가락을 가죽 부분에 대고 가장자리를 감싸고 춤을 추며, 리본을 매달고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리본의 색상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깃발과 기치를 사용하여 춤을 추는 이유는 이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깃발이 사용된 성경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⁹¹⁾

시 20: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 60: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넛시라 하고⁹²⁾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렘 51: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

90) Bensely, Marie. (2002). 『매체를 활용한 크리스천 댄스』. (박영애, 역). 서울: 프레이즈. p12.

91)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92) 영어 성경 NIV에서는 승리를 뜻하는 Nissi에 Banner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it The LORD is my Banner.

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렘 51:27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사 5: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 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31:9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와 붙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위의 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깃발 및 기치(배너)의 문맥을 살펴보면 승리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승리의 표징으로 깃발과 기치를 사용하였다. 춤을 출 때 깃발과 기치(배너)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 어느 상황에서나 승리하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아래의 표는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색상의 의미를 정리해 놓은 표이다. 각 색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여 탬버린의 리본, 깃발 및 기치를 사용하여 춤을 출 때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은 ICDF(International Christian Dance Fellowship)에서 깃발을 이용하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표2] 성경에서 색상의 의미⁹³⁾

빨간색	희생, 대속
다홍색	피, 구속, 전쟁
진홍색	속죄, 구원 희생, 구속의 능력
노란색	능력이 풍부함
녹색	생명, 영적 성장, 영생, 번영, 성장, 충분함
파란색	권위, 용기, 용맹, 성령님, 하늘의 능력
주황색	불, 오순절의 능력, 정화, 정결, 시험
자주색	왕족, 왕위, 부, 권세

보라색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무한한 능력
검은색	죄, 죽음, 기근
흰색	순수, 의, 거룩
갈색	육신, 세속적인
회색	신실, 지혜
황금색	영광, 신성함, 존엄
은색	구원, 회복
분홍색	사랑, 연합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림 4 깃발을 이용한 춤- ICDF⁹⁴⁾



그림 5 깃발을 이용한 춤- ICDF⁹⁵⁾

해외의 기독교 문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춤을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주 추고 있다. 이와 관련한 워크샵이나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예배와 집회 중에도 깃발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하고 회중들이 깃발을 들고 행렬로 예배당 안을 돌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93) 타라 길야드. (2012). 『예언적 춤』. (천슬기, 역). 서울: 유다의 사자. p85-6.

94)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95)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제 4장 다섯 교회 예배무용의 유형 및 특성

제 1절 다섯 교회의 일반적 특성

한국에서 예배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교회 중 아래의 다섯 곳을 선정하여 각 교회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 리더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각 교회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3] 5개 교회의 기본 정보

	교회 설립년도	교회 소속 교단	재적인원	팀리더 정보	무용단 존재 기간
A교회	1980년	장로교 통합	10만 명	현대무용 전공자	약 10년
B교회	1948년	장로교 통합	10만 명	비전공자	약 20년
C교회	1969년	장로교 통합	1만 명	전공자	약 16년
D교회	2007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900 명	비전공자	약 10년
E교회	2013년	독립교단	70명	비전공자	약 5년

1)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1) A 교회

A 교회는 비교적 문화 예술 분야에 열려있는 교회로 무용뿐 아니라 성악 및 기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 교회의 무용예배는 공연 예술적인 형태로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특별한 순서로 비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절기예배나 특별 행사시에는 주일 예배에도 활용되고 있다.

(2) B 교회

B 교회는 각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의 찬양팀이 개별로 존재하며 찬무와 함께 드리는 찬양팀은 주일 저녁예배 찬양팀과 금요일예배 찬양

팀이다. 찬무는 성도들도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율동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또한 이 교회에는 워십댄스팀도 있는데 이 팀은 주로 교회 내외의 사역에 연합으로 섬기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 다른 부서의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외부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도 초청되기도 한다.

(3) C 교회

C 교회에는 몸찬양팀(이 교회는 무용으로 섬기는 모든 팀을 이와 같이 지칭함)이 4개의 장년부 여성 팀, 1개의 4-6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있는 팀 및 1개의 청년 부 팀이 있어 총 6개의 팀이 있다. 장년부의 몸찬양팀은 주로 절기예배와 교회주요 행사 때 무용공연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부 몸찬양팀은 매주일 청년예배의 찬양시간에 팀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중들도 함께 따라 하기도 한다. 이 팀 역시 찬양시간에는 율동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동작으로 회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절기예배와 주요 행사시에는 공연의 성격을 띤 형태로 준비하여 올리고 있으며, 이는 청년 예배뿐 아니라 장년예배 즉 주일 본 예배 때도 참여하고 있다.

(4) D 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인 D 교회는 별도의 무용 팀이 있지는 않다.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회중들이 예배당 앞이나 혹은 자리에서 직접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만 찬양팀 소속의 율동을 담당하는 몇몇의 팀원들에 의해 찬양 중 간단한 동작을 집단적으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경우도 있다.

(5) E 교회

독립교단 소속의 E 교회는 주일 본 예배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고 있다. 1인 무용 팀이며 무용수 혼자서 40분 정도의 찬양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고 있다.

A, B, C 교회는 대형교회로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

합 측 소속이며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예배, 특히 주일 본 예배의 절차와 순서에 있어 교단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 저녁 찬양예배, 수요, 금요 철야예배 및 청년 예배는 유연성 있게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 와 E 교회는 형식과 절차는 있으나 다른 교회에 비해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표4] 5교회의 예배무용 형태

A교회	공연형태.
B교회	찬양 시 찬무(율동)팀 및 별도의 워십댄스팀.
C교회	총 6개의 장년부 및 청년부 몸찬양팀. 청년부: 찬양 시 율동 및 공연형태.
D교회	회중들의 자유로운 춤.
E교회	찬양 중 무용수의 즉흥무용.

2)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정보

(1) A 교회

A 교회의 무용 팀은 두 개인데 현대무용단과 한국무용단이다. 현대무용단은 2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주요 멤버는 15명 정도이다. 이 중 절반이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한국무용단은 대부분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현대무용단을 이끄는 대표리더는 일반무용계에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사람이며 작품의 기획과 안무의 검토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밑에 이 팀을 이끄는 리더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역시 현대무용 전공자이다. 이 무용팀의 리더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한 심령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싶다”라는 기도제목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치유하는 춤추는 사역자가 되어라”라는 감동을 받고 선교무용에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 B 교회

B 교회의 무용 팀은 찬무팀 2개, 워십댄스팀 1개가 있다. 저녁 찬양예배 찬무팀은 총 두 명, 금요철야예배 찬무팀은 5명, 워십댄스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비전공자이다. 워십댄스팀 리더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의 찬무팀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약 10년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하고자 하는 의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셨다고 하였다.

(3) C 교회

C 교회에 총 6개의 팀 중 본 연구에서는 청년부의 팀을 다루었다. 이 팀의 리더는 무용전공자로 이 교회에서 중학교 때부터 워십 댄스를 하였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기독교 무용을 본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리더는 학사와 석사를 무용을 전공하였으며 팀의 안무를 담당하는 한 명도 전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의 팀원들은 모두 비전공자들이다.

(4) D 교회

D 교회는 무용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찬양팀의 리더는 목회자로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구성이며 예배 팀 리더 역시 이끌면서 춤을 추기도 한다. 예배 팀 소속의 약 4명의 율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찬양 1~2곡의 일부분에 회중들이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율동 준비하기도 한다. 이 교회에서 찬양 중에 자유로운 춤을 추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윗 왕과 미리엄이 춤을 추었듯 그렇게 추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5) E 교회

E 교회는 무용팀이 있기는 하지만 팀 리더 혼자 존재하는 1인 팀이다. 이 팀의 리더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공부한 전공자는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선교단체의 워십댄스 아카데미와 개인 레슨으로 무용을 공부한 사람이다.

또한 현재 식사과정으로 기독교무용을 전공하고 있다. 이 리더 역시 성경적 근거로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중들이 은혜를 받으면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찬양 하듯 몸짓으로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춤추며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록된 곳은 없고 오히려 권장하였다고 했다.

[표5] 예배무용팀의 구성 및 리더의 마인드

	예배무용팀 구성	리더의 예배무용에 대한 마인드
A교회	전체 26명. 주요 멤버 15명 (전공자 8명, 비전공자 7명)	일반무용이 아닌 ‘영혼을 치유하는 무용사역자’가 되는 것이 비전임.
B교회	워십댄스팀 7명(비전공자) 저녁예배 찬무팀 2명 (비전공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함.
C교회	청년부 워십댄스팀 8명 (전공자 2명, 비전공자 6명)	중학교부터 교회의 워십댄스팀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비전으로 받아드리게 되었음.
D교회	무용 팀 없음.	찬양팀 리더가 목회자로 춤추며 찬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E교회	1인 무용수의 팀(기독교무용 식사과정).	성경에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며 받은 감동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제 2절 예배무용의 운영현황

1) 예배무용의 도입배경

(1) A 교회

A 교회 현대무용단의 대표리더가 약 25년 전에 교회 밖에서 기독교무용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리더의 한 무용작품을 이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보고 감명을 받아 무용작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현대무용단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2008년 당시 교회의 현대무

용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대표리더를 모셔오게 되어 현대무용단이 창설되었다. 담임 목회자가 예술 분야에 열려있고 이를 통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라 무용단이 설립될 수 있었다.

(2) B 교회

B 교회는 약 20년 전쯤에 이곳에서 시무하고 있던 한 전도사가 외부의 찬양율동 단체에서 이를 배워옴으로써 도입하게 되었다. 배워온 찬양율동을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에 도입시켜 활용하게 하였다. 이 교회 역시 교회의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예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C 교회

C 교회에서 예배의 특별순서 시간 공연 형태로 올려 진 것은 15년 이상 되었으며 청년 예배시간에 찬양 함께 율동으로 하게 된 것은 약 6년 정도 되었다. 이 교회 역시 담임 목회자가 찬양시간에 몸찬양을 함께 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몸찬양팀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예배 안에도 도입되기도 하게 된 것이다.

(4) D 교회

D 교회는 개척 1년 후인 2008년에 담임 목사가 미국의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묶이면 성도들이 묶인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 본인이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이때 춤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모두 나와 춤추라고 권면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찬양 중에 회중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연구를 교회 차원에서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내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연구를 통해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을 경험한다.”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BS에서 춤으로 치유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춤으로 암을 치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

지만 육적인 부분에서 열리지 않으면 혼의 부분이 열리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영의 부분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춤이 육의 부분을 열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예배 중에 알게 되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청소년층인데 대부분이 마음이 완고한 상태이다 보니 강도를 단계별로 하여 춤을 추도록 인도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5) E 교회

E 교회는 2013년 1월에 개척되었는데 4월부터 예배의 찬양시간에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찬양시간의 부분에서만 춤을 추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몇 달이 되지 않아 약 40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의 전곡에 맞춰 솔로로 춤을 추게 되었다.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문화선교단체에서 10년에서 20년 사역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분야에 열려있었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었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핵심 멤버이다 보니 미국의 예배 스타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열려있는 예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배 찬양 중에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무용수 혹은 그렇지 않은 회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즉흥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또한 예배 중에 받은 감동을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자유롭게 다양한 예술 형태로 표현하는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 개척을 한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즉흥무용을 도입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보면 세부적인 도입 경로는 상이하지만 다섯 교회 모두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 또는 교회 사역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활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C 교회는 한국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 또는 사역자의 추진력에 의해 예배 안에서 무용의 도입을 꽤 오래전부터 허용 및 권장하여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예배무용의 운영형태

(1) A 교회

A 교회는 무용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에 열려있다. 무용도 절기예배 뿐 아니라 특별예배 및 무용이 필요한 예배에 자주 서는 편이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절기예배에는 모두 공연을 하고 교회 창립기념예배에도 한다. 저녁예배는 찬양예배로 주로 드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기존 예배 대비 말씀을 간단히 하신다. 대신 성악을 전공한 성도들이 말씀의 주제에 맞게 찬양을 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한다. 현대무용단 또한 한 파트를 담당하여 춤을 추고 한국무용단도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뮤지컬과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무용단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레파토리 중 하나를 올릴 때도 있으며 말씀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서 올릴 때도 있다.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의 단원들은 전공자가 50% 이상 되기는 하지만 팀원 모두 자원하여 섬기기 때문에 모두 무보수로 하고 있다. 교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나 특별 순서가 있을 때 교회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면 그것에 맞춰 지불되고 있다.

(2) B 교회

B 교회의 매 주일 저녁예배에 약 20-25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에 찬무로 함께 하고 있다. 찬양 시간 전곡을 찬무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첫 곡과 마지막 찬양은 제외하고 올린다. 금요철야예배의 찬무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워십댄스팀은 주로 교회 내 다른 부서 및 사역 팀에서 초청해서 하게 되는데 주로 전도단, 장년국, 외국인 선교국의 초청을 받게 된다. 이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들을 위해 해마다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실버대학팀에도 이 팀이 메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춤추며 예배한다. 또 다른 훈련학교 과정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면 워십댄스팀이 함께 가서 기간 내내 춤추며 예배드린다. 또한 다른 교회의 새 가족 초청 잔치에도 초청받아 3, 40분 정도 되는 찬양시간에 6, 7곡에 맞춰 춤추기도 하

고 있다. 이 교회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사역을 나갔다. 그 외에 미자립 교회에서도 초청받아 섬기기도 하였으며 외부 사역이 들어오는 대로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 팀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역한 횟수가 10회 정도 된다.

교회에서 매년 지원되는 재정이 있다. 년 초에 한 해에 필요한 액수를 받고 매달 필요한 금액을 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장년부 소속인 워십댄스팀은 자비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회의 예산을 교육국 즉 아이들과 청소년부에게로 증가시킬 계획 때문이다. 교회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 워십댄스팀에서 진행하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레슨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들의 사례비로 사용된다. 그 외의 의상 비는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20년간 활동해 오면서 쌓인 의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에서 공급되는 재정 이외에 발생하는 식사비, 간식비 등은 자비량으로 해결하고 있다.

(3) C 교회

C 교회는 청년예배의 찬양시간에 율동으로 함께 하는데 모든 곡에 참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춤을 추지 않을 때도 앞에 찬양팀과 같이 서서 예배드린다. 찬양 시간에 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격주로 진행된다. 연습 기간이 필요한 공연 형태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다. 청년예배 외에도 장년예배(주일 본 예배 등)에도 초청받아 올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거의 절기예배와 특별행사 때이다. 이 외에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및 부흥회 기간에 특별순서에 올리기도 하는데 성가대와 분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 1분기에 성가대가 했다면 2분기에는 청년부 워십댄스팀이 맡게 된다. 찬양팀과 같이 몸찬양팀이 회중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한다.

현재 1년에 100만원의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 3년 전까지는 전무했었기 때문에 팀원들로부터 매월 5천 원씩 걷어 활동해왔다. 현 리더가 팀장이 된 3년 전부터 매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증가시켜 받고 있다. 팀 단체복까지 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100만원으로 안무를 담당

하고 있는 팀원에게 50% 이상을 지불하고 나머지로 간식비 및 소품비로 소비한다. 작품에 필요한 의상 비는 자비량으로 해결하고 있다.

(4) D 교회

D 교회는 매 주일 드려지는 두 번의 본 예배에 찬양팀과 회중들이 모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시간이 약 한 시간 반 정도 된다. 과거에는 시계를 가리고 6, 7시간씩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화관에 가서도 2시간 넘게 할애하는데 예배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담임 목회자의 철학 때문이었다. 현재 예배도 찬양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드리고 있다.

주일 예배 이외에 절기예배나 특별 행사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회중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무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구성을 기획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 찬양팀은 또 외부사역을 많이 나가는 편인데 몇몇 교회들에 초청되어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갱신’의 성격을 띠고 인도하고 있다. 이 팀이 나가는 외부 교회 중에 외국 예배 형태에 영향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 교회는 무용수가 찬양 중에 앞에서 즉흥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춤을 추면 회중들이 따라 한다. 그 교회에서 D 교회의 찬양팀이 가서 ‘춤의 신학’을 예배학교 과정으로 두 달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워십댄스팀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예배당의 공간적 한계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워십댄스팀은 무용수 본인들만 춤을 추기보다는 회중들도 함께 출 수 있도록 이끄는 팀이다.

(5) E 교회

E 교회는 매 주일 한 번의 본 예배의 찬양 시간에 4, 50분 정도 무용수 혼자 즉흥 무용을 한다. 기본적으로 주일예배를 섬기며 그 외에 국내외 선교를 갈 때는 작품을 준비해서 공연 형태로 올린다. 그러나 이때도 팀원이 없기 때

문에 독무로 춤을 춘다. 교회에서 무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은 없다. 교회의 회중수도 적어 재정현황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용에 필요한 소품 등이 있다면 교회의 재정으로 구비하여 사용한다.

[표6]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및 재정지원 여부

	예배무용팀의 사역유형	예배무용팀의 재정지원 여부
A교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성가대, 교회학교 댄스 팀과 연합으로 뮤지컬 형식의 공연.	정기적인 재정 지원은 없음. 필요시 예산을 청구하면 지급됨.
B교회	매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의 찬무. 매 금요 철야예배 찬양시간의 찬무. 워십댄스팀의 교회 내 부서의 초청 및 외부 교회에서의 초청 사역.	연초에 1년 예산이 책정되고 그 안 에서 필요 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 장년 부 소속의 재정은 감소하고 유년 부, 청소년부의 재정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C교회	격주로 청년부 예배 찬양시간에 회 중들도 따라하는 동작들로 구성함. 공연형태는 두 달에 한번 하고 있 음. 장년예배의 특별 행사에도 초청 되어 하고 있음.	3년 전까지 재정이 없었음. 3년 전부터 예산을 늘려가고 있음.
D교회	두 번의 주일 본 예배에 춤을 추며 예배함. (찬양시간이 1시간 30분) 절기예배 등 특별행사에는 프로젝 트팀의 형식으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준비함. 찬양팀의 외부 사역이 많음.	현재 무용 팀이 없어 이를 위한 재 정이 있지는 않음.
E교회	주일 한 번의 본 예배에 무용수 혼 자 4, 50분의 찬양시간 모든 곡에 맞춰 춤. 교회의 국내외 선교 시 작품을 준 비하여 이 역시 독무로 공연을 함.	1인 팀이므로 특별한 재정적 지원 은 없음. 소품 구매 등 필요시 교회 재정이 지원됨.

3)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1) A 교회

A 교회 현대무용단의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이다. 팀원들이 거의 직장인이다 보니 모여서 바로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을 먹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연습은 현대무용의 워업 동작을 시작으로 보유하고 있는 레파토리를 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나가기도 한다. 새로운 작품을 할 때의 안무는 대표리더가 안무를 한다. 화요일 모임에는 주로 무용의 테크닉적인 훈련을 한다.

영적인 훈련은 보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별도의 영성훈련은 없으며 이 무용단이 소속되어있는 교회 기관의 담당 목회자가 매월 2회 방문하여 기도회를 인도한다. 또한 팀을 맡고 있는 단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도로 기도회를 갖는다. 이 팀의 영성훈련은 주로 기도회를 갖는 형태이다.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의 찬무를 위한 연습은 이미 무용수들이 그 동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연습을 해오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만나 동작을 맞춰본다. 찬양 콘티는 약 1주일 전에 찬양팀으로부터 전달받아 연습한다.

워십댄스팀은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연습한다. 월요일은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고, 목요일은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는데 모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다.

영적인 훈련은 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고 연습 시간 30분 전에 와서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는 정도이나. 그러나 팀원 각자 수요일예배 및 금요일야배 등 주중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영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담력이 생겨서 회중들 앞에서도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3) C 교회

C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으며 10

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주일 찬양예배의 몸찬양 연습은 1주일 전에 콘티가 나오면 토요일 연습 때 약 40분 정도 한다. 사역이 많아 질 경우에는 이 시간 외에도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 토요일 연습 전에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음 상태를 공유한다. 그래서 서로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당일의 연습은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다.

영적인 훈련은 토요일의 나눔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 청년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교육’을 한다. 이 시간에 하나의 신앙서적을 선정해 장별로 읽고 나누면서 큐티와 교제를 한다.

(4) D 교회

D 교회는 무용 팀이 없는 관계로 팀 훈련은 없다. 그러나 매 설교 때마다 담임 목회자가 춤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또한 예배학교를 운영하는데 8주의 새 신자 과정이 끝나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면 들을 수 있는 과정인데 이 예배학교의 커리큘럼에 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필수적으로 듣게 된다.

(5) E 교회

E 교회의 경우 1인 팀이라 교회에서 이뤄지는 연습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국무용과 발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두 번 받고 있다. 또한 근력 향상을 위해 피트니스 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학원에서 기독교무용을 전공하고 있어 학교 수업시간에서도 배우고 있다.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체험 하나하나가 쌓여 춤을 출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의 여정’을 삶에서 쌓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이나 또 무용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덕분에 영성이 깊어져 그것이 춤출 때 녹아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영성이 깊은 춤을 추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 교회의 예배당이 작고 회중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용수가 집중해서 추지 않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표7] 예배무용팀의 훈련방법

	무용 테크닉 훈련	영성훈련
A교회	매주 화요일 7시. 간식과 교제를 한 후 현대무용 워업 및 레파토리 또는 작품 연습.	영성훈련에 있어 보충이 필요함. 기도회를 가짐 - 담당 부서의 목회자의 한 달에 두 번의 방문 및 담당 단장들의 인도.
B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무 연습은 각자 해 오고 예배 2시간 전에 동작을 맞춤. 워십댄스팀의 연습은 매주 월요일 1-3시의 한국무용 레슨 및 목요일 9시 30분-12시의 현대무용 레슨.	팀이 모여서 하는 훈련은 없음. 각자 교회의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
C교회	매주 토요일 5-11시까지 연습을 함. 공연이 많은 경우, 추가 연습이 있음. 연습 전, 나눔을 하고 훈련함.	주일 청년예배 1시간 전에 모여 신앙서적으로 큐티 및 교제를 함.
D교회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습은 없음.	교회 차원에서 춤에 대한 교육이 있음. 주일 설교 시 매주 담임 목회자가 춤에 대한 교육을 함. 예배학교의 커리큘럼에 춤에 대한 교육이 있고 필수 이수 과목임.
E교회	1인 팀으로 교회에서의 연습은 없음. 개인이 한국무용과 발레 레슨을 일주일에 한번씩 총 두 번 받고 있음. 대학원 수업에서도 배우고 있음. 피트니스클럽에서의 웨이트트레이닝.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필요 함. 그 과정이 쌓여 춤을 출 때도 자연스럽게 표현됨.

제 3절 회중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1) 회중의 구성 및 태도

(1) A 교회

A 교회의 무용단이 주로 공연하는 예배는 주일 저녁예배인데 이 때 참석하는 회중들의 연령층은 주로 장년들로 약 70% 정도 되며 나머지는 청년 대부분 성도들이다. 전통적인 교단의 교회이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이 있었다. 특히 연령층이 높은 장로들 중에 처음 무용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담임 목회자가 예술분야를 활용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무용을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의 회중들은 거의 장년층이다. 청년부예배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워십댄스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저녁예배에는 장년 성도들이 주가 된다.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 하는 인원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아침부터 와서 섬기던 사람들은 오후쯤엔 집에 돌아가기도 해서 교회의 크기에 비해 많지는 않고 약 500-600명 정도 된다.

예배 중에 하는 찬무에 대해 회중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모든 회중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춤을 추는 자신이 가장 은혜를 받는다. 무용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충만한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무용수가 충만하지 않아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 때가 오는 것 같다. 또한 워십댄스팀이 3박 4일 동안 교회 내 다른 부서의 수련회에 동참하여 함께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어 감동스러웠다.

(3) C 교회

C 교회의 예배는 장년도 함께 드릴 수 있지만 청년부예배이기 때문에 청년의 비율이 약 80% 정도 된다. 찬양 중에 율동을 할 때 거의 모든 회중들이 다 따라 한다.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6, 70%는 따라 하는 편이다. 여성들 중에 여름철에 팔을 올리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는 피드백이 더러

있고 남성들 중에 너무 귀여운 동작들은 따라 하기 민망하다는 피드백이 있기는 했다. 또한 춤 동작들 중에 돈다거나 숙였다가 일어서거나 하는 자세를 회중석에서 따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피드백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피드백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에 맞춰 춤을 추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100의 기량을 보여야 회중석에서 50정도를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중석에서 돌거나 앉았다가 일어서는 등의 동작들을 할 수 없기는 해도 어느 정도 자세는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D 교회

D 교회의 예배는 청년층이 95%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장년층들도 1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청년 나이였다가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장년 부 중에는 현재 청년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있다. 자녀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모님 연령층의 성도들도 함께 춤추며 예배하고 있다.

회중들 대부분은 예배 중에 춤을 추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수의 성도들도 존재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찬양을 인도할 때 춤을 추도록 하는데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있는 성도들의 경우 ‘별로 지금 내가 추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앞에서 추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또 옆에 사람들과 손을 잡으라고 할 때 그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지 않으면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넘겨야 할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가는 편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도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다.

(5) E 교회

E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회중들은 약 50명 정도 된다. 그중에 4, 50대가 30%, 청년층이 40%, 30대가 20% 정도 되고 나머지가 60대 이상과 어린아이들이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창립 시절부터 예배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중에 찬양 시간에 춤을 추는 것을 의아해하고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몇몇 있었다. 그러나 춤을 추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처음 방문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무용수에게 가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라고 말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교회의 찬양팀 리더는 본인이 찬양을 인도할 때 무용수의 춤을 보고 시너지를 일으켜 더 깊게 찬양을 리드할 수 있다고 회중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 만약에 찬양에 집중이 안 되시면 앞에서 춤을 추는 자매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표정만 봐도 더 예배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표8]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무용예배의 회중들의 연령분포	예배무용의 회중들의 수용태도
A교회	장년층 70%, 청년 대학부 30%.	무용을 처음 도입 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적으로 받아드림.
B교회	장년층 99%.	주일 저녁예배 찬무를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긍정적임. 워십댄스팀 사역에 은혜를 받아 매우 긍정적임.
C교회	청년층 80%, 장년층 20%.	대부분의 회중들이 따라함. 회중석에서 따라 하기 힘든 동작들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그러나 몸찬양팀에서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회중들이 50%라도 따라할 수 있음.
D교회	청년층 95%, 장년층 5%.	대부분의 회중들이 긍정적임. 부정적인 경우는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 탓. 춤을 추도록 이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수용하지 않음. 성도 개인이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E교회	청년층 40%, 30대 20%, 4-50대 30%, 어린이,60대 이상 10%.	교회 개척과 동시에 춤을 추며 예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드림. 새로 방문한 성도들 중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음.
------------	---	--

2)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의 참여 형태

(1) A 교회

A 교회의 예배무용은 장르별로 무용단이 나뉜다. 장년부에 현대무용단과 한국무용단이 있고 청년대학부에 힙합을 주로 하는 댄스 선교부가 있다. 따라서 각 무용단의 장르에 맞춰 하게 된다. 예배 중, 무용 공연이 있을 때는 설교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 위주의 예배를 올리게 되며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찬양대 및 무용단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설교는 약 10분 정도로 짧게 끝난다. 말씀이 예배 순서에 반드시 있기는 하지만 공연 전이든 후이든 짧은 시간으로 구성된다.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공연 후에 말씀으로 총 정리할 때도 있다.

춤을 좋아하지 않고 무용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는 성도들이 이 교회의 현대무용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과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몸동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 같다. 이 교회의 예배무용은 회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공연을 통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그림6 A 교회 찬양대와 연합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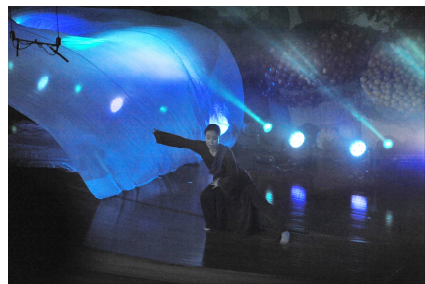


그림7 A 교회 현대무용단 공연

(2) B 교회

B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에서 찬양 인도는 목회자가 진행한다. 찬무팀에서 춤을 추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찬양 인도를 맡은 목회자가 리드한다. 인도자가 회중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적극적으로 찬양 하도록 인도한다. 아주 가끔 찬무팀에서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오른손을 드세요.,” “박수를 치세요.” 라고 할 때도 있다.

찬무를 할 때 거의 발레나 현대무용의 동작을 사용하여 춤을 추고, 한국무용은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워십댄스팀 공연을 할 때 한국무용 작품을 많이 올리고 있다.

찬무와 함께 찬양을 할 시에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회중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난다. 같이 따라하는 회중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가 좀 더 참여적인 예배가 된다.



그림 8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그림 9 B 교회 주일 저녁예배 찬양시간

(3) C 교회

C 교회에서 몸찬양팀은 멘트를 하면서 회중들을 이끌지 않고 춤만 추며 리드는 찬양 인도자가 한다. 그러나 반복을 해야 하는 동작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는 찬양 인도자에게 먼저 부탁을 해 놓는다. 찬양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고 몸찬양이 있는 곡은 3곡정도 된다. 나머지 몸찬양이 없을 때도 그대로 무대에 남아 예배를 드린다. 공연을 할 경우에는 보통 4분 정도 길이의 작품을 준비한다. 절기 예배의 경우에는 8분 정도의 길이를 준비한다. 대사가 없이 몸으로 표현하거나 연기 또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할 때도 있다.

몸찬양팀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모두를 하고 있다. 어떤 작품

을 올리느냐에 따라 장르를 선택하여 준비한다. 찬양 중에 몸찬양은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쉽도록 어떤 포인트 부분에서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한다. 전체적으로 따라 하기 쉬운 율동의 틀에서 포인트만 삽입하여 한다.

예배 중에 몸찬양이 있을 때 회중들의 참여율을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을 경우, 몸찬양을 바로 하지 않고 몇 주에 걸쳐 그 곡이 회중들에게 익숙하게 한 후에 춤을 춘다.



그림 10 C 교회 작품 공연



그림 11 C 교회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4) D 교회

D 교회에서 주로 하는 장르는 EDM(Electronic Dance Music)이다. 느린, 목상을 할 수 있는 찬양도 하지만 이에 맞춰 춤을 추지는 않는다. 처음 찬양을 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는 익숙한 찬양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동작들도 박수를 치게 하거나 합성을 지르게 해서 간단한 몸짓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 뛰게 하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동작들을 삽입해서 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동작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서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회중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도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하면 춤을 추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적이지 못했던 회중들까지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도 함께 춤을 추도록 이끌게 되는 것 같아 손을 잡게 하는 행동을 거의 매주 진행한다. 춤을 춘다는 것이 어떤 예배뿐 아니라 모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느낀다. 이스라엘 전통 관습

에서도 원무를 추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 같고,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림 12 D 교회 주일 예배의 찬양 시간

(5) E 교회

E 교회의 경우 즉흥으로 무용수 혼자 춤을 추는데 회중들을 이끌지는 않는다. 찬양시간에 회중을 이끄는 것은 찬양팀 리더이다.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평소에 연습해서 익혀둔 테크닉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쌓인 테크닉이 찬양 중에 감동을 받아 곡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대략 5-6곡 되는 찬양 콘티는 미리 받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 미리 목상을 해둔다. 또한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내야만 주일 찬양시간에 춤출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생활과 예배를 분리시키면 춤출 수 없다.

무용의 장르의 큰 틀은 즉흥무용이다. 그러나 무용수가 힙합, 현대무용, 한국무용, 및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즉흥을 할 때 곡에 따라 그에 맞는 장르를 순간적으로 선택하여 춤을 춘다. 미리 콘티를 받아 생각해 찬양을 목상할 때, 대략의 구성은 생각해 두지만 주일 찬양 시간에 받은 감동대로 춤을 춘다.

현재 예배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회중들에게 함께 춤을 추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회중들도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편이며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자고 할 경우에만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러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일어서 자유롭게 몸짓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무용수는 종종 본인이 회중들에게 춤을 추라고 권면하면서 이끌고 싶어 하지만 공간의 협소함이 제한이 된다고 한다.



그림 13 E 교회 주일 예배 찬양시간



그림 14 E 교회 주일 예배 찬양시간

[표9]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및 회중들의 참여 형태

	예배무용의 진행 방법	회중들의 참여 형태
A교회	무용공연이 있을 경우, 설교시간을 10분 정도로 줄임. 현대무용단, 한국무용단, 청년부의 댄스 선교부(힙합위주)가 개별로 존재하여 그 특성에 맞는 무용을 함.	공연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함. 그러나 공연을 통해 말씀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낌.
B교회	찬양인도자가 대부분을 인도. 찬무팀은 종종 인도함. 찬무 시, 발레, 현대무용을 주로 함. 워십댄스팀 공연 때 한국무용을 하기도 함.	찬양인도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을 하도록 함.
C교회	찬양인도자가 대부분을 인도.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몸찬양팀에서 사전에 찬양인도자에게 전달. 몸찬양 시 대부분 회중들이 따라할 수 있는 율동으로 하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적인 요소를 포인트 부분에만 삽입. 공연 작품을 준비할 때는 곡에 따라 맞는 장르를 선택하여 준비함. 공연 작품을 올릴 때는 4분에서 8분 정도 되는 길이로 함.	몸찬양이 있을 경우 회중들의 참여율은 매우 높아짐. 처음 부르는 곡의 경우, 몇 주간 익숙해지게 한 후 몸찬양을 하게함.
D교회	대부분 EDM 음악의 장르의 찬양에 맞춰 춤을 춤. 느린 찬양 곡에는 춤을 추지 않음. 익숙한 찬양으로 시작하여 단계별로 동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임팩트 있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 함.	인도자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게 하는 순서를 반드시 삽입. 이를 통해 더 참여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음.

E교회	찬양 콘티를 미리 받아 오랜 묵상을 한 후에 즉흥으로 춤을 춤. 힙합,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를 모두 활용함. 평소의 테크닉 훈련이 중요하여 연습을 하는 편임. 찬양인도자에 의해 찬양시간이 진행됨.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림. 몇몇의 해외 생활을 한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찬양을 함. 무용수가 회중들도 함께 춤추게 하고 싶으나 공간적 제약이 있음.
-----	---	---

제 4절 예배무용의 특성

1) 예배무용팀의 특징

각 교회 예배무용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팀원들의 존속 기간을 알아보았으며 각 팀의 리더가 생각하는 장점을 비롯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 교회

A 교회의 현대무용단 단원들은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는 편이다. 비전공자들의 경우에 중간에 나가서 다른 단원들로 교체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5년 이상 된 사람들이다. 비전공자들이 나간 경우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과 연습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간 경우가 많다. 또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와 상관없이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

이 교회 현대무용단의 특징은 무용단의 대표리더가 무용계 현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 온 프로라는 점에서 안무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표리더의 교수법 및 훈련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른 교회의 예배무용팀과 차별화 된 점이다. 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현대무용단에 대한 후원이 좋다는 점 또한 차이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서 자주 공연을 올리다 보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회중들의 보는 눈도 높아졌다.

(2) B 교회

B 교회의 팀원들은 거의 4, 50대 주부들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 6명의 워십댄스팀원들은 거의 10년이 될 정도로 오래 있었다.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철야예배 찬양팀의 찬무팀 역시 모두 5년 이상 섬긴 사람들이다. 한번 섬기기 시작하면 오래 섬기는 경향이 있다.

이 교회의 리더가 생각하는 팀의 장점은 꾸준하다는 것이다. 신비한 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범하게 또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몇 개의 공연 위주의 멋진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배의 찬양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편안한 작품을 많이 갖고 있다. 회중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그런 작품의 수가 많다는 건 춤추며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3) C 교회

C 교회의 팀원들은 24살부터 33살까지 모두 8명이다. 몸찬양팀에 한번 들어오면 오래 있지만 처음 들어오기까지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보통 1년에 2, 3명 지원을 하고 정단원이 되는 사람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워십댄스를 접해본 사람들이 많다.

C 교회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여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다른 교회의 예배무용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교회처럼 정기적으로 공연을 준비해서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4) D 교회

D 교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회중들이기 때문에 회중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온다. 한, 두 달 정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명을

받아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따라서 양육 위주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존 전통 예배 형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대부분 남아 있다.

이 교회는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실행하며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영원한 기쁨 때문에 예배 중에 춤추며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 혼, 육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육적이거나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 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필수라고 생각한다.

(5) E 교회

E 교회는 1인 무용 팀이다. 교회 개척 초기에 몇 명의 팀원들이 있기는 했으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라 미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 교회 자체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의 경우 전공을 한 무용수는 아니지만 몇 년간 훈련을 받은 무용수가 찬양 중에 전곡에 맞춰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이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즉흥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체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예배무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춤을 출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예배무용을 할 때, 성경의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춤을 춰야 한다. 무대와 회중석의 거리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차별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표10] 팀 리더가 보는 예배무용팀의 특징

A교회	무용계 현업에서 오래 종사한 대표리더가 안무 및 훈련을 지도한다는 점이 차별 점이자 장점임.
B교회	회중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편안한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임.

C교회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고 있음. 많은 연습량이 차별 점임.
D교회	기존 한국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춤으로 예배드리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임.
E교회	무용을 훈련받은 무용수가 찬양 전곡에 맞춰 즉흥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한국 교회와 다른 점임. 회중석과 가까운 거리의 무대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더 욱 집중 할 수밖에 없음.

2) 예배무용의 특성

먼저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배무용이 팀원들 및 예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예배무용의 활용 전후를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회 리더들이 예배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희망사항도 기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가 다섯 교회를 방문하여 느낀 전체적인 장점에 대해 기록하였다.

(1) A 교회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다른 방식의 예배 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느낀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터치가 놀랍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공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무용단에서 비전공자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더 신기한 것 같다고 느낀다. 한 비전공자인 단원은 회사 일을 하면서 무용단에 나오는데 내적 갈등이 심했었다. 현대무용단이기 때문에 전공자 위주로 팀이 운영이 된다. 많은 연습량을 비롯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주역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하는데 이 단원이 선정됐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무용 없이 설교자의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함께하면 예배가

더 아름다워짐을 느낀다. 회중들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용을 보든 말씀을 듣기 전에 무용을 보든 받아드리는 감동이 다른 것 같다. 무용이 말씀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교회에서 예배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용단 안에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훈련이 잘되어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함께 말씀, 기도 및 영성훈련을 인도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현 무용단이 교회의 한 부서 안에 속해 있다 보니 이들 만을 위한 특화된 훈련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영성 깊은 작품을 위해서라도 무용단만을 위한 담당 사역자가 함께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예배무용팀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중 하나이며 담임 목회자가 문화 예술 방면에 열려있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연작품을 올릴 경우 대형교회라는 점이 더욱 도움이 된다. 무대의 사이즈도 그렇고 작품을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의 지원도 그렇다. 그런데 단순히 크고 재정이 좋은 교회여서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철학도 무용을 통한 선교와 예배에 적극적이니 더욱 예배무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교회의 무용 연습실의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보통 거울이 달려있는 가족 예배실이나 유아부 실에서 연습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한국무용단, 현대무용단 및 청년대학부의 댄스 연습실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공간의 사이즈도 웬만한 대학교 무용연습실 만한 크기였다. 또한 한국무용의 연습을 위한 북도 십여 개 구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습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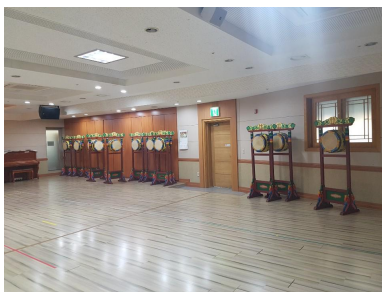


그림 15 A 교회 무용연습실



그림 16 A 교회 무용연습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이 교회의 한 절기예배의 공연에서 한국무용단의 공연은 비전공자로 구성되어있어 전체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무용 의상과 소품 등에서 교회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날 현대무용단의 공연은 C.C.M. 찬양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그에 맞는 안무를 구성하여 독무로 진행되었다. ‘바닷길’이라는 찬양의 의미 전달을 위해 바다를 표현하는 하늘색 천을 단원들이 들고 파도를 상징하는 모습 등 예술적인 연출을 하였다. 이렇게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회중들에게 예배무용을 하나의 공연예술로 자연스럽게 받아드려 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됨을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B 교회

B 교회의 예배무용팀원들이 오래 섬기는 이유는 한번 예배무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조명을 받으며 춤추며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다가 일주일 후에 또 예배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내면 상관없지만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안 늙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예배에서 오는 감동과 충만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찬양만 하는 것도 좋지만 무용을 하면 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크며 힘든 만큼 은혜도 크고 귀한 것 같다고 느낀다.

이 교회에 여러 찬양팀이 있지만 찬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많이 다르다고 느낀다. 찬무팀이 없을 경우 예배의 생동감이 많이 부족하다. 찬무팀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팀이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고 무대에 서기 때문이다.

B 교회에서 예배무용이 보다 더 활용이 되려면 교회 차원에서 찬무팀과 워십댄스팀을 엄연히 독립된 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현재는 예배기획국 안에 소속되어있는데 독립된 하나의 팀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교회의 주요행사나 절기 예배에 이 팀이 전담으로 섬겼었는데,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서 외부 인사들 즉 연예인 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욕심

을 가지고 사역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된 팀으로 바라보고 교회 내 중요 예배의 자리에 과거처럼 교회 내의 찬무팀과 워십댄스팀을 초청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교회 내 예배에서 점점 예배무용이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주일 저녁예배에 방문하여 이 교회 워십댄스팀장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교회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며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따르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중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찬양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일어서서 율동을 하며 찬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였다. 이 교회의 율동은 비교적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율동을 많이 따라하며 찬양하였다. 또한 회중석에서 중앙 원편에서 보이도록 무대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도 찬무팀의 율동을 적극적으로 따라 하며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단지 찬무팀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또한 찬양 중에 어떤 한 남성 성도가 예배당 앞에서 감동을 받은 느낌대로 자유롭게 춤을 추었는데 이를 저지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다. 보통의 대형교회의 전통 예배에서는 이런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본래 가지고 있던 형식과 틀 안에서 자유롭게 춤을 받아들이고 권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런 열린 자세가 이 교회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C 교회

교회의 여러 셀 모임 등의 소모임을 통해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몸찬양팀 안에서 나눔을 같이 하면서 신앙의 길을 함께 동역하며 간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으로 본다.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한 춤을 추기 위해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거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하는 내용을 무용수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 전하기는 어렵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

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믿는다.

몸찬양이 있을 때의 예배가 훨씬 생동감이 넘친다. 회중들의 움직임에 확실히 차이가 있다. 춤이 없을 때는 고요하고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라면 몸찬양이 있을 때 더 주체적으로 예배에 뛰어들어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릴 때 셀끼리 모여서 앉는 편이다. 이때 셀리더가 춤을 적극적으로 하면 셀 팀원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교회의 몸찬양팀 리더는 예배에서 보다 무용이 활용되려면 목사님의 말씀과 연계를 하여 설교 전이든 후에 관련된 작품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크지만 또 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되는 것처럼 공연 작품을 보고도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자주 못 하더라도 분기마다라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일을 통해 좀 더 시각화 하여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종종 성가대와 연합하여 하나의 찬양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본 연구자가 방문했었을 때 4명의 몸찬양팀이 춤을 추었는데 모두에게서 기쁨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무대에 성가대원들도 함께 서서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다. 율동이 없는 찬양을 할 때도 몸찬양팀원들은 하나님께 몰입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그에 비해 함께 무대에 서있는 성가대원들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였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몸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무용수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었고, 이런 점들이 이 팀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4) D 교회

이 교회에는 무용 팀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전담하고 춤도 함께 추고 있는 예배 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배 팀의 경우 외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팀원 들 중 4명은 간사로 임명하고 월급을 지불한다. 다른

팀원들은 자원 봉사로 시간을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예배가 영적으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이 춤추며 흥분했었는데 사람들은 기쁘면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된다. 월드컵 경기가 우리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춤을 출 때 영적인 예배가 더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D 교회에서는 주로 EDM 음악에 맞춰 회중들과 춤추며 예배하고 있다. 이 장르로 찬양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중들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예배팀 리더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벤틀 교회(Bethel Church)처럼 무대 한쪽에 무용수를 두고 느린 찬양에도 춤을 추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해서 춤을 추는 무용수를 보는 것이 다른 회중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별도의 무용팀이 없고 거의 모든 회중이 춤을 추며 예배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회중들과 예배 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봉사자 스탭들이 밝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모두 청년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본 연구자가 방문하기 전에 가졌었던 편견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청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고 또 춤추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사뭇 정신없고 정돈되어있지 않은 곳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는 교회였다. 찬양 시간에 어둡게 하고 무대 쪽만 불을 밝혀 사람의 식별이 어렵고 춤추며 찬양하는 탓에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 앉을 자리가 없으니 봉사자가 직접 와서 자리를 이리저리 모색해주고 또 새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응대해주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요즘 볼 수 없는 청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들의 이런 밝은 모습과 태도는 1시간 30분 동안 찬양을 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회 밖 일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어

도 기분이 상승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에 맞춰 1시간 30분 동안 춤추며 예배한다면 힘들었던 일상을 하나님께 쏟아 낼 수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배 후 D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잠시 가졌는데 예배를 3시간 이상 드리는 이유가 세상에서 영화를 볼 때도 2시간은 있는데 오늘날의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에 짧게 예배를 드리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춤추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5) E 교회

E 교회의 무용수는 찬양 중에 춤을 추면 예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 있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재 회중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영감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하는 회중들이 있기도 하다.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는 것처럼 확장된 몸짓인 춤으로 표현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교회의 무용수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풀리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중들도 함께 춤추며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방문해서 놀라웠던 것은 다섯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개척교회였음에도 찬양팀의 실력이 프로들과 같았다. 후에 알아보니 모두 실용음악 전공한 사람들로 기독교 음악에 비전이 있어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다고 하였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무대와 회중석과의 거리가 매우 좁았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내내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혀놔 왔다 갔다 하며 산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오직 춤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께만 집중

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 모습 자체가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 같았다. 또한 즉흥무용으로 춤을 추었는데 곡에 따라 힙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동작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순발력 있게 변경해 가며 춤사위를 이어갔다. 즉흥무용이라 다소 난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찬양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이 교회 회중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찬양 드리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탓인지 무용수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예배드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공연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무용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훈련을 통해 비교적 테크닉을 갖추어 즉흥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동을 표현력 있게 집중하며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표11] 각 교회 예배무용의 장점 및 영향

	예배무용팀 리더의 관점		연구자의 관점
	무용 단원	예배	
A교회	무용단원들은 대체로 오래 활동 하는 편임. 팀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출산과 육아의 이유가 큼.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됨.	설교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함께 한 경우, 예배가 더 아름다워짐. 무용과 설교가 함께 할 경우, 시너지를 발휘 함.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스케일이 큰 공연이 가능함. 담임 목회자 및 교회의 지원으로 비교적 타 교회 대비 갖춰진 연습실 등의 환경이 있음.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해 회중들에게 예배무용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함.
B교회	무용단원들 모두 5년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였음. 한번 예배무용을 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음. 무용을 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힘든 만큼	찬무팀이 없는 찬양팀의 예배의 경우, 예배의 생동감이 떨어짐. 기도하고 준비한 찬무팀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침.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수하는 대형교회이지만 찬양 시간에는 자유로운 모습임. 찬무팀 뿐 아니라 성가대원 등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한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에 적극적

	은혜가 큼.		인 모습임.
C교회	팀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탈퇴하지 않는 편임. 그러나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팀원끼리 서로 신앙의 동역자라는 느낌을 주어 도움을 줌.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기 때문에 영적 성숙에 많은 도움을 줌.	몸찬양이 있을 경우에는 예배에 생동감이 넘침. 몸찬양이 없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음.	몸찬양팀원들 모두 진정한 예배자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느껴짐. 무대에 함께 서서 찬양 드리는 성가대원들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적이었음.
D교회	대부분의 회중들은 교회 개척 이후 계속 남아있음. 영적으로 놀려 있던 회중들이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 치유를 받음.	2002년 월드컵 때 기쁨 감정을 춤추며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 구원의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예배로 나아 갈 수 있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청년들이 밝아 보였음. 이는 춤추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1시간 30분의 찬양시간과 3시간 넘는 예배시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E교회	초창기에 팀원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다시 돌아감. 춤을 출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데 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을 줌. 회중들이 함께 하지 않아도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추는 무용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음.	무용 전공자의 무용수는 아니었으나 비교적 테크닉을 갖춘 실력으로 즉흥무용을 구사해 자연스러워 보임. 좁고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코람데오(Coram Deo)’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을 줌.

제 5장 결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예배무용은 주로 찬양시간의 율동 및 특별순서로서의 공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예배 안에서 무용의 활용은 미미한 상태이기는 하나 교단별로 예배 형식에 맞게 예배무용을 도입하여 조금씩 그 형태가 다양성을 띄고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주일 본 예배에서 예배무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주일예배, 금요철야예배 및 청년예배 등에서 율동팀의 단순한 동작으로 구성된 움직임이나 제스처를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공연 형태로서의 무용을 비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서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비교적 교단의 규제가 약한 독립교단 및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의 교회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무용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곳에서는 회중들이 자유롭게 찬양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무용수가 즉흥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예배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있는 특징적인 예배무용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다섯 교회들에 대해 고찰 하였다. 다섯 교회들의 예배무용에 대한 유형 및 운영현황, 회중과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해 각 예배무용팀 또는 예배팀 리더와의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섯 교회는 예배무용을 5년 이상 도입해 온 곳으로 선정하였는데 다섯 교회에 있어 예배무용 형태, 운영현황, 특성 및 회중의 수용 태도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표12]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예배 무용 형태	운영현황			회중의 수용 태도	특성
		예배무용 적용시기	훈련 방법	재정 지원		
A	공연	주일 저녁예	주1회의 무	정기적 지	적극적으로	무용전문가

교 회	형태.	배. 주요 절기에 배 및 특별 순서.	용훈련. 월 2회의 목회 자의 예배 인도.	원 없음. 필요시 예 산을 청구.	수용하는 모 습. 말씀을 더 잘 이해 하게 됨.	인 대표리더 및 무용전공 자 단위. 교 회의 지원이 좋음.
B 교 회	찬양 시 율동 및 작품공연.	매 주일 저 녁예배 및 금요철야예 배. 교회 내외 사역에 초청 받아 작품 공연.	주 2회의 무용레슨 및 매 주일 의 연습. 개인의 영 성훈련.	1년 예산을 책정 받아 매월 수령.	당연하게 받 아들이며 율 동에 참여적 임.	따라하기 쉬 운 작품들이 많음.
C 교 회	찬양 시 율동 및 작품 공연.	격주로 청년 예배 찬양시 간. 청장년 절기 예배 및 특 별순서로 작 품 공연.	주 1회 약 5시간의 무 용훈련. 매 주일 1 시간씩 모 여서 큐티.	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 가시키고 있음.	대부분 율동 에 참여적 임.	다양한 무용 장르 가능.
D 교 회	회중들의 자유로운 춤.	매 주일 예 배에 1시간 30분의 찬 양시간에 회 중들의 자유 로운 춤.	교회 차원 에서의 춤 에 대한 교 육. 설교 시 춤 의 중요성 에 대한 언 급.	무용팀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 은 없음.	긍정적이며 참여적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	깊은 영적 예배가 가 능. 1시간 30분 의 긴 찬양 시간의 춤.
E 교 회	찬양 중 무용수의 즉흥무용	매 주일 예 배 40분의 찬양시간에 무용수의 즉 흥무용.	단독 무용 수로 개별 무용레슨. 평소 삶에 서의 영성 훈련.	별도의 지 원은 없음. 필요시 청 구.	당연하게 받 아들임. 무용 수의 춤을 통해 하나님 을 더 느끼 게 됨.	열악한 환경 에서 하나님 만을 집중하 는 무용수.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배무용은 공연형태와 사전에 구성된 율동을 회중

과 함께하는 형태, 회중들에 의해 자유롭게 즉흥으로 추는 춤 및 무용수의 즉흥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배무용을 적용하는 시기는 대체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예배 및 금요 철야예배 등 본 예배시간 외에 편성하고 있다. 그 외의 교회에서는 주일 본 예배에서 무용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훈련 방법에 있어 무용팀이 있는 경우, 무용훈련은 주 1회 이상 단체로 연습 하고 있으며 영성훈련 또한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도 있었다. 재정 지원을 여유롭게 받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체로 필요시마다 청구하여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 자각으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곳도 있었다. 예배무용에 대한 회중의 수용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예배 안에서 무용의 활용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각 교회 예배무용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팀도 있고, 회중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하고 있는 곳,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팀, 긴 찬양시간에서의 춤을 추는 곳 및 열악한 환경에서 춤을 추는 등의 특성을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다섯 교회의 예배무용 유형 및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예배의 본질 및 의미에 부합하는 무용을 도입함으로써 예배 안에서의 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교회에서 무용을 특별 행사용으로 예배와 상관없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및 설교의 조력자와 같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 주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예배무용을 다양하게 교회의 형식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방향성 또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시각적인 예술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설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적절한 무용의 유형과 형식을 통해서도 이를 시각화하여 회중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찬양 또한 가만히 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교회에서의 예배무용의 수용은 대개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무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인지하고 회중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예배무용을 수용한다면 예배의 다양성과 깊이는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다섯 교회에서 예배무용을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각각의 예배무용 유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여기서 연구된 다섯 교회의 특징적인 예배무용의 유형 외에도 각 교회의 성격과 환경에 적합한 예배무용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다섯 교회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무용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배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 교회 안에서 예배무용이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강준민. (2008).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서울: 두란노.
- 김소영. (1974).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화숙, 한혜리. (1999). 『교양수업을 위한 무용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닥 아담스, 다이안아파스틀로스-카파도나. (2000). 『종교와 무용』. (김명숙, 역). 서울: 당그래.
-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2004).
- 로버트 랭. (1996). 『서양문화사 II』. (이희재, 역). 서울: 사군자.
- 매들린 베리. (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 박경숙. (2013). 『재미있는 서양무용사』. 충남: 공주대학교 출판부.
- 박연훈. (1995). 『지금도 다윗처럼 춤 출 수 있다』. 서울: 프레이즈.
- _____. (2002). 『몸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 안은경. (2011).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무용』. 서울: 일오삼출판사.
-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 이기문. (1989). 『구약 원어해설사전』. 서울: 성서교육개발원.
- 이덕주. (1993).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의 역사, 1921 ~ 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이영호. (1980). 『교회계절학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 정의숙, 반주은. (2000). 『현대무용 인물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 정장복. (2005).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타라 길야드. (2012). 『예언적 춤』 . (천슬기, 역). 서울: 유다의 사자.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 서울: 요단출판사.
 황성철. (1998). 『예배학』 . 서울: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Bensely, Marie. (2002). 『매체를 활용한 크리스천 댄스』 . (박영애, 역). 서울: 프레이즈
 Dannis, John Randall. (2006). 『샤카, 살아있는 예배』 . (송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토기장이.
 Novack, Cynthia J. (2000). 『즉흥무용의 이해: 접촉에 의한 즉흥행위와 미국 문화』 . (서진은, 역). 서울: 금광미디어.
 Segler, Franklin M. (1994). 『예배학 원론』 . 서울: 요단출판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김경남. (1997). “미국 현대무용계에 나타난 흑인차별적 시각과 그 극복 움직임에 관한 연구-AlvinAiley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2016). “성서에 나타난 원형적인 무용 텍스트와 컨텍스트 연구 - 에포트 이론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영애. (2006). “중세시대의 교회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지』 . 제11권. p16.
 송유순. (1991). “기독교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정섭. (1996). “예배의 본질과 한국 교회 예배 개혁의 방향”. 합동신학교 목회학과 졸업논문.
 안영희. (2003). “한국 농민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초룡. (2002). “한국 기독교 문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완. (2017). “절기 예배무용 창작을 위한 접근법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5).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영. (2015). “기독교무용 작품 「70년, 희년의 춤」을 통한 대중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권 2호. p100-1
- 한은희. (2011). “예배에서의 회중 참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예원. (2014). “공연작품 비교 분석을 통한 기독교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광규. (2013). “예배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실. (2010). “종교성이 내재된 무용작품에 의한 기독교무용발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윤. (2003). “기독교 문화로서의 C.C.D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 인터넷 사이트

송영목. (2013). 신약성경의 예배에서 배우기. 코람테오닷컴.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7>

<http://www.icdf.com/en/galleries/networks-gallery/flags-banners>

3) 해외 문헌

Backman, E. Louis. (1952). 『Religious Dances in the Chrisitan Church and in Popular Medicin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Bumke, Joachim. (2000). 『Courtly Culture. Woodstock』. (NY: The

- Overlook Press).
- Deitering, Carolyn. (1984). 『The Liturgy as Dance』 . New York: Crossroad.
- Holiday, L. William. (1974).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Hutchinson, A. (1978). 『Doris Humphrey: The Collected Works Vol. 1. Dance Notation』 . New York: Bureau Press. p67.
- Laskow, Sarah. (2017). The New Year's Feast That Transformed Fools Into Popes and Kings. Atlas Obscura.
- Taylor, Margaret Fisk. (1967). 『A Time to Dance』 .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 Youngerman, S. (1978). "The Shakers Based in Analysis". 『CORD』 . (Annual IX). p94.

HANSUNG
UNIVERSITY

【부 록】

부록 1. 심층면접 질문

운영 현황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과 의 관계 및 상호 작용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무용의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심층면접 내용

A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하면서부터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멋있는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상한 심령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춤을 추고 싶다”라는 기도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막 열심히 추면서 하게 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영혼을 치유하는 춤추는 사역자가 되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현대무용 공연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무용에 대한 비전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무용을 전공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더 받으신 거예요?(질문)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현대무용을 전공한 것은 예고 진학하면서 하게 됐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재수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에 비전을 두고 무용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선교가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가지고 춤을 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재수 때 했어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무용단이 생기게 된 건 저희 교회 내에 현대무용 전공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대표리더님을 모셔 와서 생기게 된 거죠. 2008년도 만들어졌어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대표리더님께서 지금 현대무용단 이전에 일반 무용단을 이끌었는데, 거긴 저희 교회 교인들로만 이뤄진 단체가 아니라 컨템포러리 무용단 선생님들이 대표리더님께서 권면하시고 하셔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믿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2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처음 저희 교회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무용뿐 만 아니라 예술분야에 굉장히 열려있고, 성악 전공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는 곳이에요. 절기뿐만 아니라 특별한 집회나 무용이 필요한 예배에 자주 서는 편이에요. 보통 절기 때는 다 서고, 교회 창립주일 기념 예배, 또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 기존 예배 대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같이 주제에 맞춰서 찬양을 하시고, 교회학교 친구들이 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현대무용단이 또 한 파트를 담당해서 춤을 추고 한국 무용단들이 춤을 추기도 해서 하나의 뮤지컬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 찬양 때는 비정기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 선교의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하고 저희 현대무용단 같은 경우는 레파토리가 오래되다 보니 많은데 그중에서 연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주제를 주시면 준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 정기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하고 있고요. 근데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 바로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니고, 간식을 먹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현대무용 워업을 한 이후에 레파토리를 가지고 훈련을 할 때도 있고 새로운 작품을 나가야 할 때는 대표리더께서 안무를 하시고요.

교회의 무용 교육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예요. 발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성훈련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무용단이 음영위원회라는 기관 안에 속해있어요. 음영위원회에 합창단, 중창단 등 예술적 인부서를 총괄해서 만든 기관이 음영위원회예요. 음영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부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많게는 월 2회 오셔서 기도회를 열어 주시고 그러는데 영성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이 단장이라 부단장으로 세워지셔서 무용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상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비용들을 자원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획에 센스 있으신 분들이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단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주로 기도회를 인도해주시죠.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재정적 지원은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정기적인 후원은 없고 무용단의 특성상 다들 자원해서 섬기는 단원들이라 정기적인 후원은 없고요. 단원들도 무보수로 섬기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라든지 특별 순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죠.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녁예배 같은 경우의 장년층이 주를 이루는데 청년 대학부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비율로 말씀하면 장년층이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들 하시죠.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예전 한 10년 전에 보수적인 장로님들께서 현대무용에 대한 부정적인 왜냐면 의상 때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엔 드러나는 의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격한 동작이나 의상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음악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세계 들릴 수 있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것이 담임목사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대표리더님께서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다니신 건 아니고요. 신촌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언니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대표리더님 눈이 아프셨는데 담임목사님께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게 처음 인연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과거 이끄셨던 일반무용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올리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퍼스타를 이화여대에서 공연할 때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너무 좋게 있으셔서 무용공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려진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였던거죠. 교회마다 무용의 쓰임을 받고 싶고, 진짜 이 무용이야말로 직접적으로 받는 은혜와 감동이 큰데 목사님들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들이 많고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조차도 무용을 거룩한 강대상에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만큼은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술적인 그런 선교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마음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보수적인 장로님들도 자연스럽게 무용에 대해서 열리게 된 것 같아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좋아하지 않고 무용에 대한 문외한인 회중들의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무용에 대해 정말 몰랐었는데 현대무용단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그런 말들을 하세요.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또 찬양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몸동작을 통해서 말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피드백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 위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요. 형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로. 이럴 때는 말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죠. 10분 정도로 짧게. 처음 말씀으로 여시고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총정리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꼭 있죠.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 한국 무용단도 있어요. 젊은 층은 댄스선교부가 있는데 그건 대학부에 있어요. 그 친구들은 힙합 위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르들을 섞어서 하죠. 그래서 교회에 크게는 현대무용단, 한국무용단, 대학부에 댄스 선교단이 있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무용단의 팀원들은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걸러졌어요. 한번 왔다가 나가고 다른 분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5년 이상 있어요. 비전공자들이 나가게 된 경우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가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보통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랑 연습시간하고 안 맞아서 나가게 되는 경우 있죠. 또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니 잠깐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 인 것 같아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다른 예배를 드리는 방식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몸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터치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하다고 느껴요. 한 단원을 예를 들면 4년 전에 들어온 비전공자였는데, 그 단원은 비서로 일을 해요. 그래서 무용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몸치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내적인 갈등도 심했던 거예요. 현대무용단이기 때문에 전공자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해 배워 본적도 없는 이 친구가 막연히 춤에 대한 사

모함 때문에 들어왔는데 훈련도 어렵고 특별 순서로 서게 되면 거의 매일 연습을 하고 대부분을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연습을 하게 되고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랬어요. 현대무용단은 좀 워십댄스 팀과 다른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끝까지 이겨내고 이겨내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거든요. 비전공자들 중에서도 춤을 곧잘 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을 췌을 때 따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비전공자들 중에서도 못했는데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실력도 늘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특순 공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참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리더라 주역으로 많이 취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로 직분을 담당하면서 단원들을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단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절기 행사뿐 아니라 특별 집회 때도 무용단이 쓰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9월 특별 새벽집회가 있는데 주일이 켜 있어서 9월 2일 저녁예배 때 특별 순서를 하게 됐는데, 공연 한주 앞두고 팔복을 주제로 하게 됐는데, 8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비서를 하는 친구가 처음 순서인 ‘심령이 가난한자’로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받았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훈련받은 저런 친구를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무용이 없을 때 설교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되지만 무용이 예배 때 쓰임을 받으면서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용을 보던 무용을 보고 말씀을 듣던 말씀을 받아드리는 감동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무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단원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의 대표리더분이 현업에서도 유명하신 안무가이시거든요. 대표리더님께서 안무도 그렇고 가르치는 훈련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 지원해주시고 현대무용단을 든든하게 후원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른 교회랑은 차이가 나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많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회중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요. 그런데 회중들이 많이 봐서 눈이 높아지셨어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현대무용 전공자잖아요. 세상에서 일반 컨템포러리 무용을 보면 소품들도 그렇고 많이들 협업들도 하시잖아요. 예배무용이라고 하면 보기에다 거룩해야하고 잔잔해야하고 하는 틀을 우리 현대무용단이 많이 깼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적인 걸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춤 못지않게 멋있는 테크닉으로 작품성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용 구성 중에 짜여진 안무도 있고 8카운트 안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동작들을 즉흥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즉흥무용은 예배 중에 드러졌을 때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 안에 영성훈련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훈련된 사역자가 같이 (말씀, 기도, 영성)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특성상 부서도 많고 그래서.. 현대무용단을 위한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여기 오시는 단장이나 부단장님들께서는 잘 훈련이 된 분들이 세워지시지만 그래도 바램인거죠.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반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량과 영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무용단이 열심을 내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영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무용을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B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09년부터 쪽 워십댄스를 했어요. 중간에 한 1년 쉬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게 저랑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안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신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금요철야 찬양 팀밖에 없었는데 의상들도 회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준비하시기도 하고 찬무도 신나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팀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워십댄스팀 7명.

주일저녁예배 찬무팀 2명.

금요철야예배 찬무팀 5명.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전도사님이 이애라 찬양율동 신학원에서 배우셔서 집사님들을 데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본인이 안무가 되시고. 발 까딱까딱 하는 동

작들 가르치면서 했다고 했데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난게 아니고 예배까지 뚫고 들어가서 하게된 거죠. 사역자가 하니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금요철야예배 때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됐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애기 낳고 자모실 3층에서 내려다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하는데 우아하고 멋지고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 저녁 예배 때는 20-25분 찬양시간에 찬무가 꼭 있어요. 찬양을 전부 찬무와 같이 할 때도 있고 앞뒤 찬양 곡 빼고 할 때도 나머지 찬양에는 다 찬무를 해요.

금요 철야 때도 다른 팀에서 매주 찬양하고요. 절기 행사 때는 그루터기 워십댄스 팀에서 하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 내 사역 팀에서 불러서 많이 하죠. 전도단, 장년국, 외국인 선교국 등에서 저희를 콜링하면 사역을 하죠. 저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나라도 다양하게 많아요. 해마다 사역하고 있어요. 3040 다음세대 팀, 외국인 선교 팀, 실버대학에는 저희 팀이 메인이에요. 청지기 훈련학교라고 있는데 1년에 1, 2번 거기서도 저희가 메인으로 해요. 3박 4일 동안 가서 춤을 춰요. 거기서 은혜 엄청 받았다고들 하죠. 올해 그루터기 팀에서 사역한 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0개의 사역을 했어요. 다같이 그냥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춤을 추죠.

저희가 다른 교회에서도 새 가족 초청 잔치에 초청받아서 3-40분정도를 6-7개 곡정도 하기도 했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도 한 번하고 했죠. 거기에서 결신자들이 엄청 나왔죠. 외부 사역도 들어오면 계속 하려고해요. 미자립 교회에도 가서 하려고 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워십댄스팀은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요. 월요일은 1-3시, 목요일 9시 반-12시에 해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목요일에는 (현대무용)배우고 있고 한국무용은 월요일에 배우고 있어요.

주일 찬무팀은 주일 오후 4시에 모여서 연습하고 6시에 올라가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후렴을 갑자기 더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거는 다 맞추죠. 일단 리허설을 하고 가죠. 찬양 콘티는 보통 1주일 전에 주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콘티를 보고 각자 연습해오고 주일엔 맞추는 거죠. 가사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올려져있는 동영상 보고 연습해 오는 거죠. 신앙적인 훈련은 3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제목 나누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월, 목 모이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전도단에 소속되어있고 수요일은 수요일예배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나오니까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제대로 앞에서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가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일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런 담력이라는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회중들 앞에서 그들을 보면 두렵고 그렇게 되죠. 내가 딱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도 다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예산에서 강사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식사 등은 우리 자비량으로 하는 거죠. 의상도 20년 해서 의상이 누적돼있어요. 새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자비량으로 하죠. 교회 예산이 점점 줄어요. 점점 애들한테로, 교육국으로 가요. 장년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근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액수를 지정금액을 받고 그 안에서 한달 한달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죠.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장년층이 많죠. 청년부는 따로 워십댄스 팀이 있어요. 코람데오 팀이라고 있는데 아주 끝내주죠. 거기다 매주 청년 예배 때 하죠. 뛰는 것도 쾅거루 같이 뛰고 그래요.

주일 저녁예배는 거의 성도들이 500명 이상정도 오죠. 재적인원은 10만 명이라고 하고 실제 출석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녁예배는 차량운행도 안하고 그래서.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긍정적으로 말씀들 해 주시고 또 3박 4일 가서 했을 때는 너무들 좋게 말씀해주셔서 지금도 목이 메일려고 하네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서는 것은 다들 그냥 당연하게 의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사역이니까요. 반응이 좋다고 봐요. 은혜가 느껴져요. 또 내가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좋죠. 어떨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 예배 때는 목사님이 찬무 팀이 나가면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라고 해요. 다른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나라고 해요. 같이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죠. 더 참여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죠.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인도는 목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찬무팀은 춤만 추고요. 저희는 편하죠. 근데 또 찬양에 따라서는 편 마이크 끼고 동작들을 이끌 때도 있었죠. “오른 손을 드세요.”, “박수 치세요.” 이정도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무 때 스타일은 발레, 현대 이런 걸 위주로 하죠. 한국무용 스타일은 근데 거의 없죠. 근데 그루터기 공연할 때는 한국무용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그루터기 공연할 때는 또 사회자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원들은 거의 40-50 대 주부들이죠 직장 안다니고.

저희 6명 정도는 아주 오래 있었죠. 거의 10년 정도요. 저녁 예배 팀도 오래 있었죠. 그리고 금요 철야예배팀도 5년 이상씩 하고 있죠. 근데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하게 되면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하게 되면 우울증 같은 증세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스펙타클 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조명을 받고 은혜를 너무 받고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 있으면 일주일 있다가 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안하게 된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춤을 추는 사람들이 정말 안 늙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매주 춤을 추니까 빨리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 보니까 꾸미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오는 그 감격과 충만함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만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시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쓰잖아요. 그래서 힘든 만큼 은혜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죠.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찬양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주일 예배 때도 많고 수요일 예배 때도 있고 한테 찬무를 했을 때랑 안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찬무팀이 없는 팀은 생동감이 적죠. 아무래도 부족하죠. 찬무 팀이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니까요. 찬무 팀이 또 다 준비돼서 올라가는 거 같아요. 기도도 하고. 옷만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무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르겠죠.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르죠. 거기에 춤을 춘다 그럼 인원도 많아지고 이 스펙타클이 엄청나죠. 또 거기에 영성 있는 목사님이 멘트도 하면서 이끄시면 또 다르죠. 평신도가 이끄는 거랑 또 다르죠.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장점이 꾸준한 거가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한 무용이 아니라 누구나 평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거 편안한 무용들이 많다는 거. 다른 교회들 보면 몇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고 공연 위주로 되어있다면 우리는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100편 넘게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단원들이 또 만들고 하죠. 성도들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갖고 있는 양이 많으니까 또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렇죠.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힙합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안하려고 하는 단원들도 있는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루터기 사역 팀에서도 더 배우고 싶어요. 좀 다양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힙합을 하면 반응이 달라요. 맨날 드레시 한 것을 추다가 즐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가끔 청년들이 장년예배 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40 초반만 되어도 힙합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

라고요. 주일 찬양 예배 때도 힙합을 가끔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힙합이 좋다기 보다 좀 새롭다는 느낌이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기획국 안에 저희 찬무 팀이 소속되어있어요. 그렇게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연한 팀인데 우리 팀을 교회 일에 우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절기행사 때라든가. 우리가 담당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또 연예인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협소해졌다고나 해야 할까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사역 스타일이 바뀐 거니까 외부를 부르면 100% 외부를 부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팀의 자리매김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아쉬운 거죠 뭐 그냥.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대학생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박자에 딱딱 맞춰서 하는데 그 여자 분은 중간에 흐르는 음악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따라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용이 이렇게 다양성 있는 새로운 안무 동작을 가지고 나오는걸 보니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정말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C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17년 동안 이 교회에서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나 이유에서 라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어서가 가장 컸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마음으로 기독교 무용을 하는 그런 비전을 명확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래서 고1때부터 기독교 무용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자리를 잡았어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무용, 워십댄스 하는 팀을 전체적으로 몸찬양팀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장년 팀에는 남자 5,60대를 중심으로 하는 힙합 팀(모세 몸찬양 팀)이 있고, 여성 집사님들 팀이 3,4팀, 그리고 청년부에 1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팀이 있어요.

남성 힙합 팀도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한 10여년 됐어요.

장년부 몸찬양 팀들은 거의 절기 행사나 특별 순서 때 하세요. 그래도 거의 매주 모여서 연습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남성 팀은 일 끝나고 오셔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연습하세요.

교회에 몸찬양 연습실이 있어서 팀들마다 돌아가면서 연습을 해요. 교회 예배 안에 특별한 순서로 올려드린지는 최소 15년 이상. 청년부 안에서 예배순서 안에 도입된지는 5,6년 된 것 같아요. 장년예배는 매주하지는 않고 찬양예배라든가 초청예배정도 때 해요.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때도 하고요. 청년부 소속이지만 장년예배에 초청이 돼서 하기도 해요. 주일예배 때만 따지면 초청되는 비율이 청년부를 10이라고 하면 장년예배는 2 정도 되요.

(장년예배의) 거의 절기예배 때나 행사 때 특별한 행사 때. 그런데 특별새벽기도때나 부흥회 이럴 때는 성가대랑 몸찬양단이랑 번갈아 가면서 특별순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특별순서를 몸찬양단에서 올리면 2분기 때는 성가대에서 올리고 그러면 3분기 때는 또 몸찬양단에서 올리고 그래요. 장년부에도 몸찬양 팀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에 따라서 컨택을 하시는 편이에요.

예배 진행 안에서 율동을 하게 되면 3, 40분은 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년분들에게는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에게 요청하시는 편이예요. 찬양은 싱어와 세션이 하고 몸찬양 팀이 서서 찬양에 맞게 하는 거죠. 박수를 넘어서 동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중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이 가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데 교회 성격상 보수적인 곳에서는 박수도 안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선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찬양에 대한 마인드가 몸찬양을 되게 추구하시는게 많기 때문에 몸찬양 팀도 많이 생겨나고 또 예배 안에 포함되는 빈도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격주로 청년주일예배 찬양시간에 올려드리고 절기예배 때 또 올려드리고요. 작품으로 올릴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려드려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 마다 하고 있어요. 거의 쉬지 않고요.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요. 한 10년째 이렇게 연습하는 것 같아요. 사역이 만약에 중첩이 된다고 하면 연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하고 그래요.

연습하기 전에 서로의 기도제목이나 현재의 마음 상태를 나누죠. 컨디션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연습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걸로는 교제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일 청년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 교육이라고 하는데 신앙서적을 선정해서 같이 chapter별로 읽고 나누면서 큐티와 교제를 같이 해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1년에 100만원 받고 있어요. 3년 전까지는 지원금이 아예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매월 5천 원씩 회비를 걷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팀은 지원을 잘 받았었는데 몸찬양 팀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부족해서 그게 항상 어려웠어요. 제가 팀장을 맡은지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만나면서 매년마다 예산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늘리면서 올해는 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팀 복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조금 넘긴하는데 공식적으로 받는건 100만원이에요. 의상비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100만원으로는 저희 팀안에서 안무를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사역비 받지 않고 한 7,8년 안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게 아니고 안무로 헌신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절반 이상의 사역비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팀 운영하는 간식비 또는 소품비로 들어가고요. 의상은 각자 사비로 사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은 대략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은 청년 vs 장년 = 8:2 정도 되고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뭐지?’ 이런 반응도 많고, 잘 아는 찬양으로 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동작들을

하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가사가 있는 찬양으로 할 때는 훨씬 쉽게 받아드리는 것 같은데 가사가 없는 찬양으로 할 때는 해석이 필요한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배 전에 간지를 만들어서 주보에 넣어서 미리 작품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저희 순서 전에 보여드리거나 하죠.

찬양 중에 율동을 할 때는 회중들이 거의 다 따라 하세요. 쑥스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머뭇거리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거의 6,70%는 따라 하시는 편이에요. 여자분들 중에 여름에 손을 높이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제자리에서 돈다거나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들을 하면 회중들은 이런 동작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는 동작 없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돌지 못하더라도 다른 동작들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고 회중들이 하지 못한다고해서 저희까지 제한한다면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저희가 100을 해야 회중들이 4, 50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또 너무 귀여운 동작은 못 따라 하겠다는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에 무용을 해서 예배에 대한 참여율을 엄청 높아졌죠. 그런데 처음 하는 찬양이거나 잘 모르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율동을 하면 신나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먼저 성도들이 익숙해 질 때까지 몇 주 기다렸다가 하는 편이에요. 찬양을 25-30분 정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요. 율동을 함께하는 찬양은 한 3곡정도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가사에 집중하는 찬양을 하거나 느려지는 곡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몸찬양팀은 다른 멘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진 않고 찬양을 이끄시는 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끄시죠. 그런데 반복을 해야 하는 동작이 있거나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리더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찬양 콘티는 1주일 전에 받아요. 파워 찬양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연습시간에 보통 3-40분 정도 해요.

작품의 경우에는 보통은 4분 정도 되는 걸 준비하고요 절기 예배 같은 때는 8분 정도 되는데 대사가 없는 몸으로 표현하는 연기나 스토리나 이어지는 걸 할 때도 있어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장르를 선택해서 해요.

찬양 중에는 회중들이 따라 하기 쉽도록 어떤 포인트 부분에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스트릿 댄스 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요. 전체적으로는 율동적인, 따라 하기 쉬운 틀 안에 포인트 부분에만 넣는 거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팀원들은 8명 정도 되요. 24살부터 33살 까지 있어요. 들어오면 오래 있는데 들어오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들어오기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 3명 정도 되요. 2, 3명 중에서도 정단원이 되는 사람들은 1명에 그치는 정도예요. 지금 저희 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워십댄스를 접해본 친구들이라서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또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공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이고 나머지는 비전공자들에게요.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할 수 없이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

으로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셀모임 등에서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몸찬양팀 안에서 나눔을 같이 하는데 팀원들한테는 신앙의 길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춤을 추고 안 추고를 떠난다면 우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끼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멤버쉽이 쌓여 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 무용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통 속에 있다가도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더 영적인 부분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힘든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자체는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움직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함께 할 때는 예배 안에 뛰어들어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역하지 않을 때는 고요함이 있거나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좀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서면 훨씬 참여적으로 드리는게 있어요. 예배드릴 때 셀끼리 거의 앉는 편인데 그때 목자들이나 셀 리더들이 저희가 춤출 때 같이 따라하는 편이거든요 리더가 하게 되면 옆에 셀팀원들은 목자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리더가 하면 또 같이 하니까 함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게 차별되는 점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것. 다른 팀들도 많이 하겠지만 저희 팀은 정기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 이렇게 하는 팀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댄스컬이라고 하는 뮤지컬처럼 댄스만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예배 안에 워십댄스가 함께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말씀과 연계를 해서 말씀 전에 하던 후에 하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작품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기마다 라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저희 팀이 몸찬양을 해서 하나의 찬양이 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점 더 그렇게 활용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작품들을 어떤 개인이 보시고 하셔서 촬영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많은 교회 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 중에 하는 파워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연락이 와요. 본인 교회에서도 이 동작들을 해도 괜찮은지 연락이 와요. 제작년까지는 못 느꼈는데 작년부터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교회에 와서 가르쳐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셔서 점점 더 필요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 따라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왔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점점 더 이런 파워찬양이나 워십댄스를 포함하

려고 하는 건 더 있을 것 같아요.

D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바탕이라 함은 성경자체에 춤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몸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왔을 때 소고 치며 승리에 대한 표현을 했잖아요. 기쁨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춤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에서도 춤추며 찬양하는 부분, 다윗왕도 춤추는 부분도 있는데 법궤가 들어올 때 율법을 몰라서 소가 끌고 오게 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절망도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이 메고 들고 왔을 때 베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건 사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왕인 신분을 내려놓고 오직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실제로 성경은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니까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척하고 나서 1년후에 목사님이 미국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서 1년 후에 미국에 가셨다가 “니가 뭉이면 성도들이 다 뭉인다.”라는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나가서 춤추기 시작하니 다른 성도들도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 춤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뭔가 영적으로 풀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셔서 미국 가기 전부터 춤추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자리에 그냥 서서 찬양하는 정도였는데, 미국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나오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했어요.

반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질문)

이런 예배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교회 내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 찬양 팀이 외부 사역을 나갈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찬양 팀 나름대로 춤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교회의 예배학교에서 ‘강한예배’라는 파트에서 춤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취야하는지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춤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춤에 대한 것은 복음주의 쪽 보다는 은사주의 쪽에 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니 춤에 대한 섹션이 있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SBS에서 춤으로 치유하는 다큐를 봤는데 춤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을 봤는데, 미국에서 다같이 춤추면서 암 말기 환자들이 와서 춤을 추는데 진짜 영, 혼, 육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일반 세상 사람들도 풀어내려는 시도들이 있는걸 알게 됐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같은 일반 백과사전에 보니 춤을 추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을 경험한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이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지만 실제적인 육적인 영역에서의 문이 열리지 아니면 혼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고 결국 혼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춤이라는 것이 육적인 부분을 열면서 혼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확 여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예배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 다니면서도 깨닫고요. 이게 혼적인 영역까지 열려지니까 결국에 저희의 목적은 저희가 항상 춤을 추게 할 때 사역 나가서도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 중고등학생들이 오는데 그냥 춤을 추라고 하면 안 추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기도 하는데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냐면 혼적인 영역까지 터치가 일어나면서 결국엔 어떤 한순간에 영적인 애기지만 뽕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는 점신하는 말이 정확한 게 성령이 꼭 잡으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애들 안에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엔 성령이 애들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메시지가 아무리 들어가도 애들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또 성령이 역사하

지 않으시면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외부 집회 갔을 때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춤추면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애들하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영적인 부분이 돌파가 되면서 성령이 딱 사로잡아요. 그럼 저희는 딱 그때부터 깊은 찬양의 예배들로 넘어가는 거죠.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런 거를 저희 예배 초창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거의 저희 안에서 2년 동안은 너무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시계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딱 6시간, 7시간씩 동안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표현하고 부르짖고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집단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거짓말이 아니고 바닥이 눈물 때문에 저벅저벅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초창기가 그랬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든 예배학적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느 정도 현재 정리들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곧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책에 춤에 대한 파트도 들어가고 저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성경적인 신학적인 영, 혼, 육에 관련된 것들 적혀 있어요.

별도로 무용 팀이 있으신가요? 워십댄스팀 같은. (질문)

예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소통의 한계가 있었고 나이가 드니 결혼하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찬양팀 안에 현대무용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깊은 음악이 나올 때 성령 안에서 춤추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따로 허용하기는 하지만 팀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서요.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보통 교회에서는 절기 때나 행사 때 공연을 하잖아요. 특별히 하는 건 없나요?(질문)

그때는 때마다 프로젝트로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또 예배팀 안에서 계획에서 좀 디테일한 안무를 짜서 같이 성도들하고 한다든지 하죠. 아니면 또 구성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건 기획을 때마다 해서 하고 있

죠.

또 외부사역을 많이 가는데 저희가 광주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예배 바꾸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워십댄스팀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예배를 하는데요. 혹시 gathering이라고 아세요? 글로벌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거기가 되게 워십댄스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 팀이 절반 워십댄스팀이 절반 이렇게 무대를 배치해요. 거의 한 2-30명이 올라와서 워십댄스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가 즉흥적으로 성령 안에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 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러다가 회중들이 또 다 따라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연합으로 하는 운동을 한국에서도 자주하고 제주도에서도 했었어요. David Demian이라고 이분이 이집트 분인데 영감을 받아서 시작한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워십댄스팀이 세워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학교를 두 달에 걸쳐서 춤의 신학이 한 파트로 들어갔죠.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춤에 대한 교육은 거의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 때마다 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고 예배학교 안에 같이 파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배학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하는 코스인가요?(질문)

네네 그렇습니다. 8주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교회 멤버쉽이 되면 선택해서 여러 학교 예배학교, 성경학교 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배학교는 거의 필수 과정이죠.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질문)

생길 수 있다면 댄스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호주의 Planet Shakers라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안 알려졌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3년 동안 거기를 갔었는데 요즘 한 2년 동안 거기서 크게 이쪽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댄스 팀이 같이 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교회 예배 안에서 원래 율동 팀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곡도 약간 올드 했었고 하는 동작들도 좀 서로 매칭이 안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Planet Shakers 같은 경우는 노래도 세상 음악과 비교했을 때 전혀 끌리지도 않고 그 장르에 맞춰 워십댄스팀이 딱 맞춰 주는거예요. 근데 또 그게 생각보다 팬 참더라고요. Planet Shakers가 한국에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Planet Shakers가 은사주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데서 워십댄스팀을 세워서 하는걸 보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희가 가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적인 것들만 확보가 되면 모든 곡에 워십댄스팀이 다 들어오면 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방해가 될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참여적 예배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예배 신학적인 것이 참여적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구경꾼으로 놔두지 않고 함께 참여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게 할까 하면서 그런 워십댄스팀이 그런 참여적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Mentor팀과 캠프사역을 2년 정도 했었어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이 자기 멋있는 척을 하면서 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인도를 하는 입장에서 애들이 더 강력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댄스 팀이라면 아주 강력할거고 또 하나는 느린 깊은 노래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춤출 때 보여주는 표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있고 오히려 더 소통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어 질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게 열려지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95% 이상이 청년층입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장년층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청년들처럼 2,30대 시작해서 시간이 10여년이 흘러서 장년이 된 거라 서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서 지금 자모실에 보면 애들도 많고 지금 애들이 70명이 있어요. 장년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부모님들이세요. 애네들이 뭐 하러 다니나 하러 보러 오셨다가 본인들이 더 잘 맞아서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분들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질문)

아니요. 하세요. 오히려 제가 사역을 다닐 때 여러 사역들을 다니는데 요 근래 강원도에 갔었는데 강원도가 원래 기독교가 되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5-60대가 절반이상 모이시는 집회였는데. 거기가 연합 집회여서 저희 팀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5-60대 어르신들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계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거예요.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대부분이 춤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럼 어떤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질문)

그런 지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소수인원인데 근데 본인의 감정기복정도. ‘별로 지금 내가 추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앞에서 추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옆에 사람들 하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목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돌파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넘어 서야하는 거고 또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으로써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반응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타협을 안 하고 계속 푸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오나 봐요?(질문)

네. 그래도 교회는 나오죠.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춤이 예배의 참여도에는 엄청 기여를 하죠. 저희가 사역 나갈 때 보면 저희를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는 애들이 잘 따라 올 수 있을지를 애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먼저는 기도로 확인을 하고 또 애들이 움직이는 동작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찬양에 일부러 중간 중간 손뼉을 친다던지 합성을 지른다던지 동작들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애들이 손을 치면서 일단 몸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서 떼게 하고 그다음부터 격렬하게 움직이게 하고 따라올 수 있는 동작들을 의도적으로 넣어서 오늘같이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좀 더 임팩트 있는 동작들을 저희 나름대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이럴 때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안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좀 역동적인 동작들 위주로 앞에 사람에게 손을 올린다던지 하는 거요.

애들이 모르고 따라하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춤을 출 때 어느 정도 단계에 다다르면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게 해요. 저희도 근데 하다 보니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오히려 춤을 추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더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을 춤을 추게 되고 어르신들도 춤을 추게 되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앓아 계시다가 제가 의도

적으로 이걸 매주 하거든요. 매주 함께 옆에 사람 손잡게 하고 둥글게 둥글게 하게하고 아니면 팔짱을 끼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넣어요. 그렇게 되면 못하는 분들도 하게 되고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하고 알게 되고 자연스러워지시죠.

춤이라는 것은 정말 회중들을 예배 안에서라든지 또 어떤 모임에서라든지 참여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전통 관습 안에서 있었던 것들도 「메시아닉」이라는 책에서 보면 원무를 추면서 하는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참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무를 추면서 참여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는건 찬양시간의 자유로운 춤이죠.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0년, 11년 정도 있고 거쳐 간 사람들만 보면 900명에서 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되게 힘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 달, 두 달 드리다 보면 살아나게 되요. 살만하게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사명 적으로 교회에 붙여져서 남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안정적으로 있고 싶고 돌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것을 원하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또 힘들 때 왔다가 괜찮아지면 나갔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었다가 온 사람들 보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정착율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다른 예배들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아예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들의 정착율은 90%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예배 팀은 저희가 외부 사역이 많아서 1년의 거의 교회사역 빼고 100일 정도는 나가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여기 예배 팀 중에 4명은 월급을 주고 full time 사역자로 하고 있죠. 나머지는 지원자로 해서 rotation으로 하죠.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영적인 영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조나단 에드워즈에 ‘감정론’이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장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는 얘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시기가 부흥이 대각성 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시기인데 이때도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지금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주의권 은사주의권의 다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감정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써서 감정이 만져지지 않고는 성령이 만져지고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라고 쓴거죠. 근데 또 반면에 거짓감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가지를 잘 분별하면서 가야 할 텐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강의 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인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가 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도 나도 없이 패밀리였죠. 그때 스페인 경기를 이겼었는데 그때 뭐 춤은 문제가 아니라 열정을 표현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춤추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스페인 경기가 우리 삶에 무엇을 준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인데.. 예배가운데 이걸 당연하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

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 혼, 육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건데 한국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육적인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가면 지식적인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을 영적인 예배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춤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한 것처럼 영적인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게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감정적으로 먼저 열리고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도록 하는게 다른 것 같아요.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EDM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잖아요. 그렇다면 느린 찬양 등에는 함께 춤출 마음은 없으신가요?(질문)

곡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댄셀 교회처럼 한명, 혹은 두 명이 나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예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EDM 음악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함이 크죠.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적인 확보가 있어야 교회에 무용(춤)이 더 활용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교회건물을 옮겨갈 때마다 어떤 zone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중석에서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춤출 수 있는 zone을 아예 예배시간에 한쪽에 만들어주고 또 그 공간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표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zone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IHOP을 갔더니 아예 그런 zone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Planet Shakers는 갔더니 애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아예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중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춤추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은 필요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역 안에서 무대에도 열린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임명된 댄서가 또 거기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간이 허락된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 벤엘 교회처럼 하고 싶죠. 워낙 춤이 갖는 것이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게 강하니까요. 춤이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영국 교회처럼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춤이라는 요소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분명히 그런 교회들 안에는 있겠죠.

E 교회

1. 귀하의 무용을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양 중에 손을 들게 되는 것처럼 몸짓으로 받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권장하시면 권장하셨지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록 된 곳은 성경에도 없거든요.

2. 교회의 예배에서 무용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2013년 1월에 개척됐고 한 4월부터 찬양 중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3. 어떠한 이유로 무용이 예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들이 거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문화선교단체에서 다들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역하던 사람들이예요. 미국에도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한국 보다는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할 때 회중들도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도하고 또 무용팀이 있어서 무용수가 짜여진 안무 없이 즉흥으로 무대에서 추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진 곳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Redding에 있는 Bethel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 중에 춤도 추고 또 받은 감동을 그림을 그리면서 예배당 한쪽에서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담임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처럼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개척될 때쯤에 제가 이쪽 기독교 무용에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뭐 그 과정도 신기했죠. 저를 소개시켜 주신 다른 목사님도 저랑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신거죠. 저를 2013년 1월에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바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4월부터인가 찬양시간에 저 혼자 춤추기 시작했죠.

4. 교회에서 무용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주일 해요. 주일 예배 찬양시간이 거의 4-50분하는데 아직 교회가 많이 작고 춤추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추죠. 처음 시작 할 때는 그냥 2, 3곡정도 했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전곡 다 추게 됐어요.

5. 무용을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에 있어 신앙과

성경말씀의 기초가 있다면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테크닉 훈련을 하신다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 혼자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없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죠. 일단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레슨을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한국무용하고 발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있고요. 또 피트니스 클럽가서 웨이트트레이닝하고 유산소 운동을 또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죠. 동작이 잘 나오려면 몸에 또 근육이 있어야하니까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건 글썄요. 삶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왔던 체험들이 다 쌓여서 춤출 때도 같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하겠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놔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이 춤을 포기할까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면서 만난 경험들이 쌓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춤출 때 부르게 되는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들이 정말 제 고백이 되거든요. 완전 집중하고 몰입해서 추지 않으면 절대 즉흥으로 출수 없어요. 저희 교회가 많이 작아서 바로 앞에 회중들이 앉아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하면 절대 집중이 흐트러져서 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하는데 그런게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6. 귀하의 교회에서 무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 혼자 하니까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교회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뭘 소품 등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줘요.

7. 무용으로 참여하는 예배에서 회중들의 연령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도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요. 4, 50대가 30% 청년층이 40%, 30대가 20% 나머지에 60대 이상과 어린아이들이 있죠.

8. 예배에서 무용을 함께 할 경우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의 예가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뭐 창립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대부분 익숙해졌죠. 중간에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중에 예배 중에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가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 오셔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고, 또 계속 계신 성도 분들 중에도 은혜 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저희 교회 찬양 팀 리더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춤추는걸 보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리드하게 된다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담임목사님도 찬양 중간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에 집중이 안 되시면 앞에 oo자매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표정만 봐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9. 무용이 회중들의 예배의 참여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몇의 해외에서 오래 살다온 청년들이 찬양 중에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몸짓도 조금씩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 교회 스타일의 찬양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즉흥으로 추고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편이라 서요. 물론 찬양 리더가 일어서서 하자고 하거나 손뼉치고 찬양하자고 하거나 하면 하지만요. 저도 사실 이게 좀 불만이에요. 제가 좀 이끌고 싶기도 한데요. 성도들에게 찬양 중에 춤을 추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또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10. 춤을 출 때의 예배 형식과 구성이 어떻게 되며 진행하시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시간이 4, 50분이면 제가 처음부터 찬양 끝날 때 까지 즉흥으로 하죠. 물론 콘티는 미리 받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즉흥이라는게 평소에 배워둔 스킬이 그 곡에 흐름과 가사에 맞춰서 감동을 받은 대로 나오는거라 평소에 테크닉을 배워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있어야 해요. 주중에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다가 갑자기 주일 찬양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온 몸으로 고백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찬양시간에 제가 리드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11.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 어떤 스타일의 무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은 즉흥이죠. 제가 어렸을 때, 힙합을 배웠고 또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까지 배웠고 또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 곡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춤을 춰요. 콘티를 미리 받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머리로 생각을 해두죠. 하지만 안무를 짜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략의 구성만 생각해 놓고 예배 중에 받은 감동대로 춤을 추고 있어요.

12. 무용수들이 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용수는 현재 저 밖에 없네요. 교인이 일단 적다 보니 춤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요. 몇 명 있어서 몇 달 같이 모여서 연습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교회를 옮기게 된 친구도 있어서 저 혼자 하고 있죠.

13. 리더로서 볼 때 무용이 예배 또는 팀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성도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영감이나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분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찬양 중에 은혜를 받으면 손을 들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아주 소극적인 몸짓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몸짓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확장해서 표현되는 게 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아픔 또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진정을 담아서요. 지금은 저 혼자 추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간 회중들도 그렇게 추게 하고 싶어요. 춤을 추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14. 실제로 예배무용이 예배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무용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는 찬양시간에 춤추는 게 없게 되요. 그러면 확실히 예배의 생동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찬양 가사를 몸으로 시각화해서 추는 일이 없는 거니까요. 춤을 함께 하면 찬양 가사가 더 직접적으로 또 찬양가사가 진짜 정말 와 닿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5. 귀하의 교회 예배에서의 무용이 타 교회의 차이점, 장점 또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간 훈련 받은 무용수가 찬양 중에 전곡에 맞춰 즉흥으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장점은 그만큼 열려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체면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죠. 예배무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 시선 먼저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춰야하는 것 같아요. 미갈이 비웃었을 때 다윗의 대답이 정답이었죠. 사람들 보라고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춘 것이라는 대답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 같아요. 춤 출 때도 일상 생활에서도

요. 사실 작은 교회에 또 회중석과의 거리가 10 c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무대에서 춤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한 거죠.

16. 현재 하고 있는 장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회중들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추도록 하고 싶어요. 춤추는 마인드부터 해서 좀 깨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춤추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또 장르라고 한다면 몸짓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영국의 한 워십댄스 선교단체에 가서 배운 건데요, 좋더라고요. 5명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창세기 한 부분을 몸짓으로 표현했는데요. 더 와닿고 또 이런 걸 확장시켜서 해외 선교 나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몸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빠르겠죠. 댄스컬 같은 것도 하고 싶고요. 뮤지컬 형태지만 무용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17. 교회 예배에서 무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 및 환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이 문제예요. 저 혼자 추기도 좀 좁으니까요. 팀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힘든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럿이 춤추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18.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무용을 예배 중에 도입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반 세상도 이제 점점 AI시대가 다가오면 얼핏 생각하면 예술 분야가 도태 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 창조의 영역이고 사람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게 될 직업은 어쩌면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예술 분야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수용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것을 은혜로 덮고 가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좀 이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죠. 그러나 일단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면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훈련도 받아야하고 연습도 해야 해요. 무대에 섰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춤추는게 맞지만 또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중석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것은 상관없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해서 간다면 기독교 문화 안에서의 무용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춤을 추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점점 한국 교계도 인정해 줘야죠. 언제까지 유교적인 마인드에 사로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록 3. 관찰자의 참여일지

A 교회

방문일: 2018년 10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추수감사절 주일 찬양예배)

총 예배 시간 : 약 1시간 30분

- 예배 순서 -

(오프닝 무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솔리스트 앙상블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 여성/ 남성 합창단
2. Show me your ways - 청년대학부 찬양팀 & 중창단
3. 1.2.3. victory / 해피송 - 청년대학부 댄스 선교부
4. 사모곡 / 사명 - 한국무용선교단
5. 주 안에서 화목. 사랑. 하나가 됐네 - 교회 사물놀이 선교단
6. 감사로 주님을 기뻐하라 - 교구 찬양
7. 바닷길 - 현대무용단
8. 거룩하신 하나님 - 연합찬양대
9. 파송의 노래 - 부부합창단
1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선교사 찬양
11. 물이 바다 덮음 같이 - 연합찬양대

설교 말씀 - 담임 목회자

모두 함께 -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광고 & 축도 - 담임 목회자

이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위와 같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여 진행한다. 무용 뿐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의 합창단을 비롯한 국악 선교단과 연합으로 준비하여 올린다. 순서대로 등퇴장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이를 연결해주는 사회자 겸 연기자들에 의해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각 공연들이 진행된다.

절기의 특별예배라서 그런지 회중석은 예배당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빈틈없이 꽉 찼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중의 하나로 마치 로마의 원형경기장

또는 대형 음악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위엄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또한 무대에 장식된 대형 과일 바구니들도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예배당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 전문인들의 합창으로 오프닝 무대가 시작되었다. 일반 합창 공연에서도 볼 만한 뛰어난 실력이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순서 중에 본 연구자는 무용 공연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대학부의 댄스 선교단은 요즘 유행하는 방송 댄스 또는 힙합의 장르의 춤을 추었다. 기독교무용의 장르로 구분하면 C.C.D.라고 할 수 있다. 약 11년 전에 본 연구자도 C.C.D. 위주로 춤을 췄었는데 그 시절의 이 분야의 전문 사역 단체들의 수준과 견주어 보았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테크닉과 구성이 훌륭했다. 팝핀 등의 테크닉을 활용하여 춤을 추기도 하였고 많은 연습을 한 티가 났다. 또한 청년대학부의 중창단과도 연합하여 춤추는 모습도 잘 어우러져 보였다.

이 교회의 한국무용선교단은 비전공자의 여성 집사님들로 구성되어있다. 비전공자로 구성된 단원들의 공연이라 높은 완성도를 볼 수는 없었으나 소품의 활용이나 의상에서 다른 교회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교회에서 무용단에게 갖는 관심과 지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대무용단의 공연은 교회의 한 여성 성도가 C.C.M. 찬양곡 ‘바닷길’을 부르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바닷길을 상징하고자 하늘색 큰 천을 소품으로 사용하여 단원들이 파도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구성이었던 것 같다. 현대무용단원들 전체가 춤을 추는 것은 아니었으며 단원 중 한사람이 독무를 하였다. 가사와 리듬에 맞춰 구성하여 춤을 춘 것 같다. 보다 전문적으로 예술성있게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찬양곡 전체에 맞춰 추지 않고 곡 중간에 무용수가 등장해서 추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춤을 춘 점이다.

이 교회의 절기 특별 예배는 대형교회만이 보여 줄 수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모든 대형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도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몇의 팀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회 예배

당의 스케일과 그 곳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수가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 이었는데 그에 걸 맞는 연습과 준비도 필요한 것 같다.

B 교회

방문일: 2018년 10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찬양시간: 25분

찬양곡:

예수 님기를 (느린 찬양) - 찬무 없음.

손을 높이 들고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내가 어둠속에서 헤맬 때에도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시선 (느린 찬양) - 찬무 없음.

5개의 찬양 곡 중 찬무가 있었던 것은 3곡 이었다. 찬양인도자가 성도들에게 일어서서 하자고 말하고 찬무가 시작되었다. 두 명의 찬무팀원들이 율동을 했고 이를 성도들이 따라하는 분위기였다. 회중석에서 바라볼 때 왼편에 앉은 성가대원들도 찬무를 적극적으로 따라했다. 찬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두곡을 부를 때도 찬무팀원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며 자연스럽게 손은 드는 등의 동작을 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래된 대형교회 중 하나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찬양 시간만큼은 자유로워 보였다. 회중들은 모두 장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동을 따라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회중석에서 정면 왼쪽에 바로 보이는 성가대원들 또한 함께 율동을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율동을 따라하는데 기여한 것 같다. 2명의 찬무팀만이 율동을 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율동을 하는 모습은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율동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율동의 구성은 대부분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이었다. 물론 도는 동작이나 땅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들이 있기는 했으나, 성도들은 찬무팀의 팔 동작 위주

로 따라하였다.

또한 찬양 중에 어떤 한 성도가 회중석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한국의 교회 특히 보수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장로교 통합교단 측의 예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25분 남짓 되는 길지 않은 찬양시간의 3곡만 찬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도 전 성도가 충분히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C 교회

방문일: 2018년 6월 24일 주일 청년예배

찬양시간: 약 15분

찬양곡:

주 신실하신 놀라워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만세반석 (빠른 찬양) - 율동 있음

온 땅의 주인 (느린 찬양) - 율동 없음

주 여호와와는 광대 하시도다 (느린 찬양) - 율동 없음

찬양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무대에 성가대원들, 찬양팀, 및 몸찬양팀이 함께 서서 찬양을 드렸다. 총 4곡 중 율동이 있었던 곡은 두곡으로 빠른 곡들이었다. 비교적 젊은 층의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익숙한 C.C.M. 곡이었다. 빠른 찬양에만 몸찬양팀의 율동이 있었고, 느린 찬양에는 함께 찬양을 드리며 그대로 무대에 있었다.

율동이 없는 찬양에서도 몸찬양팀은 그대로 찬양에 몰입하여 자신들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반면 무대에 함께 서있는 성가대원들은 몸찬양팀에 비해 찬양에 몰입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몸으로 찬양 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을 때에도 찬양에 대한 몰입도가 확실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춤을 추지 않던 춤을 추던 찬양에 몰입을 한 만큼 받는 은혜도 크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회중석의 성도들은 찬양시간 내내 서서 찬양을 하였다. 율동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이 따라하거나 춤을 추지 않는 경우 박수라도 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신나서 함께 찬양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D 교회

방문일: 2018년 9월 30일 주일예배

찬양시간: 1시간 30분

찬양곡

Good to me

Greater

Nobody like You

Rejoice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있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You deserve the glory

My soul sing

먼저 이 교회의 찬양시간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매우 길었다. 약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느린 찬양을 제외하고는 회중과 찬양팀 모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이라 그런지 외국 찬양 곡 들을 많이 불렀다. Planet Shakers, Bethel Church, MercyMe 등 미국, 호주 등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의 찬양 곡들을 불렀다. 본 연구자가 방문했을 때는 연합예배로 오전 및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11시에 함께 드렸는데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 교회의 성도는 청년층이 90%가 넘는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젊은 교회’라는 생각과 함께 그저 정신없이 춤을 추며 예배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교회의 청년층의 봉사자들이 굉장히 밝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가식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춤추며 예배하기 때문에 가슴에 답답했던 것들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내적인 치유도 함께 일

어난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찬양 리더나 찬양팀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춤추며 찬양하는데
쉽 없이 하였다. 찬양 중간에 랩이 필요한 부분에는 랩퍼가 등장해 랩을 하였
다. 또한 대부분 성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감동대로 춤을 추도록 하다가 어
느 특정 부분에는 찬양팀이 율동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올라와 부분적인 동작
들을 알려주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추게 하였다. 그
리고 무대 앞쪽에 나가서 춤을 추지 않고 몇몇은 자리에서 추기도 하였는데,
찬양 리더가 성도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하라며 이끌었다. 이러한 진
행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결속력을 다지게 해 주는 것 같다.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았다. 회중식 중간, 중간에 장년층이 있었
는데 춤을 추지 못하고 박수만 치면서 예배드리던 그들도 어색하지 않게 함
께 춤추며 예배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예배 후 담임 목회자와 미팅을 가졌는데 이 교회가 예배를 찬양시간을 포
함하여 약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볼 때도 2시간은 투자하는데 예배가 그 보다 짧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
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면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주일예 한 시간 남짓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한다. 다른 교회의 약 2배 이상이 되는 긴 예배시간과 2배 이
상 되는 찬양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찌들었던 것을 치유 받는 시간
이 되는 것 같았다.

E 교회

방문일: 2018년 7월 15일 주일예배

찬양시간: 약 45분

찬양곡 (전 곡 즉흥무용):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We are hungry

Offering

그는 왕

Here for You

Just Where You are

먼저 이 교회의 가장 타 교회 대비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영어 찬양 곡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온 1.5세대의 담임 목회자와 찬양팀 리더의 영향인 것 같다. 성도수가 몇 십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규모에 비해 찬양팀의 리더와 세션들의 실력이 좋아 보여 알아보니 모두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다. 이날 불렀던 찬양 곡 중 마지막 곡은 찬양 리더의 자작곡이라고 하였다.

무대와 회중석의 거리가 매우 좁았고 무대의 높이도 바닥과 같아 차이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이 신기해 보였다. 무용수는 첫 곡부터 마지막 곡 까지 모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다. 찬양도 불러가면서 춤을 추었는데 즉흥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및 힙합의 느낌을 곡에 따라 변경해 가며 가사와 리듬에 어우러지게 하였다.

무용수는 다른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오직 찬양에만 집중하여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회중석 맨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장난치고, 무대 오른쪽 끝에 문이 있었는데 그 문사이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수는 오로지 찬양에 집중하여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졌다. 찬양 중에 감격하는 모습과 표정을 비롯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빠른 찬양의 신나는 리듬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이 교회의 분위기가 결코 이 무용수가 춤을 추기 편안한 상황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회중석 앞 쪽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것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그저 앉아서 찬양을 부를 뿐이었다. 한두 명의 젊은 청년이 일어서서 찬양하며 본인들이 받은 감동을 다소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좁은 공간에서 무용수 혼자 그토록 집중력 높게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녀에게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신기해서 무용수에게 물어보니, 이 교회가 이렇게 작은 공간이나
마 예배당이 생겨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약 1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전에는 3년 반 이 넘게 미용실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또 그 이
전에는 북카페를 빌려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무용수는 혼자 춤추며 찬양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어떤 환경 속
에서도 집중해서 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를 말한다. 그 정신은 살아가면서도 또 무
대에서 춤을 출 때도 그렇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춤을 춘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는데 이 교회의 무용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
다.



ABSTRACT

Research on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Dance in Korean Church

Kim, Young Mee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hristian dance has been developed so far that it has been used for mission and churches in various ways. Nevertheless, it is still used as a tool for special event at churches rather than a factor of worship. Therefore, this research selected five churches in Seoul which adopt different type of worship dances during services and examined them. It aims to broaden the opportunities of using worship dance in different ways at church services through this work.

I tried to find the validity of using worship dance during church services by examining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worship and worship dance through literature survey in chapter two. Also, I researched the type of Christian worship dance which had historically been used. In chapter three, I categorized general christian dances which are currently being used both in Korea and in the worl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chapter four with five leaders of worship

team and worship dance teams which characteristically adopt worship dance at church services. Moreover, I attended these five churches' services and wrote diarie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and the diar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orship dance was written in this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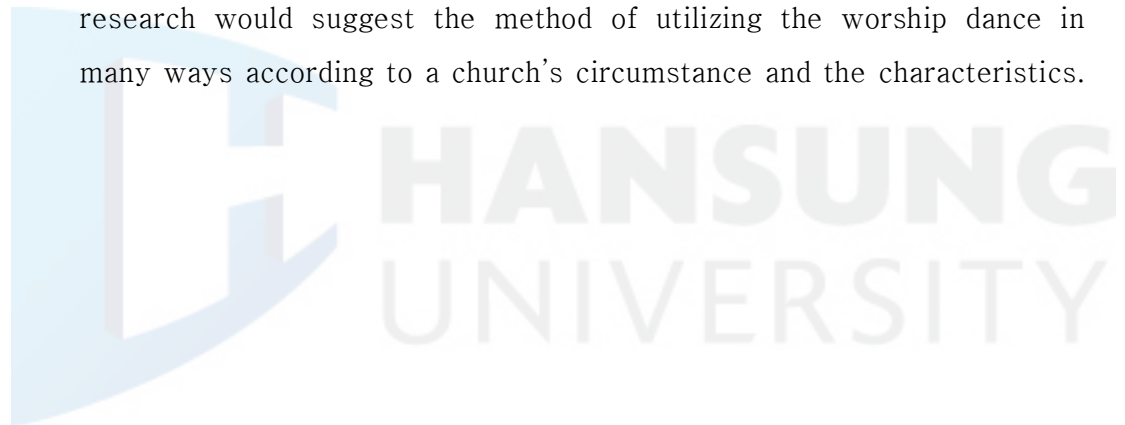
Firstly, when we look at the worship dance types, church A adopts the performing art style during Sunday evening service, main church events and seasonal worship services randomly. Church B utilizes worship dance at every Sunday and Friday evening services. At church C, the worship dance team of the youth group dances at Sunday youth service with the congregation biweekly. Also, this team performs at church event including seasonal services not only at the youth worship but also at the main Sunday services. Most of the congregation dances at every Sunday service freely at church D. At church E, a dancer dances spontaneously at every Sunday service.

Secondly,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gregation when the worship dance is adopted during the service, people cannot participate actively since church A takes the performing art style for worship dance but they realize the Word not only by the sermon but by the performance. The congregation at church B follows the worship dance easily since the dance team utilizes simple movements. Also, the congregation of church C participatively follow the movement of the worship dance team. People at church D highly participate with dancing when singing with EDM at the service. Since a dancer dances alone while singing, the congregation passively participate at the service of church E.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urch is as follows. The representative leader of church A's worship dance team is a professional dancer and choreographer and a half of the team members were all

majority in modern dance. Even though church B belongs to somewhat conservative religious body, most of the congregation actively followed the worship dance team's dancing. The members of worship dance team at church C are able to dance with a variety of genre and they practice for a long time. It is remarkable that the congregation of church D dances freely during one and half an hour of singing time at Sunday services. At church E, it is impressive that a dancer dances focusing on God only even if the circumstance of the church is poor that the stage is small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congregation is too short.

By looking at five churches' worship dances, there are churches where the congregation just watch whereas participates actively. Therefore, this research would suggest the method of utilizing the worship dance in many ways according to a church's circumstance and the characteristics.



【Key words】 Service, Worship, Worship dance